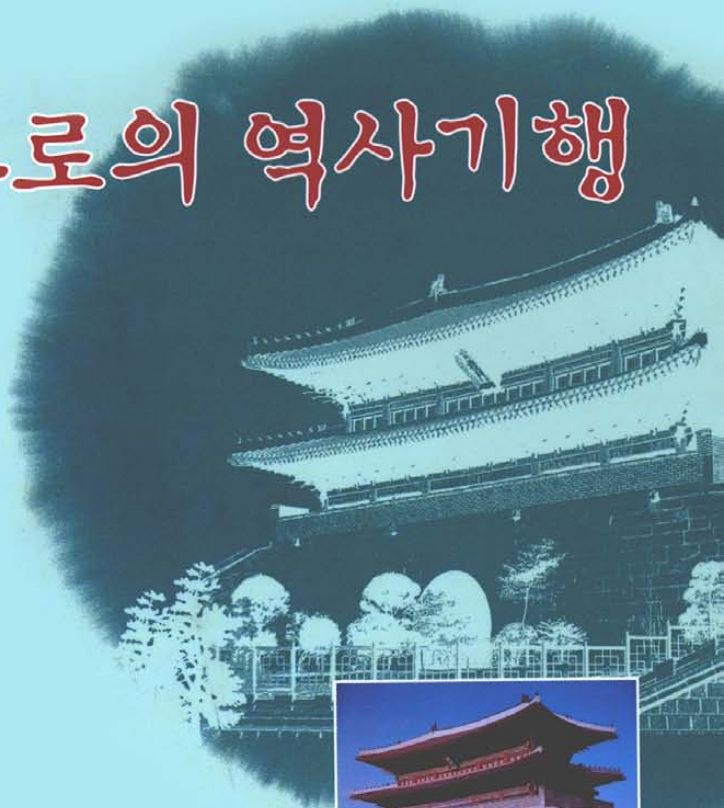


서울 중구
도심속으로의 역사기행



중구문화원



서울 중구
도심속으로의 역사기행



1999
중구문화원

중구의 문화재가 총망라된 안내서



우리 문화원에서는 해마다 향토사 연구위원회에서 향토사의 조사 및 연구, 사료의 수집 등을 통해 그 결과물을 '중구 향토사 관계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4집인 『도심속으로의 역사기행』으로 우리 중구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유적터, 동상, 비석, 금석문 등 130여 개소를 권역별로 총망라하여 우리 중구의 문화재 관련 개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고장 중구는 조선 600년 역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 중구는 조상의 얼이 곳곳에 숨쉬는 유서깊은 고장으로 국보 제1호인 승례문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간악한 민족말살 정책은 남산지역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문화재를 훼손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급격한 산업화와 우리의 무관심으로 문화재가 손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여 우리들의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부족한 이 책이 우리 고장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문화재에 대한 사랑과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다가오는 새천년을 열어가는 커다란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매년 끊임없이 지역 향토사 연구를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동일 중구청장님과 김사홍 중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 12월
중구문화원장 김 영 남

자긍심과 애향심을 드높이는 귀중한 자료집

조상의 숨결이 깃든 귀중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자손만대에 소중하게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화원의 중구 향토사 관계자료 제4집 『도심속으로의 역사기행』 발간을 축하드리며 김영남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장 중구는 예로부터 서울의 심장부로서 경제, 문화, 언론 및 유통의 중추기능이 집중된 생활의 중심권이었습니다.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을 비롯하여 덕수궁 등 지정문화재와 문화유적이 곳곳에 널려있어 조상의 얼과 슬기가 살아 숨쉬는 자랑스런 우리 모두의 고장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는 문화재 애호단을 결성, 문화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문화적 긍지를 심어 주고 우리 구민에게는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원과 함께 문화재 탐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세기도 역사 속으로 서서히 저물고 21세기 첫해인 경진년이 상서로운 용의 기상으로 힘차게 여의주를 물고 새천년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13만 구민과 함께 문화와 역사, 인간중심의 중구로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책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우리 고장 중구를 널리 알리는 데 소중히 사용되기를 바라며, 우리 구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드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999년 12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동 일

축간사

향토사랑과 이웃사랑의 좋은 길잡이



향토사랑 향토민 발자취의 총체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터전을 마련했던 고대 선인들의 삶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중구는 시대의 변천상과 더불어 부단히 이어져온 끈끈한 삶의 궤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삶의 편린들을 한데 모아 향토사를 편찬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애쓰신 김영남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토사의 편찬 의의는 크고 넓다 할 것입니다. 계곡의 맑은 물이 끊임없이 공급될 때 강은 풍성해지고 주위의 평야도 기름진 옥토가 되듯이 향토사의 체계적인 정리와 발간은 서울 지역사의 발전연구는 물론 나아가 우리 한국사를 살찌우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향토사는 구민 삶의 교훈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바쁘게 양적인 팽창의 길만을 달려온 우리들은 어쩌면 지난 발자취들을 제대로 뒤돌아 볼 겨를조차 없었다는 것이 사실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한숨을 돌리고 차분히 우리의 지난 족적을 음미하면서, 현재의 위치를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야겠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조목조목 밝히어 무엇이 지나치며 어떤 것이 부족하였는지를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향토사랑과 이웃사랑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도심속으로의 역사기행』은 그러한 의의와 역할에 크게 부합되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1999월 12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회의장 김 사 홍

일러두기

- 이 책은 1999년 11월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하는 각종 문화유산을 일반인들이 알기쉽게 소개한 책이다.
- 이 책에서 소개하는 문화유산들은 국가지정 문화재와 서울시지정 문화재들은 물론 현재까지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전래의 문화유산들을 모두 망라하여 소개하고자 하였다.
- 이 책에서 중구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며 실제적으로는 중구에 속하지 않는 문화유산들이라 하더라도 실제 답사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중구지역을 벗어난 인접 행정구역의 문화유산도 일부 함께 다루었음을 밝혀둔다.
- 이 책에서 소개하는 중구 문화유산의 권역별 구분과 해당 권역별 세부항목들은 중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이용자들은 이 책을 참고하여 훨씬 더 다양하고 알차게 서울특별시 중구를 보고, 느끼게 되길 바란다.

차 례

발간사 · 2
축간사 · 3
일러두기 · 5
중구문화유적지도 · 8
중구개관 · 10

제1장 중구의 터를 연 남산지역 · 13



국가의 제사를 지낸 사당, 국사당터 · 20
선비정신이 살아 숨쉬는 한옥마을 · 22
서울정도 600년과 타임캡슐광장 · 30
8도의 소식집결지, 남산봉수대 · 33
역사인물로 만나는 남산공원 · 38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남산 · 50
산책길에서 만나는 남산의 약수터 · 59

제2장 한양도성의 정문 남대문지역 · 63



남대문의 어제와 오늘 · 70
칠패시장에서 대형유통점까지 · 73
철도의 시작과 끝, 서울역 · 78
한국 천주교의 상징, 명동성당 · 81
조선시대의 서슬이 퍼렇던 관아 · 87
외국 사신들의 유숙처 · 99
도성방비를 위한 군사기지 · 101
하늘에 제사드리던 곳, 원구단 · 104
항일 독립운동 전적지 · 106
신식 문물의 박람회장 · 109
근대화, 외세침략의 교두보 · 114
선열들의 숨결 · 119

제3장 대한제국의 중심무대 덕수궁지역 · 123



- 조선왕조의 궁궐 덕수궁 · 130
- 순교자의 지킴이 약현성당 · 140
- 문호개방에 이은 열강들의 손길 · 143
- 근대 교육기관의 산실 · 146
- 난제 속에 빛나는 민족의 저항지 · 150
- 개신교와 구교의 터전 · 154
- 선열의 채취가 가득한 장소 · 156
- 서울성곽 · 161

제4장 충절의 고향 장충단지역 · 163



- 장충단에 얹힌 민족의 애환 · 170
- 장충단공원에서 만난 인물들 · 172
- 역사 향기 가득한 장충단의 명소 ·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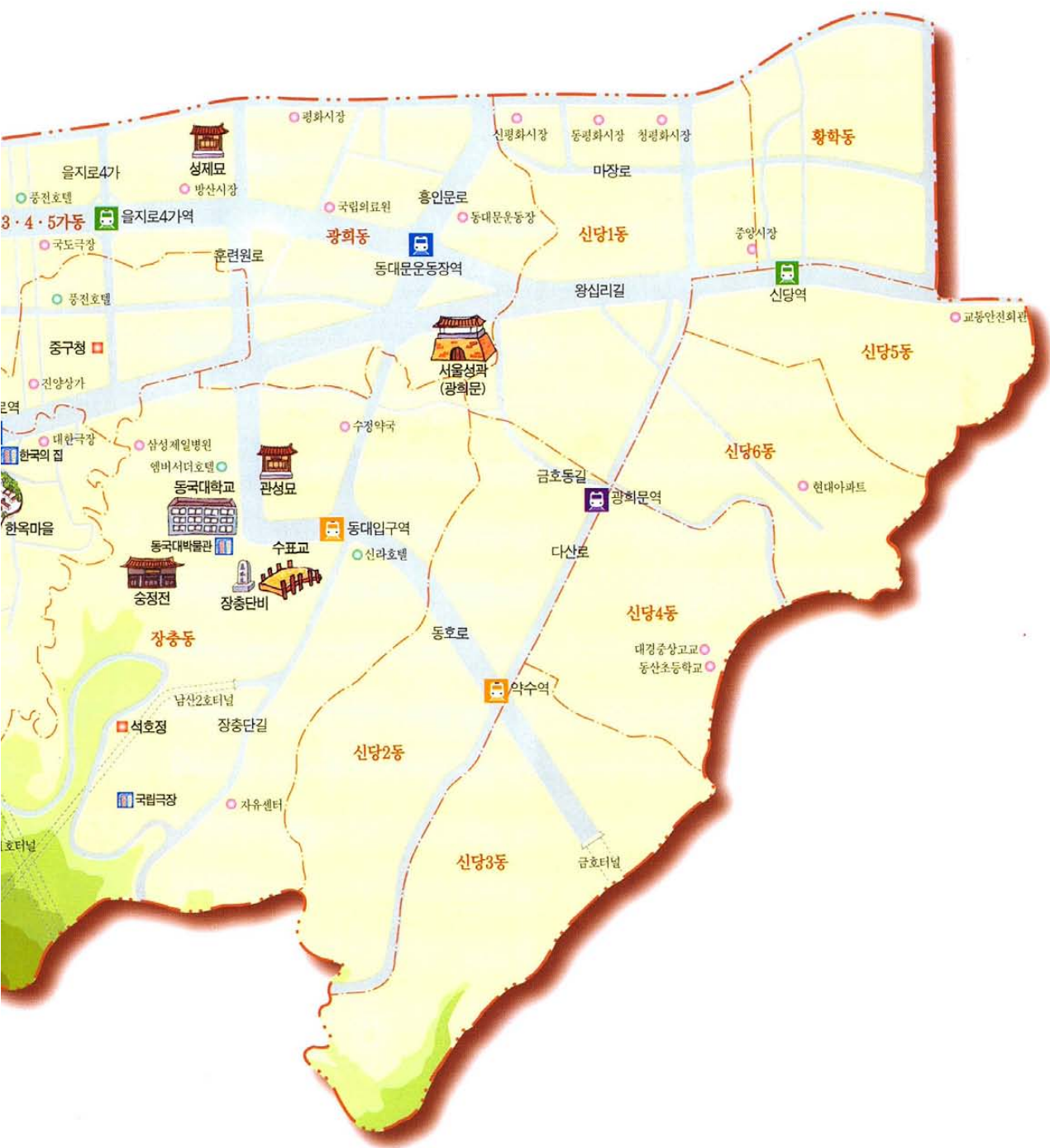
부록

- 중구의 문화공간 · 186
- 중구 문화재 일람표 · 198

- 찾아보기 · 210
- 참고자료 · 214
- 편집후기 · 215

중구문화유적지도





중구개관

오롯이 남아있는 역사와 문화

서울특별시 중구는 태평로·소공동·남대문로·회현동·명동·충무로·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신당동·황학동·중림동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9.97km²이다. 중구에는 1996년말 현재 48,000여 세대, 132,000여 명의 주민등록 인구가 살고 있다. 중구의 상주인구는 계속해서 줄고있는 추세지만 활동인구는 수백 만명에 이른다.

중구에는 패션과 유행의 첨단을 걷고 있는 상권인 명동을 비롯해서 전통 재래시장의 명맥을 잇고 있는 국제적 규모의 남대문시장,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덕수궁, 서울시민의 쉼터인 남산공원 등이 있다. 또한 영화사·인쇄소·오토바이 판매점·애견센터 등이 집중적으로 상권을 이루고 있는 충무로와 떡볶이·족발 등의 먹거리 문화가 발달해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신당동과 장충동, 만물시장 황학동 등이 이곳 중구에 있다.

이렇듯 중구에 활동인구가 많은 것은 교통이 편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돈을 버는 곳과 돈을 쓰는 곳이 중구에 집중해 있기 때문인데 시청, 신문사, 백화점, 호텔, 시장, 위락시설, 은행, 기업체 등이 모두 중구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 그렇다면 중구에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물결에 밀려 역사유적들이 모두 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관심의 강도가 다를 뿐 주위를 둘러보면 중구에는 수많은 문화유적





들을 만날 수 있으며,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흔적들이 무수히 많다.

'역사'란 오랜 시간에 걸쳐 국가나 민족이 겪어온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변천의 과정이며 '문화'는 사회 구성원이 함께 누리는 삶의 양식의 총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훼손과 무관심의 반복이 중구의 문화유산을 파괴의 길로 떠밀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구에는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곳곳에 오롯이 남아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중구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보게 될 이 책은 제1장 중구의 터를 연 남산지역, 제2장 한양도성의 정문 남대문지역, 제3장 대한제국의 중심무대 덕수궁지역, 제4장 충절의 고향 장충단지역 등의 4장과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별로도 항목을 만들어 세분화하였는데 중구에 있는 문화유적이나 동상, 표석, 기념비, 탁본에 이르기까지 조상의 흔적들을 누구나 직접 찾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약도와 함께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수록하였다.

제1장

중구의 터를 연

남산지역

국가의 제사를 지낸 사당, 국사당터

선비정신이 살아 숨쉬는 한옥마을

서울정도 600년과 타임캡슐광장

8도의 소식집결지, 남산봉수대

역사인물로 만나는 남산공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남산

산책길에서 만나는 남산의 약수터



남산지역



제1장

중구의 터를 연 남산지역



이 장에서는 '남산의 제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역사, 문화, 정치적 상황에 이르기까지 개괄적으로 점검하였다. 일반인들에게는 남산에 관한 역사기행이 될 것이며, 남산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내 고장의 유래를 좀더 자세하게 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남산지역을 '중구의 터를 연 남산지역'이라는 주제 아래 7개의 테마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국가의 제사를 지낸 사당, 국사당터」, 「선비정신이 살아 숨쉬는 한옥마을」, 「서울정도 600년과 타임캡슐광장」, 「8도의 소식집결지, 남산봉수대」, 「역사인물로 만나는 남산공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남산」, 「산책길에서 만나는 남산의 약수터」 등이다.

「국가의 제사를 지낸 사당, 국사당터」에서는 국사당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일제에 의해 인왕산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소개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산신을 모시고 나라의 평안을 빌었던 장소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곳이며, 우리 민족의 정서를 상징하는 곳이다.

「선비정신이 살아 숨쉬는 한옥마을」에서는 남산골에 살았던 선비들에게 '채남', 혹은 '딸깍발이'라는 별칭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느낄 수 있는 남산골 선비 이서우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또한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전통 공원과 순정효황후 친가·박영효 가옥·이승업 가옥 등 전통 한옥 5개 동에 대한 면면을 소개하였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옹골찬 선비정신이 아닐까? 비록 가난하지만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며,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남산골 선비정신을 한옥마을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정도 1000년이 되는 2394년 서울의 모습은 어떠할까? 2394년의 후손들은 적어도 1994년무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한옥마을 윗쪽에 자리한 타임캡슐을 개봉하면 되기 때문이다.

「서울정도 600년과 타임캡슐광장」에서는 서울시가 1994년 서울정도 600년을 기념하기 위해 600가지의 물품을 매설한 타임캡슐광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국 이 지역은 과거와 미래를 품고 있는 약속의 땅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봉수는 국가의 중요한 통신수단으로서 긴급한 사정을 중앙이나 변경 지방에 알리는 동시에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마련한 것이다.



「8도의 소식집결지, 남산봉수대」에서는 남산봉수대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봉수에 대한 현황을 요약하였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남산」에서는 옛 문헌에 자주 소개된 남산팔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찾아가서 의미를 되새겨보면 역사와 문화가 새롭게 움터나는 장소들로서 노인정터 · 남별영터 · 녹천정터 · 와룡묘 등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남산에서 진행된 민속놀이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러나 선현과 백성들의 깊은 사연이 담긴 장소들을 소개하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안타까움이다. 와룡묘를 제외하고 대개 개인주택이나 현대적 건물이 양당그러지게 차지해버렸기 때문이다.

남산공원은 동상의 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동상이나 조형물들이 많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 인물들이 동상으로 우뚝 서서 공원을 찾는 후손들에게 깨우침을 선사하고 있는 것이다.

남산공원에 가면 동상이나 시비(詩碑)를 통해 삼국통일과 화랑의 기백 김유신, 주자학을 집대성한 대유학자 퇴계 이황, 실학자 다산 정약용, 민족의 자존심 백범 김구, 독립운동의 화신 안중근, 대쪽 성품의 성재 이시영, 독립운동가 김익상, 서정시인 김소월, 청록파 시인 조지훈 등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다.



때문에 「역사인물로 만나는 남산공원」에서는 동상이나 시비의 인물들에 대한 유래나 성과를 소개하면서 오늘을 사는 후손들에게 역사적으로 반추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일제가 남산을 훼손하기 시작한 시기와 맞아 떨어지는 남산공원의 역사도 함께 정리하였다.

남산의 주작수를 마시면 머리가 좋은 아이를 낳는다는 속설이 전해온다. 「산책길에서 만나는 남산의 약수터」 항목에서는 부엉바위약수터와 장충단약수터를 비롯하여 그 밖의 크고 작은 약수터에 대해서 관련된 설화와 함께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제1장 중구의 터를 연 남산지역’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다가 보니 남산과 관련된 크고 작은 문화적 장소나 역사적 의미들이 많이 빠져버려 잎사귀를 모두 떨어뜨린 겨울의 민둥산처럼 자꾸 바닥이 보인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관심이 서울시 중구와 남산권에 모아진다면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 부끄러운 부분은 가려지리라 생각된다.



국가의 제사를 지낸 사당, 국사당터

영험한 산신을 모아 나라의 안녕을 기원



남산은 예로부터 초등학교들의 소풍명소로 인기가 높았다. 근현대에 관한 기억을 더듬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지금은 사라진 야외음악당 주변을 소풍의 주요 도착지로 삼았고, 고학년들은 남산의 정상에 있는 팔각정까지 계단을 밟고 올라가곤 했다. 아이들은 팔각정까지 걸어서 도착하고 나면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뛰어난 경관에 놀라 탄성을 질렀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로서는 현재 팔각정이 있는 곳에 국사당(國師堂)이 있었다는 사실과 국사당이 도대체 무엇을 하던 곳이었는지 몰랐던 것이 분명하다. 국사당터는 경관이 좋은 곳이면 어김없이 자리하고 있는 정자로만 기억될 뿐이었다.

조선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한양을 수도로 정한 다음해 국가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남산과 북악산에 산신(山神)을 모셔놓았다. 남산 정상 동쪽 넓은 터에 산신을 모신 사당이 있었는데 바로 이곳을 국사당, 혹은 목면신사(木覓神祠)라고도 불렀다. 특히, 국사당이라는 명칭은 태종 때 3신인 천신(天神), 산신(山神), 수신(水神)과 태조 이성계, 무학대사 등 여러 호신신장(護身神將)을 모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간단히 말해서 국사당은 산신을 모시고 국가의 제사를 지낸 장소라는 얘기다.

남산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다. 인경산(引慶山)과 열경산(列慶山)이라는 이

름이 산세나 모양에 따라 지어진 것이라면, 목멱산(木覓山)이라는 예전의 명칭은 국사당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1395년(태조 4) 12월에는 남산 산신을 목멱대왕(木覓大王)으로 봉작하였는데 남산이 목멱산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산 위에 목멱신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시 중구 예장동 8-1에 위치한 국사당터에는 현재 팔각정이 자리하고 있다. 팔각정 옆에는 1985년 10월 17일 중앙일보사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85타임캡슐을 매설하였는데 2485년에 개봉될 예정이다. 한편 팔각정으로 올라가는 정상의 길에는 우리나라 삼각점의 기준점인 진위도원점이 표시되어 있다.



국사당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팔각정

국사당에서는 조선 말 고종 때까지 매년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다가 폐지되었는데 그 후는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되었다. 이 후 국사당은 1925년 일제에 의해 헐려 현판과 사당 일부가 현재의 종로구 무악동 인왕산 서쪽 기슭 선바위 아래로 옮겨왔는데, 남산에 있을 때와 동일하게 지었기 때문에 옛날 모습과 같다고 한다. 현재 당의 구조를 보면 한옥으로 3칸의 맞배지붕이며 전면은 약 20m이고, 측면은 9m 정도이다.

국사당에 있는 무신도는 중요민속자료 제17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무신도 21점, 명두 7점으로 작자는 미상이다. 무신도 가운데 12점은 조선시대 말기에 같은 작자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모두 비단 바탕에 채색된 것인데 화원급(畫員級) 수준의 격조 높은 그림이다. 이들 무신도는 무속의 복합적이고 풍부한 신(神)관념을 구상화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나머지 무신도는 후대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왕산 국사당에 모셔져 있는 신상(神像)의 배열을 보면 정면 왼쪽부터 삼불제석·무학대사, 두 칸 건너 강씨부인·호구아씨·최영장군·별상님이 있으며, 좌측에는 나옹님·칠성님·용궁님·민중전이 있고, 우측에는 산신님·태조 이성계·단군님·신장님·곽곽님·창부씨의 화상이 모셔져 있다.



선비정신이 살아 숨쉬는 한옥마을

군사기지에서 전통문화 명소로 탈바꿈



중구 필동 2가 84-1에 위치한 남산골 한옥마을에는 일반인과 외국인들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문화행사가 심심찮게 벌어져 늘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남산골 한옥마을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기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일까?

조선시대에는 청계천 북쪽을 북촌, 그 남쪽은 남촌이라고 불렀다. 북촌에는 권세있는 양반들이 모여사는 데 반해 남촌에는 관직에 오르지 못한 궁핍한 양반들이 모여살았다. 특히, 남촌 중에서도 남산계곡에 사는 선비들을 '남산골 샌님', 혹은 '남산골 딸깍발이'라고 불렀다. 조선시대 때 평민들이 남산골 선비들을 샌님, 또는 생원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가난하면서도 오기만 남은 양반을 비아냥거릴 때 사용했다면, 딸깍발이라는 표현은 가난한 남산골 선비들이 신이 없어서 마른날에도 나막신을 신고 다녔는데 늘 '딸깍딸깍' 하는 소리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한옥마을에는 주말을 비롯하여 평일에도 사람들로 붐빈다. 아마도 많은 볼거리와 놀거리가 있으며, 더욱이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1990년에 시작된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의 일환으로 남산골 조성사업이 구체화되었는데 2만 4천여 평의 땅이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서울시지정 민속자료인 전통가옥 5개 동이 이전 복원되어 1998년에 일반에게 개방됨으로써 서울시의 문화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남산골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느낄 수 있는 일화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서울 남산골에는 과거에 실패한 가난한 선비들이 많이 모여 살았는데, 이서우(李瑞雨)라고 하는 선비도 몹시 가난하여 끼니를 잇기가 어려울 형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서우는 공부를 쉬지 않았으며 밤을 새우기가 일쑤였다고 한다. 어느 정월 대보름날 저녁, 이서우는 아침



한옥마을이 조성되기 전의
수도방위사령부 전경

에 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종일 굶어가면서 공부를 하자니 목소리가 도무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들창너머로부터 무엇인가가 방바닥으로 떨어졌다. 자세히 살펴보니 약식 한 그릇이 보자기에 싸여 있었다. 창 밖을 내다 보았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놀랍게도 약식 속에는 말굽 은[馬蹄銀] 한 덩어리가 들어 있었다. 그는 약식은 먹었으나 말굽 은은 쓰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였다.

결국 이서우는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였고, 숙종을 모시게 되었다. 그 후 어느 해 정월 대보름날 저녁이었다. 신하들과 보름날 잔치를 치르던 숙종은 문득 4년 전의 일을 떠올렸다. 암행에 나섰다가 남산골의 가난한 한 선비가 측은하여 몰래 약식을 건넸는데 그때의 선비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하였다. 이에 이서우는 그 선비가 자신임을 밝혔는데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말굽 은이 전혀 닳지도 않은 것을 본 숙종은 이서우를 크게 칭찬하며 다시 은을 내려주고 벼슬을 더욱 높여 주었다고 한다.

한편, 조선시대 때 한옥마을 자리에는 도성을 지키던 방위군인 7패(牌) 중 하2패가 자리하고 있었다. 당시 순라군들이 잠복 근무하던 요긴한 곳을 복처(伏處)라고 했는데 7패의 복처 중에 다섯 군데가 남산과 그 주변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왜장 마쓰다 나가모리(増田長盛)과 약 1,500명의 왜군이 한옥마을 일대에 주둔하면서 성을 쌓아 이 근처를 왜장터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1년만에 왜군이 물러가고 폐허가 되어버린 서울에 처음 들어온 유성룡(柳成龍)은 『징비록(懲毖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한옥마을 전경. 오른쪽 위에서부터 부마도위 박영효 기옥, 순정효황후 윤씨 친가, 도편수 이승업 기옥



“서울에 남은 백성이라고는 백 명에 하나도 못되며 그나마 기근과 피로로 귀신 모습이다. 날씨는 더운데 사람과 말의 시체가 곳곳에 쓰러져 악취로 코를 막고 지나야만 하였다. 공사(公私)의 집이 모두 타버렸는데 남대문에서 동쪽 일대, 즉 남산 밑에 왜적이 진을 쳤던 곳만 남았다.”

일제시대에는 이곳 한옥마을에 일본군이 헌병대사령부를 설치했었으며 최근까지는 수도방위사령부(1984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수도경비사령부로 불렸다)가 이곳에 들어서 있었고, 인근에는 국가안전기획부가 있었다.

남산골 한옥마을 주변에는 산책로를 따라 연못과 정자를 지어 운치를 더하고 있으며, 정문 입구에는 야외공연장을 마련하여 연극, 놀이, 춤 등이 공연되어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민속자료인 순정효황후 윤씨 친가가(純貞孝鳳皇后尹氏親家), 도편수 이승업 가옥(都邊首李承業家屋),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駙馬都尉朴泳孝家屋),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海豐府院君尹澤榮齋室), 오위장 김춘영 가옥(五衛將金春榮家屋) 등 한옥 5개 동이 이전, 복원되어 조선 후기 서울 지역 사대부 집안의 가옥 양식과 생활방식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순정효황후 윤씨 친가는 서울시 민속자료 제23호로 조선 27대 순종의 황비인 순정효황후 윤씨가 13살 나이로 황태자계비에 책봉될 때까지 살았던 집으로 윤씨가라고도 한다. 순정효황후는 친일파들이 순종에게 한일합방조약에 날인할 것을 강요하자 치마 속에 옥새를 감추고 내놓지 않았으나 숙부인 윤택영에게 강제로 빼앗긴 일화를 남긴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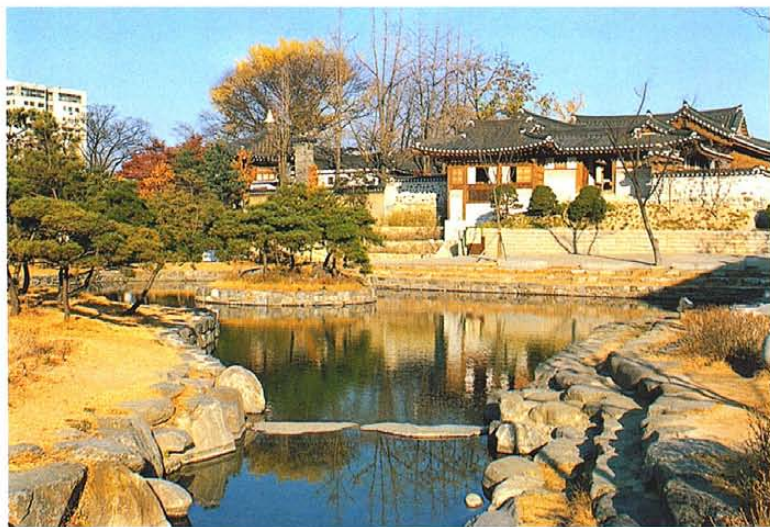
이 집은 원래 191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종로구 옥인동 47-133번지에 있었는데 너무 낡아 옮기지 못하고 건축양식대로 본떠 이 곳에 복원하였다. 집의 평면은 ㄷ자형 몸채 앞쪽에 사랑채를 두어 전체평면은 ㅁ자형이다. 몸채와 사랑채쪽은 지붕에 단차(段差異)를 두었으며, 사랑채 대청부분은 바깥에서 볼 때 중층(重層)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것은 지형을 살린 구성이다.

장대석기단, 방형초석, 초익공, 운공을 사용한 점, 후면과 측면 툇마루 바깥쪽으로 설치한 정자살창, 사고석과 전돌을 사용한 화방벽(火防壁)이 설치된 점 등에서 최상류층의 저택임을 알 수 있다.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齋室)은 서울시 민속자료 제24호로 제기동 224번지에 있던 것을 이전 복원하였다. 순종의 장인 해풍부원군 윤택영이 그의 딸 윤황후가 동궁계비에 책봉되어 창덕궁에 들어갈 때 지은 집이다. 이 가옥의 뒤에 있는 사당

은 원래 임금이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서 임금이 제사하러 올 때 불편을 덜기 위해 경운궁을 헐고 남은 부재를 이용하여 재실로 지은 것이라 한다.

이 사당은 1960년 4·19 때 소실되었으나 한옥마을로 이전하면서 복원되었다. 건물의 원래 평면은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보이는 으뜸 원(元)자 모양으로 제일 위는 사당을 배치하고 다음에 본채를 두었으며, 본채 앞에는 대문을 두고 그 옆에 행랑채를 두었다. 사당은 본채보다 두 단 높은 곳에 있는데 좌우퇴를 둔 단칸집이다. 몸채는 평면이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 순으로 배열되었으며, 기타 부속되는 방들은 대청을 중앙에 두고 2칸 거리를 두어 나자 모양으로 서로 대칭되게 앉아있다.



한옥마을 전통정원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은 서울시 민속자료 제18호로 서울 8대 가의 하나로 전해진다. 조선 25대 철종의 후궁 숙의 범씨 소생인 영혜옹주의 부군 박영효(1861~1939)가 살던 집이다.

이 가옥은 당초 안채, 사랑채, 별당채, 대문간채, 행랑채로 이루어졌으나 안채 외에는 모두 헐리어 없던 것을 사랑채와 별당채만 옮기고, 안채는 새로 복원하였다. 안채는 ㄱ자형 몸체에 一자형 행랑간이 붙어 ㄷ자형으로 되어 있으며 부엌과 안방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개성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형으로 서울의 주택에서는 보기 드문 형태이다.

퇴간 앞의 창호는 모두 유리 분합문을 달았으나 이는 후대에 고친 것으로 보이며, 덧문은 띠살문이고 쌍창은 아(亞)자 살창이다. 이 집은 본래 종로구 관훈동 30-1에 있었으나 한옥마을이 조성되면서 이전하였다. 현재 박영효 가옥 안채 마당에서는 미리 예약을 하면 전통혼례를 치를 수 있다.

오위장 김춘영 가옥은 원래 종로구 삼청동 125-1에 있던 것을 이전 복원하였으며, 서울시 민속자료 제8호이다. 조선 말기 오위장을 지낸 김춘영이 1890년대에 지은 집으로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의 전형적인 집의 형태인 ㄷ



한옥마을에서 열린 중구구민의 날 행사

자가 아닌 ㄴ자 모양이 되도록 배치하였다.

안채는 중앙에 대청이 2칸 크기로 마련되고 그 서쪽에 역시 2칸 크기의 안방과 건넌방이 있으며 안방의 남쪽에는 부엌이 있고 부엌 남쪽에는 광이 있으며, 광 남쪽에는 문간방이 있다. 판대공을 사용하고 홀치마로 꾸미는 등 전체적으로 평민 주택의 양식을 보이고 있으나 안방의 뒷쪽 벽측 길가에 면한 부분에 사고석과 전돌을 사용하여 화방벽을 쌓아 집의 격조를 더 높인 것이 특이할 만하다.

도판수 이승업 가옥은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에 의해 경복궁이 중건될 때 목수의 우두머리였던 이승업이 1860년대에 지은 집이다. 대문간채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헐어서 없고, 안채와 사랑채만 남아 있어서 전체적인 모습을 짐작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안채는 경기도에서 자주 보는 곱은자집 형태로 평면은 정면 4칸, 측면은 5칸인데 간살이는 중앙에 좌우로 긴 2칸 크기의 대청을 두고 그 서쪽 2칸은 안방을 배치하고 있다. 안방 앞에는 남북으로 길게 부엌이 놓여지고 대청 동쪽에는 건넌방이 있는데 앞뒤를 갈라 2개의 방으로 하였다.

또한 안방의 뒤에는 1칸 크기의 뒷방이 있다. 안방과 부엌 및 뒷방에는 후퇴가

있으며 방 중앙에 기둥을 두어 옛 양식의 일고주오량(一高柱五樑) 구조로 하였다. 안채에서 부엌과 안방쪽은 반오량(半五樑)으로 꾸며 전후면의 지붕 길이를 다르게 꾸민 특색있는 구조다.

이 가옥은 서울시 민속자료 제20호로 원래 중구 삼각동 36-2에 있던 것을 이전 복원하였으며, 현재는 향긋한 전통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밖에도 한옥마을에는 전통공예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기능보유자들의 작품과 관광기념품 등을 항시 전시 및 보급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는 남산골 선비들의 별칭인 딸깍발이에 대한 수필을 남겼고, 우리나라 국어사에 큰 획을 그은 일석 이희승(李熙昇)의 기념비도 세워져 있으며, 한옥마을 입구에 있는 현재의 중앙석유주유소 앞 보도 위는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이었던 유성룡의 집터로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장소다.

특히 최근에는 이곳 한옥마을 윗편에 있는 필동 노인정터에서 풍양 조씨 노기와 녹옹 조현명(鹿翁 趙顯命)의 한시(漢詩)가 새롭게 발견되었다. 이 금석문 명문은 학문적으로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정도 600년과 타임캡슐광장

과거와 미래를 품고 있는 약속의 땅



1994년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수도로 정하고 개성에서 천도한 지 600년이 된 해다. 그렇다면 서울정도 1000년이 되는 2394년 서울의 모습은 어떠한가. 현재의 우리가 400년 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양태를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후세 사람들은 조상이 살아온 모습을 소상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394년 미래의 사람들은 남산골 한옥마을 윗편 언덕에 있는 타임캡슐을 개봉하면 되기 때문이다. 결국 1,500평 규모의 타임캡슐광장은 조상과 후손이 만나는 약속의 땅인 셈이다.

조선이 1394년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뒤에 왕자의 난과 자연계의 불길한 이변이 잇따르자 1399년 개성으로 한때 수도를 옮겼다가 태종 3년인 1405년 10월 11일에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는데, 한양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600여 년 간 수도로서의 자리를 지켜 왔다.

도읍의 본격적인 건설사업은 태조 3년인 1394년 12월에 정도전에게 새 도시건설을 착공하게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전해오는 도읍건설의 방식에 따라 왼쪽에는 종묘를 두고 오른쪽에 사직을 모시는 좌묘 우사의 원칙과 사직단을 비롯한 단 셋과 종묘 하나를 둔다는 삼단 일묘의 원칙을 지켜 도시계획이 진행되었다.

수도는 한 나라의 최고통치자와 통치기관이 소재하면서 전 국토와 국민을 다스리는 곳으로서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중심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예



타임캡슐광장 전경

로부터 수도는 지리적 관점에서 볼 때 물이 풍부하고 중앙에 위치하며 방어에 유리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상식이다.

수도 서울은 지리적 자연환경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조건을 잘 갖춘 땅이다. 서울은 한강이 동서로 흐르고 있어 수도의 젖줄 구실을 함으로써 오랜 옛날부터 선사시대인들의 생활터전과 문화의 발상지가 되었다.

한강은 그 풍부한 수량으로 서울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인근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제공하여 취락형성의 기초를 이룰 수 있게 하였다. 인류문명의 발상은 강의 이용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한강은 용수 조건, 생산을 위한 경작지 제공, 교통의 편리, 외적의 방어 등에 매우 효과적이어서 일찍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무대로서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서울을 둘러싼 산세는 외4산과 내4산으로 이루어져 이들 산을 이용해 성곽을 쌓을 수 있는 천연적인 입지조건을 갖추었다. 서울은 밖으로는 북쪽에 북한산(836m), 남쪽에 관악산(632m), 동쪽에 용마산(348m), 서쪽에 덕양산(행주산, 125m)의 외4산이 둘러 있고, 안으로는 북쪽의 북악산(342m), 남쪽의 목멱산(남산, 262m), 동쪽의 낙산(125m), 서쪽의 인왕산(338m)의 내4산으로 둘러싸여 있



타임캡슐을 덮고 있는 동심원 판석(위)
타임캡슐광장의 설립 취지와
수장품을 설명하고 있는
전설벽면(아래)

어 이들 산을 따라 성곽이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서울은 풍수지리적으로도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명당이며, 도성의 조건으로는 더할 나위없는 장소이다. 아울러 서울은 한반도 남북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민족이 세계의 중심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은 세계적 중심으로 서울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1994년 11월 2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필동에서는 역사적인 행사가 진행되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 내외를 비롯 각계 인사와 1,000여 명의 시민이 서울정도 1000년을 맞는 2394년까지 400년의 시간여행을 거친 후 개봉될 타임캡슐의 매설식을 지켜보았던 것이다.

지하 15m 깊이에 매장된 수장품 600점을 유형별로 보면 삶의 양식을 나타내는 71점을 비롯, 제도 205점, 환경 70점, 산물 78점, 가치 52점, 행태 60점, 삶의 표현 64점 등이다. 수장품들은 실물, 축소모형, 사진, CD, LD 등의 형태로 특수

보존처리를 마치고 수장되었다.

타임캡슐광장은 남산 북사면 줄기의 끝부분 대지에 전체적으로 달의 분화구를 본뜬 모습으로 조성되었다. 광장에는 수장품이 문헌 원형광장(214평)을 중심으로 전망대, 전실(사방형의 지하공간), 은행나무를 삼각구도로 하고 주변에 광장진입로, 기둥, 전망대 등이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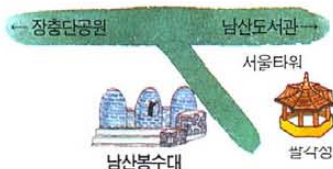
원형광장으로 통하는 곡선진입로는 지하 6m까지 완만한 경사의 통로로 광장과 바깥을 이어주는 육면체 형태의 전실과 만난다. 전실 벽면에는 광장의 설립취지, 타임캡슐에 대한 설명과 내장물에 대한 의미 등을 표기해 놓았다.

원형광장 가운데는 동심원의 판석이 놓여 있는데 판석 위에는 영어, 일어 등 세계 각국의 언어로 타임캡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으며 태극 마크가 여러개 새겨져 있다. 광장진입로 왼쪽에는 전망대를 설치, 관람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타임캡슐광장, 남산, 서울시내 고궁들을 비롯하여 멀리 북한산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조성하였다.



8도의 소식집결지, 남산봉수대

변경의 급보를 알리던 근대통신의 뿌리



봉수(烽燧)는 국가의 중요한 통신수단으로서 변방의 긴급한 사정을 중앙이나 변경의 기지에 알리는 동시에 해당 지방의 주민들에게 알려져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목적으로 마련한 군사통신제도이다.

조선시대 때 봉수는 밤에는 불, 낮에는 연기로 신호를 보냈으며, 평상시에는 하나, 적이 나타나면 둘, 경계에 접근하면 셋, 경계를 침범하면 넷, 경계에서 적과 아군이 접전 중이면 다섯의 봉화를 올렸다. 봉수로는 크게 다섯 개의 경로를 통해 목멱산 봉수대(지금의 남산봉수대)로 집결하였다.

남산봉수대는 조선 태조 때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후 설치하여 갑오개혁 다음 해인 1895년(고종 32) 5월 9일 사용이 중지될 때까지 근 500년간 사용되었다. 봉수대의 명칭은 남산의 옛이름을 따서 목멱산 봉수라 불렀으며 서울에 있다고 하여 경봉수라고도 불렀다.

서울시는 남산제모습찾기운동의 일환으로 남산봉수대 1개를 고증작업을 통해 복원하였는데 전체면적 106.14㎡에 공사비 3억 1,600만원을 들여 1992년에 착공하여 1993년 7월 16일에 준공하였다.

1994년 1월 1일 중구청 주관으로 복원된 봉수대에서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기원 남산봉화식'을 갖고 전통적인 방법에 따른 봉화를 올렸다. 연료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연기가 많이 나는 싸리나무와 쇠통 등을 사용하

였다.

봉수의 기원은 중국 주대(周代)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漢)·당(唐)의 발달된 제도를 참작하여 적정과 산세, 지세, 천후, 밀림 등의 실정에 맞게 독창적 체제를 갖추었다. 초기 국가시대에 이미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삼국시대에는 실전에 크게 활용되었으며, 왜구에 대비하여 연변봉수대(沿邊烽燧臺)가 설치되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봉수제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식되어 운영의 방법과 요령을 전국에 시달하기도 하였다. 1123년(인종 1) 고려에 사신으로 왔던 송나라 사신 서경(徐兢)은 그의 고려 견문록인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밤이 되면 산마루에 봉화를 밝히고 여러 산들이 차례로 서로 호응하여 왕성(王城: 송도)에까지 가는데 그 일이 이 산(흑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흑산도에서 개성까지 봉수를 올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조의 봉수제를 답습하여 정착시키려고 하였는데 봉수제가 본격적으로 확립된 것은 조선 세종대에 이르러서였다. 이 당시에는 해안으로 침입하는 왜구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으므로 무엇보다도 신속한 상황전달이 중요한 문제였다.

한편, 세종대 이후에는 북방 여진의 침탈이 심해지면서 그 필요성이 나타나자 북쪽 국경지대에도 봉수제를 정비하였다. 그래서 여진의 침탈이 심한 지역부터, 그리고 전략상 방비가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연대의 축조와 함께 목책(木柵), 군사시설 등을 확충하였다.

연대축조의 거리는 연변(沿邊)봉수의 경우에는 10리나 15리 간격으로 하고 중국제도를 참작하여 산 꼭대기의 정상보다는 산허리에 설치하여 산을 오르내리는 데 가급적 힘이 덜 들고 교대에 있어서도 시간이 단축되도록 하였다. 총 706개의 봉수대는 북방 두만강 연안과 압록강 연안, 남방의 경상·전라 양 해안 및 제주도 해안에 조밀하게 배치, 왜적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중 여진 대비 봉수는 1·3거로(炬路)로 280개, 여진 및 중국 대비는 4거로로 106개, 왜구 대비는 2·5거로 및 제주도거로 320개였다.

봉수는 산악이 많은 우리 나라에 적합하여 먼 거리 통신수단으로서는 어느 통신수단보다 신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진(경흥, 경원, 은성, 종성, 회령, 부령)이 어느 곳인지 분명치 않으나 이곳 초경에서 서울 아차산까지는 약 6시간, 우암(경흥, 서수라)에서 아차산까지는 약 12시간이면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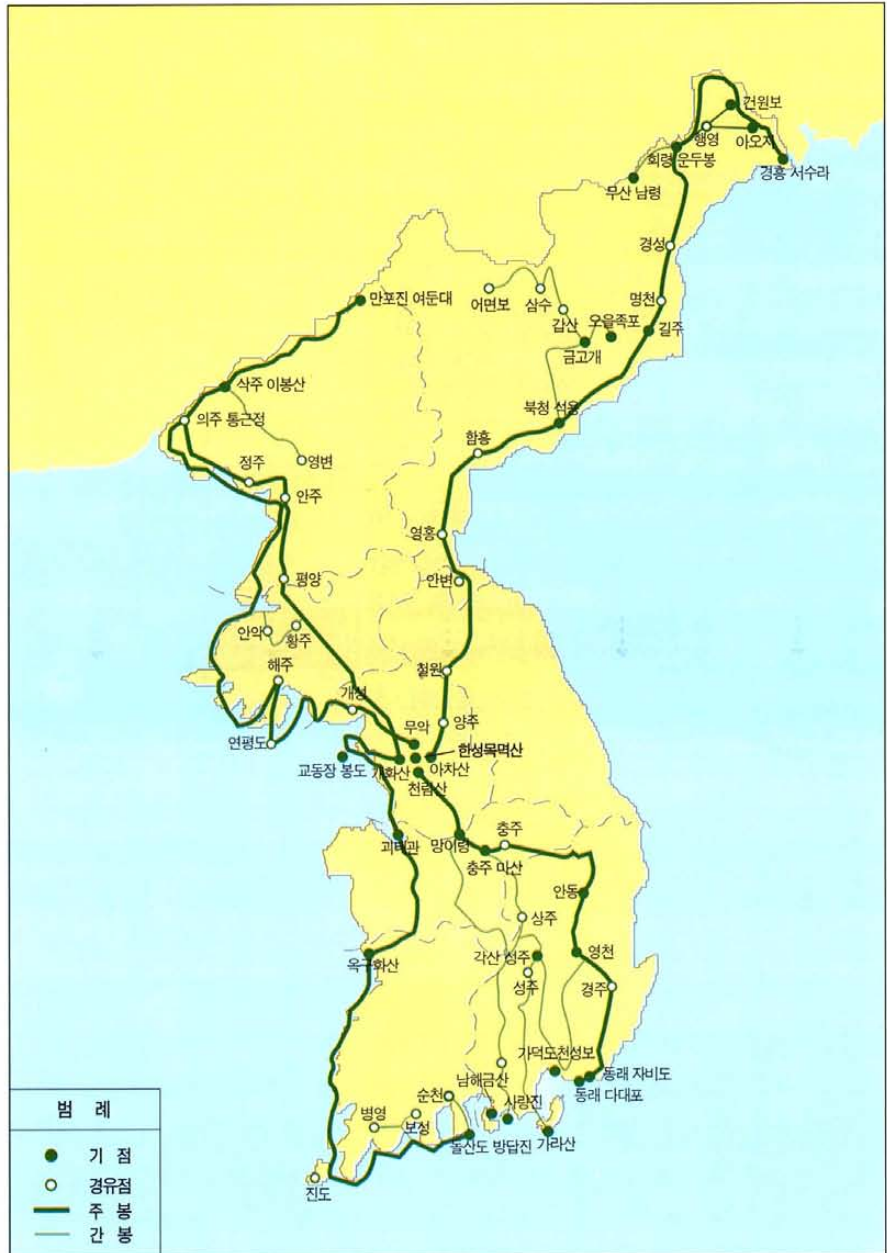
복원된 남산봉수대

봉수제도는 파발제와 함께 근간통신망으로서 운영되었으며, 인조~숙종대 간에 개선책이 강구되고 1895년(고종 32)에 이르러 근대통신제(전신 및 전화)가 설치됨으로서 폐지되었다.

우리나라의 봉수제도는 다른 나라보다도 발달된 체제를 갖추고 있었으며, 비록 민간통신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변경의 급보를 관민이 함께 공유하고 국토보존과 민족문화를 유지시키는데 큰 구실을 하였다. 특히, 불과 연기의 5단위 전보 방식은 근대통신(디지털 광전송법)의 뿌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역사적 의의가 크다.

한편 봉수대는 폐쇄된 이후에 일제 때 중요한 용도로 사용된 바가 있다. 1919년 3·1 독립운동의 봉기신호로써 이용되었는데 봉수는 일제 때 독립운동의 신호탄으로써 기능을 하였다.

조선시대 봉수망



전국 직봉경로(조선시대)





역사인물로 만나는 남산공원

현대인의 휴식처 남산공원의 역사와 숨결

김유신장군동상



김유신장군동상

남산공원에 가면 역사적 인물들을 동상이나 시비(詩碑)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선현은 말이 없되 후손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준엄한 꾸짖음으로 민족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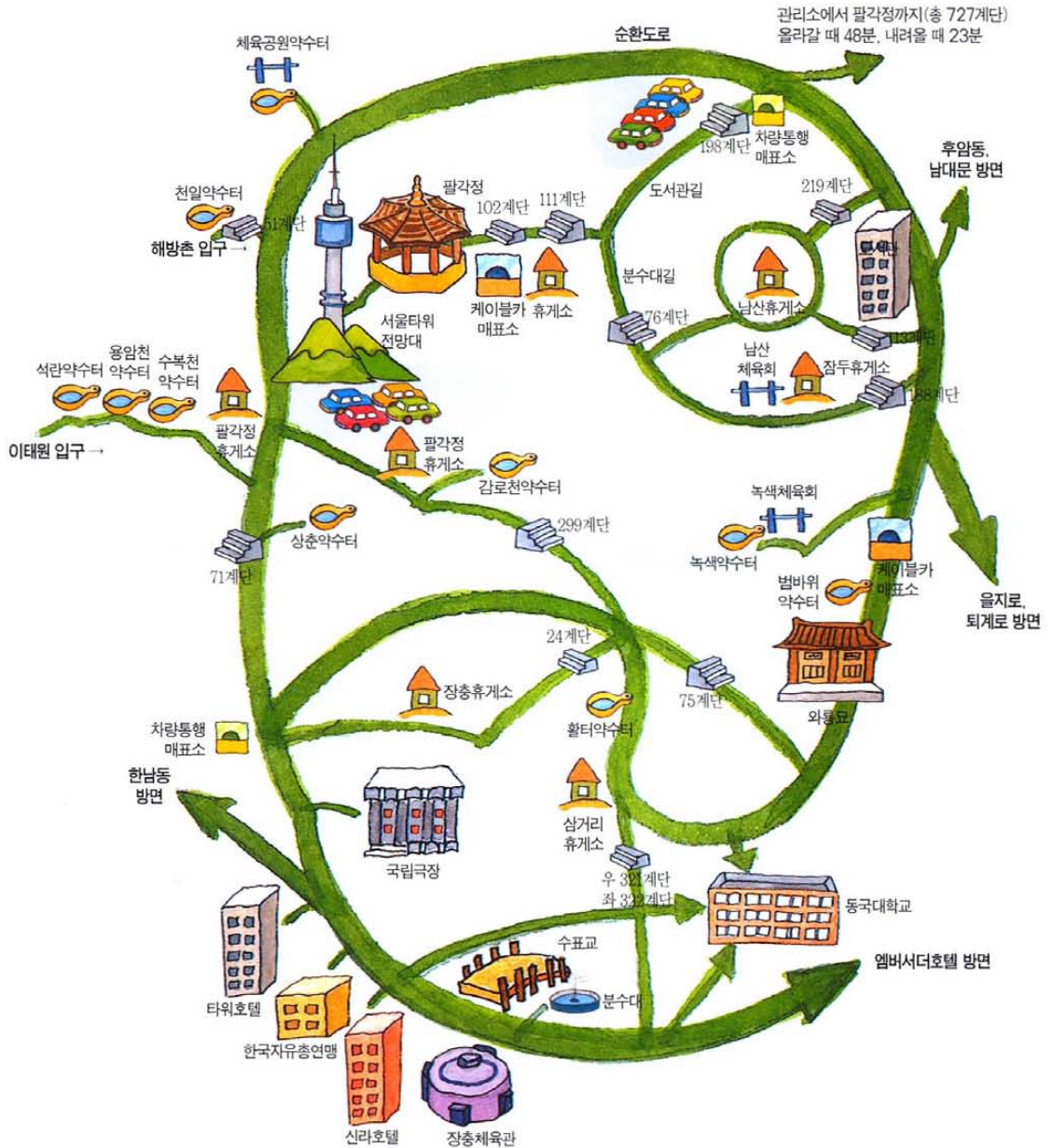
남산공원 백범광장을 지나 계단을 내려가면 만날 수 있는 신라의 명장 김유신(金庾信, 595~673)장군동상은 1969년 9월 23일에 건립되었다.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건립한 이 동상은 높이가 4m로 조형

미가 뛰어나다. 오른손에 칼을 빼들고 말을 타고 달리는 역동적인 모습에서 신라 화랑의 기개와 기상을 엿볼 수 있다.

김유신장군은 김춘추(金春秋)와 더불어 신라의 삼국통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증조부는 532년(법흥왕 19) 신라에 투항한 금관가야의 구해왕이며, 할아버지는 무력(武力), 아버지는 서현(舒玄)이다.

김유신장군은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 김춘추를 왕으로 추대하였으며, 660년(무열왕 7)에는 상대등(上大等)이 되어 당나라 소정방(蘇定方)과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663년(문무왕 3)에는 백제부흥군을 토벌하

남산공원 안내도



고 668년(문무왕 8)에는 당과 신라 연합군의 대총관(大總管)이 되었고, 고구려를 정벌한 후 태대각간(太太角干)으로 승진하였으며, 676년(문무왕 16)에는 당나라 군사마저도 축출하여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다. 흥덕왕 때 흥무대왕(興武大王)에 추존되었다.

계속되는 원정 속에서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 앞을 지나칠 때 뒤 한번 돌아보지 않았다는 일화, 혹독한 추위 속에서 행군에 지친 병사들 앞을 어깨를 드러내놓고 앞장섰다는 일화, 아들 원술이 당나라군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도망해오자 참수형에 처하라고 왕에게 건의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다는 일화들을 통해 김유신은 스스로를 엄격히 단속하고 모범을 보인 장군으로 기억되고 있다.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오늘날에 숭선수범이라는 미덕을 남긴 정치인이자 군인으로 기억될 만하다.

퇴계 이황선생동상



이황선생동상

시립남산도서관 정문 양쪽에는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선생동상과 다산 정약용선생동상이 세워져 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는 학문의 중요성과 지식인의 역할을 되새기게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퇴계 이황선생의 동상은 1970년 10월 20일에 건립되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이황은 27세였던 1527년(중종 22)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34세 때인 1534년(중종 29)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가 되면서 관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이황은 여러 벼슬을 거쳐 1566년(명종 21)에 공조판서, 예조판서를 지내고 1568년(선조 1)에 우찬성을 거쳐 홍문관·예문관대제학을 지내고 고향에 은퇴하여 학문에 전념하였다. 특히 이황은 주자학을 집대성한 대유학자로 성(誠)을 기본으로 일생 동안 경(敬)을 실천하고 주자의 이기이

원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이기호발설을 사상의 핵심으로 하여 이(理)가 발(發)하여 기(氣)가 이(理)에 다다른 것이 4단(端)이며 기가 발하여 이가 이것을 타는[乘] 것이 7정(情)이라고 하였다. 이 학풍은 뒤에 이원론에 반박하고 나선 기호학파에 대하여 영남학파를 이루었는데 동서당쟁은 이 두 학파의 대립과도 관련이 깊었다.

풍기군수로 있을 때 그는 주세붕(周世鵬)이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에 편액, 서적, 학전을 하사할 것을 감사를 통해 조정에 청원하여 실현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조선조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紹修書院)이다. 그는 또 도산서원(陶山書院)을 창설하여 후진양성과 학문연구에 전심하였으며, 시문은 물론 글씨에도 뛰어났다. 겸허한 성격의 대학자로서 중종·명종·선조의 지극한 존경을 받았다.

이황의 학문은 한국의 역사를 통하여 영남을 배경으로 한 주리적인 퇴계학과를 형성하였으며 도쿠가와(德川) 이래로 일본 유학의 기몬학과 및 구마모토(熊本)학파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개화기 중국의 사상계에도 큰 영향을 미쳐 그의 사상은 동양 3국에 커다란 자취를 남겼다.

다산 정약용선생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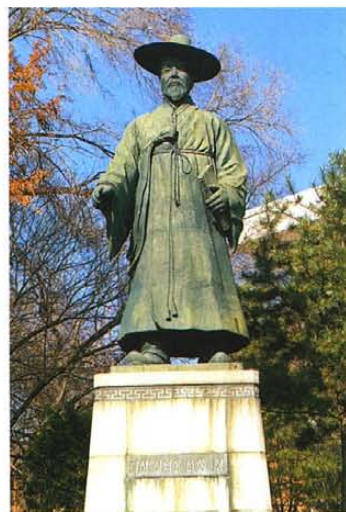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선생의 동상은 1970년 10월 20일에 건립되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인 정약용선생의 일생은 대체로 3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제1기는 벼슬살이를 하던 득의의 시절이요, 제2기는 귀양살이를 하던 환난의 시절, 그리고 제3기는 향리로 돌아와 유유자적하던 시절이다.

정약용의 호는 다산(茶山) 또는 여유당(與猶堂)으로 어릴 때 아버지에게 경사를 배웠으며 16세 때 서울에서 이가환(李家煥)·이승훈(李承薰) 등으로부터 이익(李瀾)의 학문에 접하였다. 23세 때는 마재와 서울을 잇는 두미협 뱃길에서 이벽을 통하여 서양서적을 얻어 읽기도 하였다.

1789년(정조 13) 문과에 급제한 다음 여러 벼슬을 거치면서도 천주교인이라 하여 공서파의 탄핵으로 유배길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는 정조의 충애를 한 몸에 받았으며 암행어사, 참의, 좌우부승지, 곡산부사, 형조참의 등을 거쳤다. 정조의 지극한 충애는 도리어 화를 자초하기도 하였는데 정조의 죽음과 때를 같이 하여 정약용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1801년(순조 1)부터 그는 경상북도 포항 장기, 전라남도 강진, 다산초당에 이르는 19년간의 긴 유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정약용의 오랜 유배생활은 학문적인 체계의 완성과 방대한 분량의 저술을 남기는 결과를 가



정약용선생동상

저왔다.

초기 정약용의 유학경전에 대한 연구로는 『내강중용강의(內降中庸講義)』, 『희정당대학강의(熙政堂大學講義)』 등이 있으며, 기술적 업적으로는 1789년의 배다리 준공, 1793년 화성의 설계를 손꼽을 수 있다. 그의 저술로는 『마과회통(麻科會通)』, 『주역사전(周易四箋)』, 『목민심서(牧民心書)』 등이 있고, 1818년(순조 18) 이태순의 상소로 귀양이 풀리자 고향으로 돌아와서 『흠흠신서(欽欽新書)』와 『상서고훈(尙書古訓)』 등을 저술하여 그의 6경 4서(六經四書)와 1표 2서(一表二書)를 완결지었다.

백범광장과 김구선생동상



김구선생동상

과거 남산 야외음악당이었던 백범광장은 일제 강점 때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일생을 바친 백범 김구(白凡 金九, 1876~1949)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1968년 8월 23일에 개설되었다. 이 광장에는 원래 이승만(李承晩)대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으나 4·19혁명 이후에 철거되고 백범 선생의 동상이 세워졌다.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인 김구선생은 본명이 창수(昌洙)이며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7대 독자였다. 해주의 동학농민혁명을 지휘하다가 일본군에 쫓겨 1895년에 만주로 피신 의병단에 입단했다. 을미사변으로 충격을 받은 그는 귀향을 결심하였고 1896년 2월 안악 치하포에서 일본군 중위 쓰치다(土田壤亮)를 맨손으로 처단하여 21세의 의혈청년으로 국모의 원한을 푸는 첫 거사를 결행하였다.

1896년 5월 집에서 은신 중 체포되어 해주감옥에 수감되었고 이듬해 사형이 확정됐다. 사형집행 직전 고종황제의 특사로 집행이 중지되었으나 석방이 되지 않아 이듬해 봄에 탈옥하였다.

1910년에는 신민회에 참가했으며,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장, 내무총장, 국무총리대리, 국무령을 역임하였고 1928년에는 한국독립당을 조직, 당수가 되어 항일운동을 지휘했다. 1944년에는 임시정부 주석에 선임, 1945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8·15 광복을 맞아 귀국하여 반탁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48년 남북협상을 제창하였는데 그후 정부수립에 참가하지 않고 중간파의 거두로 있다가 육군 소위



안중근의사기념관



안중근의사의 글씨를 새긴 바위

안두희에게 암살당하였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이 추서되었다. 저서로는 『백범일지(白凡逸志)』를 남겼다.

안중근의사동상과 기념관

중구 남대문로 5가 471번지에 위치한 남산광장, 혹은 안의사광장은 일제 때는 조선신궁으로 오르는 길목으로 경성신사가 있던 곳이다. 안중근(安重根, 1879~1910)의사의 동상은 1959년 5월 승의여고 앞에 건립되었는데 1967년 3월 26일에 이곳 남산광장으로 옮겼다. 또한 이곳에는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정신과 행적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국민의 성금을 모아 1970년 10월 안중근의사 기념관이 건립되었다. 기념관에는 안중근의사의 사진과 유묵 등 소장품 114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영전이 마련되어 참배도 가능하다.

1909년 10월 하얼빈역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함으로써 겨레의 얼을 세계에 빛낸 안중근의사의 동상 대석에는 “조국이 기울어 갈 때 정기를 세우신 이여/ 역사의 파도 위에 정기를 세우신 이여/ 해 달도 길을 멈추고 다시 굽어 보도다”라는 찬시가 새겨져 있다. 또한 어록비가 건립되어 있으며 주위에는 분수대, 꽃시계, 벤치 등이 조성되어 있고 각종 행사가 개최되어 청소년의 산 교육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안중근의사는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한문을 수학하고 말타기, 활쏘기를 익혀 문무를 겸했다. 1895년에 천주교에 입교하였으며,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망명을 결심하게 되고 이후 삼흥학교를 설립하였으며 남포의 돈의학교를 인수하여 경영에 전념하다가 이윽고 북간도로 망명하였다. 안의사는 1908년 6월에 특파독립대장 겸 아령지구군사령관이 되어 함경북도 홍의동의 일본군을 공격하였고, 경흥의 일본군 경찰대를 격파하였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오 히로부미에게 권총을 발사 3발을 명중시켜 죽게 하였고,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 궁내대신 비서관 모리, 만철이사 다나가 등에게 중상을 입히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만주의 여순감옥형장에서 순국하였다. 안중근의사가 재감 중에 집필한 『동양평화론』은 투철한 역사의식으로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였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중장이 수여되었다.

안중근의사상 옆에는 자연보호헌장비가 있는데, 1980년 5월 13일 세종라이온스클럽에서는 자연보호헌장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여 국민 모두가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이룩하여 후손 대대로 물려주자는 내용의 비를 이곳에 건립하였다.

성재 이시영선생동상



이시영선생동상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 초대 부통령이었던 성재 이시영(省齋 李始榮, 1869~1953)선생의 동상은 1986년 4월 17일 백범광장 내에 건립되었다. 그의 동상은 국민의 정신적 지주였던 풍모에 걸맞게 지팡이를 들고 좌석에 앉아 있는 형상이며 행동하는 지식인의 대쪽 인상을 풍긴다.

이시영선생은 1885년(고종 22)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다음 10여 년간 형조좌랑, 홍문관교리, 승정원부승지, 궁내부수석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의 강제체결을 계기로 관직에서 물러났으나 재차 중용되어 평안남도 관찰사, 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한편으로는 안창호, 전덕기, 이동녕, 이회영 등과 함께 비밀결사 신민회(新民會)를 조직하여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만주로 망명한 이시영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 독립군

을 양성했으며, 1933년 중반 김구, 이동녕, 송병조, 차이석, 조완구, 김봉준 등과 함께 임시정부 활동을 전개하고 국무위원 겸 법무위원이 되어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임시정부 국무위원 자격으로 귀국하여 성균관총재, 대중교활동에 진력하기도 했다. 1948년 7월 20일 제헌국회에서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이승만의 전횡에 반대하여 1951년 5월 9일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것과 동시에 국정혼란과 사회부패상에 통감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1953년 8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김익상의사 의거터



김익상의사

소파길을 따라 남산방향으로 오르다 보면 드라마센터가 있는 서울예술대학이 나오고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의 국립영화제작소 맞은편에 서울애니메이션센터가 나타난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정문 오른쪽 기둥 옆에는 표석이 하나 있는데 그 표석에는 이렇게 써어 있다. “김익상의사 의거터”.

김익상(金益相, 1895~1925)은 경기도 고양 출신으로 평양의 숭실학교를 졸업한 뒤 기독교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다가 서울로 와서 광성연초공사의 기계감독으로 근무하였다. 1920년 만주 봉천으로 전근된 것을 계기로 비행사가 되기 위해 중국 광둥으로 갔다. 그러나 중국이 내전에 휩싸여 비행학교가 폐교되어 상해로 돌아왔으며 이곳에서 전차회사의 전차감독이 되어 잠시 일하다가 항일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의열단에 입단하였다.

1921년 의열단 단장 김원봉(金元鳳)으로부터 총독암살의 밀령을 받은 김익상은 9월 12일 전기수리공으로 변장하고 당시 남산에 주둔하고 있던 총독부 건물에 잠입하여 2층 비서과를 총독실로 오인, 폭탄을 던졌고 다시 회계과장실에도 던졌다. 비서실에 던진 폭탄은 불발이었지만 회계과장실에 던진 폭탄은 폭발하였다. 김익상은 혼란한 틈을 타서 총독부 건물을 빠져나와 평양을 거쳐 중국으로 유유히 탈출하였다.

이후 1922년 일본의 육군대장 다나카가 상해에 도착한다는 정보를 의열단이 입수하고 1차 저격은 오성륜



(吳成崙)이 맡고 2차 저격은 김익상이 맡았다. 그러나 오성륜이 권총을 발사한 순간 신혼여행 중인 영국여인이 마침 다나카의 앞을 막아서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고, 달아나는 다나카를 향해 김익상이 폭탄을 던졌으나 역시 불발이 되고 말았다. 현장에서 달아나기 시작한 김익상은 즉사한 영국여인의 남편이 끝까지 쫓아와 쏜 권총에 맞고 붙잡혔다.

체포된 김익상은 사형이 언도되었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누차 감형되어 출옥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뒤를 쫓던 일본형사에게 암살당하였다. 1962년에는 김익상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소월시비



소월시비

남산도서관 동쪽 양지바른 곳에는 서정시인 김소월(金素月, 1902~1934)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 1968년 3월 13일에 건립된 이 시비에는 다음과 같은 「산유화」 시의 전문이 새겨져 있다.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
서 우는 적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
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본명이 정식(廷湜)인 김소월 시인은 평안북도 구성 출신으로 사립인 남산학교를 거쳐 오산학교 중학부에 다니던 중 3·1운동 직후 학교가 한때 폐교되자 배재고등보통학교에 편입, 졸업하였다. 당시 오산학교의 교장은 조만식 선생이었으며 소월은 서춘, 이돈화, 김억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웠다.

특히, 김소월은 그의 시적 재능을 인정한 김억을 만난 것이 시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1923년 일본 동경상과대학 전문부에 입학하였으나 9월 관동대지진으로 중퇴하고 귀국하였다. 귀국 후 광산업, 동아일보지국 경영의 실패로 실의에 빠졌고 1934년 고향 광산에 돌아가 아편을 먹고 자살하였다.

1920년 『창조』에 「낭인의 봄», 「야의 우적», 「오과의 읊», 「그리워», 「춘강」 등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활동을 펼쳤다. 작품발표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1922년부터로 주로 『개벽』을 통해 「금잔디», 「엄마야 누나야», 「진달래꽃」 등을 발표하였으며 1923년 같은 잡지에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가는 길», 「산」 등

을 발표하였다.

민요시인으로 등단한 김소월은 전통적인 한(恨)의 정서를 여성적 정조로서 민요적 울조와 민중적 정감을 표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시집으로 생전에 출간한 『진달래꽃』 외에 사후에 김억이 엮은 『소월시초』, 하동호·백순재 공편의 『못잊을 그 사람』 등이 있다.

조지훈시비

남산 북쪽 기슭 순환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조지훈(趙芝薰, 1920~1968) 선생 시비는 1971년 5월 17일에 건립되었다. 시비에는 다음과 같은 「파초우(芭蕉雨)」 전문이 새겨 있다.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 성긴 빗방울 파초잎에 후드는 저녁 어스름//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조 앉어라//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날
마다 바라봐도 그리운 산아//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
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본명이 동탁인 조지훈 시인은 경상북도 영양 출신이며 박목월, 박두진과 더불어 『청록집』을 간행하여 청록파시인으로 불렸다. 1941년 혜화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오대산 월정사에서 불교전문강원 강사를 지냈고, 불경과 당시(唐詩)를 탐독하였다. 조선어학회 『큰사전』 편찬위원과 고려대학교 교수, 6·25 당시 종군작가 등을 거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초대 소장을 역임했다. 1939년 4월 『문장』지에 「고풍의상」이 추천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한 조지훈은 「승무», 「봉황수」 등을 발표하면서 추천이 완료되었다. 초기 추천작품들에서는 한국의 역사성을 의식하고 고전적인 미의 세계를 찬양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조지훈의 작품 경향은 『청록집』, 『풀잎단장』, 『조지훈시선』의 작품들과 『역사 앞에서』의 작품들로 대별된다. 『청록집』의 시편들에서는 민족의 역사적 맥락과 고전적인 미의 세계에 대한 찬양과 아울러 선취의 세계를 노래하였다. 기타 저서로는 시집 『여운』과 수상록 『창에 기대어』, 시론집 『시의 원리』, 수필집 『시와 인생』, 번역서 『채근담』 등이 있다.

조지훈시비 아래쪽에는 1968년 6월 6일 청우회가 세운 반공청년운동기념탑이 있다.



조지훈시비

남산공원의 역사

남산공원은 1885년 지금의 예장동 일대에 일본인의 거류가 허용되면서부터 공원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일본인이 거주하기 시작한 예장동 일대는 원래 옛날 영문군졸들의 무예연습장이었기 때문에 예장(藝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 일대를 '왜장터', 혹은 '왜장이' 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착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임진왜란 때 이 지역 일대가 왜군의 주둔지였는데 일본인들이 이 지역이 왜장(倭將) 또는 왜성(倭城)과 관계가 있는 곳이라 하여 거류 초기부터 '왜성대(倭城臺)' 라는 이름을 붙여 자기네들의 성역처럼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장동 일대를 성역으로 생각했던 일본인들은 1897년 3월 17일 이 일대 3,000여 평을 공원경영의 목적으로 영구대차지(永久貸借地)로 하였으며, 7월에는 이곳 명칭을 왜성대공원이라고 이름짓고 도로개설에 착수했다. 이후 휴게소, 분수대, 주악당, 연무대를 신설하고 벚꽃 600그루를 심어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거류민의 숫자가 늘어나자 일본인들은 왜성대공원 외에 또 하나의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는데 서편의 땅을 눈여겨 보게 된다. 조중웅, 송병준 등 친일 각료들을 움직여 이 땅을 한·일 공동의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획책하였다.

결국 남산식물원이 있는 자리로부터 남대문까지 이르는 남산 서북록(西北麓) 일대(현재의 회현동 일대) 30만 평의 땅을 1908년 영구무상대여를 받는데 성공하여 그해 봄부터 공사비 1,800원을 들여 도로개설, 정자 기타 각종 공원시설을 만들기 시작하여 1910년 5월 29일에 정식 개원하였다. 이때 고종은 칙사를 보내 치하하고 '한양공원(漢陽公園)'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하였다. 고종의 친필로 새겨진 한양공원 비석은 현재 남산 케이블카 승강장 인근에 방치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옛 안기부 자리에 통감부를, 옛 수방사 자리에는 헌병대사령부를 설치하는 등 남산의 훼손은 계속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통감부를 총독부로 바꾼 뒤 한국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는 더욱 강화되었다. 한양공원의 개원 이후 일본인들은 한양공원을 새로운 공원으로 확장개편하는 두 가지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한 가지는 남산 일대를 모두 포함하는 대확장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신궁(朝鮮神宮)을 건립하는 문제였다.

1916년에 수립된 한양공원 확장정리계획, 곧 남산공원 조성계획은 계획 단계로 그쳤다. 이후 1918년부터 한양공원에 조선신궁 건립계획을 진행하여 1920년에 지진제를 거행하고 150만원의 예산으로 조선신사를 건립하기로 하면서부터 한양

공원은 오히려 폐쇄되었고 시설일체가 제거되었다.

현재의 남산식물원 자리에 있었던 조선신궁의 건립공사는 계획보다 늦어져 1925년에 완공되었다. 이 신궁이 건립됨에 따라 500년이 넘도록 남산 정상을 지켜온 우리의 국사당은 인왕산으로 옮겨야 했다. 경성부 안팎에 거류하는 일본인의 수호신으로서 남산 북쪽 기슭에 설치하였던 경성신사를 1928년에 확충하여 본전으로 개축한 이후 일본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남산은 사실 일제의 일본정신 전파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1940년 3월 12일자 조선총독부 고시에 따라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던 한양공원이라는 이름은 일제의 공식 명칭에서 사라져 버리고 '남산공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다.

광복이 되자 남산은 이제 우리의 손에 의해 훼손 되었다. 남북분단과 6·25를 전후하여 월남한 사람들이 남산주변에 집단으로 모여들어 이 일대를 '해방촌'이라고 불렀다. 또한 약 35만평에 달하는 남산공원은 1957년 9월부터 3공화국 때인 1975년 9월까지 무려 36차례나 용지 일부가 해제되면서 산허리에 각종 대형 시설물들이 들어섰다.

1956년에는 승의여고, 1957년 중앙방송국 남산방송소, 1958년 외국인 임대주택단지와 외국공원 관저 등이 들어섰고, 1962년에는 자유센터와 타워호텔, 각종 교회와 사찰 등이 세워졌으며, 1970년대를 전후해 외인아파트, 맨션아파트, 각종 군부대 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남산을 파고들었다.

늦게나마 서울시가 지난 1984년 9월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지역 14만여 평을 공원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어 건설부고시 374호에 의해 장충단공원 9만 9,000여 평을 편입시키는 등 남산 잠식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광복 이후 우리의 손에 의해 훼손되었던 남산공원이 제모습을 찾는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1993년부터는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남산을 원래대로 복원하고 교육의 장, 시민 휴양의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고종의 친필이 새겨진 한양공원비석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남산

곳곳마다 선현들의 깊은 사연이 담겨

남산팔영

옛날부터 많은 선현들은 남산에 올라 소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청풍을 맞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시로 표현하곤 했다. 성종의 친형인 월산대군은 「한도십영(漢都十詠)」을 읊는 가운데 남산의 꽃구경을 노래했으며 서거정, 강희맹, 이승소 등도 남산의 꽃구경을 한양십영(漢陽十詠)의 하나로 꼽았다.

성현은 현재의 남산 북쪽 기슭 1호터널 입구 일대인 청학동을 한성의 가경이라고 극찬하였으며, 이행은 청학동에 연거하면서 남곤을 비롯한 여러 시우들과 함께 시연 주석을 벌이기도 하였다. 1730년(영조 6)에 창설하였다는 남별영과 구내 계곡 물에 걸쳐 세워진 천우각 주위는 여름철 피서지로 이름이 높았으며, 그 근방 석벽에는 “삼아계”라는 각자가 새겨져 있어 예로부터 명소임을 전해주고 있다.

특히, 조선 초기 예문관대제학 찬성사 및 판한성부사, 즉 오늘날의 서울시장을 지낸 교은 정이오(1354~1434)는 남산에서 볼 수 있는 여덟 가지 경치를 「남산팔영(南山八詠)」이라는 제목 아래 시를 읊었다. 그 내용을 소재별로 살펴보면 첫째 구름이 북쪽 궁궐에 가로지른 것(雲橫北闕), 둘째 물이 남강에 넘치는 것(水漲南江), 셋째 바위 밑에 그윽한 꽃, 넷째 고갯마루의 높은 소나무(嶺上長松), 다섯째 삼월의 답청놀이(三月踏青), 여섯째 중양절의 등산놀이(九月登高), 일곱째 언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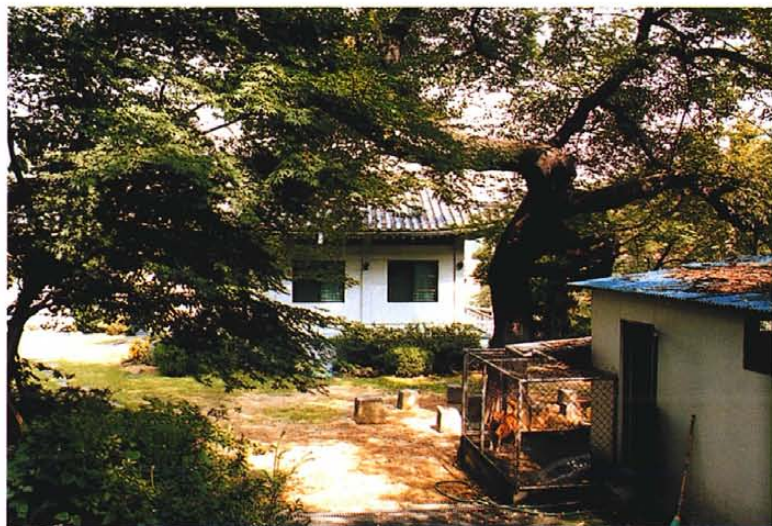
남산공원 일대 모습

올라 관등행사 구경(步坤觀燈), 여덟째 시냇물에 갇힌 빨기(沿溪濯纓) 등을 노래하고 있다.

내용을 개괄적으로 요약하면, 남산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면 멀리 삼각산 아래 아늑하게 보이는 궁궐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남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의 잔잔한 파도에 모래톱이 곱게 휩쓸고, 그냥 떠내려가는 듯한 돛단배가 평화롭기만 하며, 산은 녹음이 우거지고 골짜기의 바위틈에는 기이한 풀들에서 나오는 향기가 그윽하고, 산마루에 우뚝 솟은 푸른 소나무는 허공을 버티고 있으며, 창공엔 흰 구름이 한가롭게 떠돌고 고요한 밤엔 휘영청 밝은 달이 좋으며, 남산의 남쪽 기슭은 봄철이면 꽃피고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새싹이 돌아나며, 가을이면 티없이 맑고 높은 하늘 아래 골짜기마다 붉은 단풍잎 물들이고, 푸른 소나무가 층층이 둘러싼 속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한 수의 시를 읊고, 4월 초파일

에 남산에서 내려다보면 장안 집집마다 연등놀이가 성대하며, 밤하늘이 대낮같이 밝아 그 구경 밤새도록 흥을 일으키며, 천천히 흐르는 골짜기 물은 맑고 깨끗하여 발씻기 아까우며 갓끈 씻으면서 붉은 꽃잎이 한가롭게 동구 밖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보노라면 여기가 도원경인양 착각할 정도로 명소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정터



노인정터

대한극장 옆길을 따라 남쪽 미주아파트를 지나 남산 기슭으로 오르면 느티나무 고목이 있는 한옥집이 나타나는데 이곳이 바로 노인정터다. 현재 이곳 중구 필동 2가 134-2번지에 노인정은 남아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크게 두 가지의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곳이다. 첫째는 '세도정치'요, 둘째는 '갑오경장'이다.

이 정자는 조선 후기 현종 때 세도정치를 했던 풍양 조씨의

조만영이 세운 것으로 그 뒤 그의 후손이 대대로 이곳을 지키며 정자 뒤 바위에 「조씨노기(趙氏老基)」라고 새겼다고 전해진다. 또한 이 정자는 청일전쟁(1894~1895)이 일어나기 2개월 전 일본의 강요로 조선대표 신정희와 일본의 오토리(大鳥圭介) 공사 간에 노인정 회담을 진행했던 장소다.

조만영(趙萬永, 1776~1846)은 그의 딸이 익종(추존왕)의 왕비가 되고 그 아들 현종이 왕위에 오르자 아우인 조인영과 함께 안동 김씨에 대립하여 세도정치를 한 인물로 호는 석애(石崖), 시호는 충경(忠敬)이다. 각조(各曹)의 판서와 오늘날의 시장에 해당하는 한성부 판윤 등을 지냈으며, 사후에는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노인정터는 갑오경장이 태동된 장소라는 점에서 특색있는 장소다. 일본의 강요로 회담이 진행되던 당시 민씨정권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자 일본은 천진조약을 빌미로 조선에 대한 침략야욕을 성취하기 위해

일본군을 대대적으로 파병하였다.

전쟁이 불가피했던 일본과 청나라는 조선을 점유하기 위해서 내정간섭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특히, 일본은 청나라에게 조선의 내정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의하기에 이르고 청나라는 이를 거절하고 만다. 그러자 일본은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의 무력을 바탕으로 단독 처리를 마음속으로 다지게 된다.

즉 갑오년(1894) 6월 1일 오토리 공사는 본국정부의 훈령대로 5개조의 내정개혁안을 조선정부에 제시하고 6일 정오까지 회답을 요구하였다. 조선정부는 부득이 신정희 등 3명을 위원으로 임명하여 회답에 참여한다고 통보하였고, 고종은 이제까지의 폐단을 없애고 자주적으로 내정을 개혁하겠다고 전교하였다.

일본의 강압적인 위협 속에 1894년 6월 8일 이곳 노인정에서 두 나라 대표가 회담을 했는데 이를 '노인정회담'이라고 부른다. 이 회담에서 오토리 공사는 모든 분야를 10일 이내에 시작하여 2년 이내에 개혁할 것을 요구하였고, 조선대표는 내정간섭이라며 거부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남산에 설치한 포대의 포구를 경복궁을 향하여 조준하고 1개 연대 이상의 병력으로 경복궁을 포위, 점령한 다음 민씨정권을 해체시키고 친일내각을 구성시켰으며, 이에 조선정부는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는데 이것이 곧 갑오경장이다. 그러나 갑오경장은 동학농민혁명으로 고양된 농민의 개혁 요구를 일부 수용한 자율적인 측면도 있다. 갑오경장을 계기로 일본은 조선의 정치, 경제적 침투가 용이하게 되었고 각종 이권을 차지하는 침략을 추진해 나갔다.

이곳 노인정터 주변은 산세가 좋기로 유명하여 조선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정자를 짓고 풍류를 즐기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조만영의 노인정이 이곳에 있었고, 청성부원군(靑城府院君) 김석주(金錫冑)가 재산루(在山樓)라는 정자를 짓고 강세황(姜世晃), 정만조(鄭萬朝), 정범조(鄭範朝) 형제와 함께 즐겼다고 한다. 고종때 굴산(橘山) 이유원(李裕元)은 쌍회정(雙檜亭)을 지어 당시 정치를 구상하기도 하였다. 또 천석각(泉石閣)이라는 정자가 휴암천 샘가 옆에 있었다고 한다. 옛날부터 물흐르는 모양이 나뭇가지와 같아서 삼이동(三丫洞)이라고도 하였다고 하는데, 이곳에는 경산 정원용(鄭元容)이 지었다는 시가 전해온다. 김좌근, 김병학, 박영원, 조용화, 윤정진 등이 천석각을 주로 찾았다고 한다. 또 청룡정(靑龍亭)이라는 정자도 근처에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곳에는 금석문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천석각 주변



녹옹 조현명 암각문



조씨노기

에 있었던 삼아계(三丫溪)라는 명문과 청룡정 주변에 임오삼월로 시작하는 금석문, 재산루에 있었던 아회시(雅會詩), 소호천(小壺天)이 있었고 노인정터 부근에서는 녹옹(鹿翁) 조현명(趙顯命)의 시가 적힌 암벽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조씨노기와 조현명의 시 이외에는 소재가 불분명하고 문헌으로만 전해져 오고 있다.

남산사터

중구 필동 3가 79번지 남산 기슭에는 조선시대에 건립된 남산사(南山寺)가 있었다. 남산사는 현재 서울 시내에 남아 있는 얼마 안되는 절터 중 하나이다. 남산사는 어느 때인가 훼손되었는데 일제 때인 1936년에 각념선사(覺念禪師)가 이 절터 위에 각심사(覺心寺)를 지었다. 현재 이 절이 있었던 곳에는 큰 규모의 금당터와 법당터, 석조계단과 석조기단, 주춧돌터, 문터, 지대석(地臺石) 등이 남아있다.

남별영터

남별영(南別營)은 지금의 한국의 집 남쪽, 필동 2가 103번지에 있었다. 금위영의 분영인 남별영은 군사 주둔지였다.

남별영이 처음 설치된 것은 1730년(영조 6)이며 남별영 아래 남쪽에 남창(南倉)이 있었다는데 101칸이었고, 북쪽에는 104칸의 하남창(下南倉)이 있었으며, 남창 서쪽 기슭에는 17칸이나 되는 화약고가 있었다고 한다.

녹천정터

명동쪽에서 남산 방향으로 오르는 소파길 초입의 왼쪽에는 조선 초기에 녹천정(鹿川亭)이란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녹천정이란 이름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남산에서 사슴이 내려와 물을 마시던 시내'라는 뜻의 의미가 들어 있을 법하다.

녹천정은 원래 무학대사가 터를 잡은 곳이었으며, 조선 초기의 문신 권람(權攄)이 이곳에서 거주하였다. 이 정자 아래에 있는 어정(御井)은 세조가 권람의 저택에 행차했다가 이 우물의 물을 마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편 이곳은 일제의 조선 수탈의 본거지였던 조선총독부 관저가 있던 자리이기도 하고, 국가정보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안전기획부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와룡묘

중구 예장동 산 5-6번지에 있는 와룡묘(臥龍廟)는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인 제갈공명을 모시는 사당이다. 서울시 민속자료 제5호인 와룡묘는 조선시대 말 엄상궁(嚴尙宮)이 처음으로 세웠다는 설이 있다.

경내에는 와룡묘 외에 단군묘·제석전·약사전·삼성각·요사·문신각 등이 있어 와룡묘가 중국 도교계 신령을 모시는 단순한 사당이 아니라 토착화된 종교 혼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간에서는 이것을 와룡당이라고 부르고 중국 신령을 모시는 전래 계급의 무당이 즐겨 치성을 드린다. 옛날에는 특히 맹인 박수 무당들이 많이 찾았다.

와룡묘는 세 칸의 팔작지붕 기와집으로 된 건물로 왼쪽 처마에 연이어서 정사각형 지붕의 종각이 만들어져 있다. 사당 안에는 제갈공명과 관운장의 석고상이 모셔져 있는데 각기 그 둘레가 2m, 높이가 2.5m이다. 이밖에 대북·소북·종 등의 의식용 악기가 갖추어져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약 600여 년 전 이곳 뒷면 암벽에 제갈공명의 영상이 조각되어 있었다고 하며 그 뒤 1862년(철종 13)에 그의 위대한 행적을 추모하는 유지



와룡묘

들이 이 사당을 창건하였으나 1924년에 화재가 발생하여 모두 소실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1934년에는 유지들이 힘을 모아 다시 재건하고 이름도 와룡묘라 하였다. 이때부터 시봉인(侍奉人)이 상주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 배례했으며, 탄신일과 기일, 명절 등에 제향하고 각종 행사를 했다. 1976년에는 건물이 퇴락하여 시봉인이 유지들과 함께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다.

와룡묘 전체는 중국 도교의 전래뿐 아니라 우리나라 무속의 독특한 면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당이다.

■ 남산일대 민속놀이

고전을 살펴보면 남산 일대에서 각종 민속놀이 행사가 대대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로 씨름, 답청(踏青), 연등구경, 탁족(濯足), 중양절(重陽節)의 등고(登高), 활쏘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씨름에 관한 자료를 보면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5월 단오조에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언급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남산의 왜장(倭場·藝場洞)이나 북악산 신무문(神武門) 뒤에 모여 씨름을 하여 승부를 겨룬다. 그 방법은 두 사람이 서로 상대하여 무릎을 구부리고 각자 오른손으로 상대자의 허리를 잡고 왼손으로는 상대자의 오른다리를 잡은 후 동시에 일어나며 상대자를 번쩍 들어 메어친다. 그리하여 밑에 깔리는 자가 지는 것이다. 내국(內局, 안걸이), 외국(外局, 밖걸이), 윤기(輪起, 둘러메치기) 등 여러 자세가 있다. 그 중에 힘이 세고 손이 민첩한 자가 내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기는 사람을 도결국(都結局)이라 한다. 중국사람이 이를 본받아 그것을 고려기(高麗技)라 하기도 하고 요교(撓跤)라고도 한다.”

『경도잡지(京都雜志)』 5월 단오조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남산 아래 예장에서 젊은이들의 씨름경기가 성행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중국 사람들도 이를 본받아 고려희(高麗戲)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씨름의 법식이 중국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음력 3월 삼짇날(3월 3일)이 되면 남산 언덕에 올라 화류(花柳)놀이, 즉 꽃놀이를 하는데 이것을 답청(踏青)이라고 하였다. 특히, 진달래꽃을 따다가 참쌀가루에 반죽하여 쟁반처럼 둥근 떡을 만든 다음 참기름에 지지는데 이것을 화전(花煎)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이 되면 집집마다 연등을 달았다. 수십일 전부터 아이들은 종이를 잘라서 등대에 매달아 깃발을 만들고 성안의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돈을 구하여 비용으로 쓰는데 이것을 호기(呼旗)라고 한다.

저녁이 되면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온 장안의 남녀들은 초저녁부터 남산 기슭에 올라가 곳곳에 등을 달아놓은 풍경을 구경했다고 한다. 또한 악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노는 사람도 있었다. 이 날은 밤 늦게까지 서울 장안이 사람으로 북적대는 축제분위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동국세시기』에는 장안 밖 시골 노파들이 서로 다투어 와서 반드시 남산의 잠두봉에 올라가 이 장관을 구경했다고 적고 있다.

삼복 더위가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려고 애쓰게 마련이다. 예나 지금이나 더위를 이기기 위해 계절음식을 먹거나 계곡에 나가 발을 담그는 것으로 더위를 잊곤 한다.

기록에 보면 “6월 삼복이 되면 개를 삶아 파를 넣고 푹 끓인 개장국을 먹거나, 밀로 국수를 만들어 청채와 닭고기를 섞어 백마자탕(白麻子湯)에 말아먹기도 하며, 미역국에 다 닭고기를 섞고 물을 약간 쳐 익혀 먹기도 하며, 호박과 돼지고기에다 흰떡을 찢어 넣어 볶기도 하고 또 굴비 대가리를 섞어 볶아 먹기도 하며, 밀가루에다 호박을 찢어 넣고 반죽하여 기름에 부치기도 하며, 별식으로 참외와 수박 등을 곁들여서 남산과 북악산 계곡 등 청간옥수를 찾아 같은 또래들이 모여 맑은 개울물에 발도 담그고 갓끈도 빨고 하루를 즐겁게 놀았는데 이것을 탁족회(濯足會)라고 했다”고 전한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사람들은 국화를 따다가 찹쌀떡을 만들기도 하고 국화주를 담그고 또 배와 유자와 석류와 잣을 잘게 썰어 꿀물에 탄 화채를 만든 다음 음력 9월 9일 중양절이 되면 남산과 북악산 등 경치 좋은 곳에 모여 마시고 먹으며 하루를 즐겼는데 이것은 등고(登高)의 옛풍습을 답습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고구려 「각저총」, 고분벽화(위)
김홍도의 「씨름도」(아래)

등고는 중국 후한 때 여남 사람 환경(桓景)이 은사(隱士) 비장방(費長房)을 따라 노니는데 비장방이 “9월 9일 여남땅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니 식구들을 거느리고 주머니를 만들어 수유를 넣어 팔에다 메고 산에 올라가 국화주를 먹으면 큰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하여 그대로 따랐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와 보니 닭, 개, 양 등이 모두 죽어 있었다고 한다. 비장방이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이 너대신 죽은 것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후로 사람들은 음력 9월 9일이 되면 산에 올라가 술을 마셨고 여자들은 수유를 넣은 주머니를 차고 다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유래하여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등고라고 한다. 오늘날의 단풍놀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남산 국립극장 뒤편에는 석호정(石虎亭)이라는 활터가 있다. 석호정은 이곳에 있던 노인정을 중수하여 1956년에 세운 것이다. 조선시대에 장충단공원 뒤편 동국대 후문쪽에 남산골 선비들이 심신단련을 위해 이 정자를 지었으나 6·25전쟁 때 없어졌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곳에서 활을 쏘았으나 갑오경장의 영향으로 사풍(射風)이 위축되었다가 1899년에 사직동 황학정(黃鶴亭)이 설립되면서 다시 왕성해졌다고 한다. 일제 때인 1922년 조선궁도연구회의 발족으로 활쏘기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고 한다. 1945년까지 서울에는 40여 곳의 활터가 있었는데 그중 석호정도 유명하였다. 활터에는 활을 쏘았을 때 화살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과녁 뒤에 토성을 설치하였다. 화살을 주으러 다니는 길을 연전길이라 하고 화살의 맞음과 떨어지는 방향을 알리는 기를 고전기라고 부른다.



산책길에서 만나는 남산의 약수터

머리가 좋은 아이를 낳는다는 남산의 주작수

부엉바위약수터

1902년 독일 사람인 에쎄 씨드(Esson Third)는 「서울, 한국의 수도」라는 기행문에서 약수에 대한 인상을 적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수에 집착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울 성안의 사람은 15~20척 밑에서 나오는 물을 식수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장명영약(長命靈藥)인 약수라고까지 한다. 우리 유럽인들은 이런 물을 식수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아마도 법으로 금했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약수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인다. 옛날부터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명승으로 꼽았다. 특히, 인왕산의 백호수, 삼청동 청룡수, 남산의 주작수라는 말이 있었다. 남산의 주작수를 먹고 아이를 낳으면 머리가 좋은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조선의 사대부집 아녀자들은 머슴을 시켜 남산의 주작수를 떠다 먹었다고 한다.

서울의 많은 약수 중에서 첫손을 꼽는 것은 중구 예장동 산 5번지 남산 공명골에 있는 부엉바위약수터였다. 부엉바위약수터는 ‘범바위약수’, 또는 ‘휴암약수’라고 한자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 약수는 절벽 사이를 흘러내려 맛이 매우 좋고 위장병에 특효가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부엉바위약수터는 여름철에 피서를 하거나 산책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부영바위약수터

않았으며 석간수 위에 걸쳐 만든 천석간이라는 누각은 피서하기에 아주 좋은 곳으로 유명하였다고 한다. 옛 문헌에도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하여 “휴암천은 목역산 아래에 있는데 물맛도 달고 차다”고 하였다.

또한 부영바위약수터는 남산에서 가장 기가 세고 터가 좋다고 한다. 범골이라고도 하는 이곳에 반한 중국 왕실의 공주가 남산신에게 시집을 와서 터를 잡고 이곳의 신이 됐다고 한다. 특히 부영바위에 얹힌 전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옛날에 한은석(韓恩錫)이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일찍이 관직에 있다가 영조에 의해 사도세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환멸을 느껴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묻힌 사람이었다. 워낙 결백한 까닭에 모아놓은 재산도 없었던 그는 몹시 궁핍하여 부영바위에서 신세한탄을 하다가 자살을 결심하였다. 한은석은 부영바위 아래 나뭇가지에 목을 매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의 비명소리를 듣게 된다. 잠시 후 마주치게 된 아리따운 여인은 길을 잃고 헤매던 경위와 자신을 집에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한다. 여인의 청을 거절하지 못한 한은석은 남산 너머 후암동 복숭아 밭에 있는 집에 도착하였다. 그가 여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는데 식구라고는 없었다. 주안상을 받고 함께 밤을 지새웠으며, 그 후로 매일 밤 찾아가 정을 통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은석이 여인의 집을 찾아가려고 남산 부엉바위 앞을 지날 때였다. 그때 한 노인이 부엉바위에 앉아 한은석에게 “당신은 오늘 저녁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면서 “그 여인은 수천 년 묵은 지네이니 이 담뱃대에 담배를 꼭꼭 담아가지고 입으로 뱉 후 입 안의 고인 침을 그 계집의 얼굴에 뱉으면 살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된다. 이윽고 여인의 집에 당도한 한은석은 너무나 정이 든 여인에게 입에 고인 침을 뱉을 수 없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마당에다가 침을 뱉어버렸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 노인은 수천 년 묵은 지렁이인데 저보다 먼저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것이니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절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한은석이 아무리 거절해도 어마어마한 돈꾸러미를 내놓았다는 것이었다.

한은석은 다음날 그 집을 다시 찾아갔는데 복사꽃이 만발했던 밭과 집, 그리고 여인도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 이후로 한은석은 여인이 남겨준 돈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렸고, 그의 자손들도 번창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장충단약수터

고형물질인 광물성 물질, 방사성 물질이나 가스성 물질 등이 함유되어 솟아나는 샘을 광천이라고 한다. 광천 중에서 인체에 유익한 물질이 녹아 있어서 몸에 이로운 물을 흔히 약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바위틈에서 솟는 약수는 칼슘, 칼륨, 라듐, 황산염, 규산, 나트륨, 마그네슘, 철분 등 약간의 광물질이 함유되어 사람의 몸에 좋을 수 있으며, 체내의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경우가 많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충단약수터

경제개발을 서두르던 1960년대 이후 상수도의 취수원인 한강이 오염되기 시작하자 서울 사람들은 수돗물보다 바위틈에서 흘러나오는 약수에 대해 애착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장충동 산 14번지 장충단공원 인근에 있는 장충단약수는 위장병에 특효가 있다고 오래 전부터 소문이 난 곳이다.

새벽에 이곳에 모이는 회원수만 해도 약 600여 명이라고 하는데 넓직한 마당에는 회원들이 설치한 운동기구가 20여 가지가 있다. 배드민턴 코트가 2곳이 있고, 아침마다 체조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앰프까지 설치해 놓았다. 이른 새벽에는 꼭

두각시 민요에 맞추어 전통미를 가미한 체조가 실시되고, 서울의 찬가 등 현대미를 살려 에어로빅 체조도 실시하고 있다.

■ 그밖의 크고 작은 남산의 약수터

범골, 혹은 와룡골을 지나면 잠두약수터가 있다. 물이 말라버려 약수터로서의 제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지만 옛 명성만은 남아 사람들의 가슴에는 물이 고여 있다. 웅달샘 속에는 맑은 물 대신 무속인들이나 치성을 들이는 사람들이 남겨둔 타다 남은 촛농과 그을음으로 가득하다.

남산의 약수터나 웅달샘들이 전처럼 물이 고이지 않는 것은 산 밑으로 터널과 자동차 순환도로가 생긴 후 수맥이 끊긴 탓이라는데 문명의 이기(利器)가 가져다 준 보상은 자연의 파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예장동 산 5-6 일대의 신약수터와 감로천약수터는 각기 1,200㎡, 660㎡의 넓이로 각종 운동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을 갖추고 있다. 신약수터의 경우 9종 18개의 운동시설, 3종 13개의 편의시설, 6종 7개의 관리시설을 갖추고 있다. 반면 감로천약수터는 8종 15개의 운동시설, 1종 4개의 편의시설, 2종 6개의 관리시설 등을 갖추고 새벽길에 약수터를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남산의 약수터는 줄잡아 20여 군데나 된다.

제2장

한양도성의 정문

남대문지역

남대문의 어제와 오늘
칠패시장에서 대형유통점까지
철도의 시작과 끝, 서울역
한국 천주교의 상징, 명동성당
조선시대에 서슬이 퍼렇던 관아
외국 사신들의 유숙처
도성방비를 위한 군사기지
하늘에 제사드리던 곳, 원구단
항일 독립운동 전적지
신식 문물의 박람회장
근대화, 외세침략의 교두보
선열들의 숨결



남대문지역



제2장

한양도성의 정문

남대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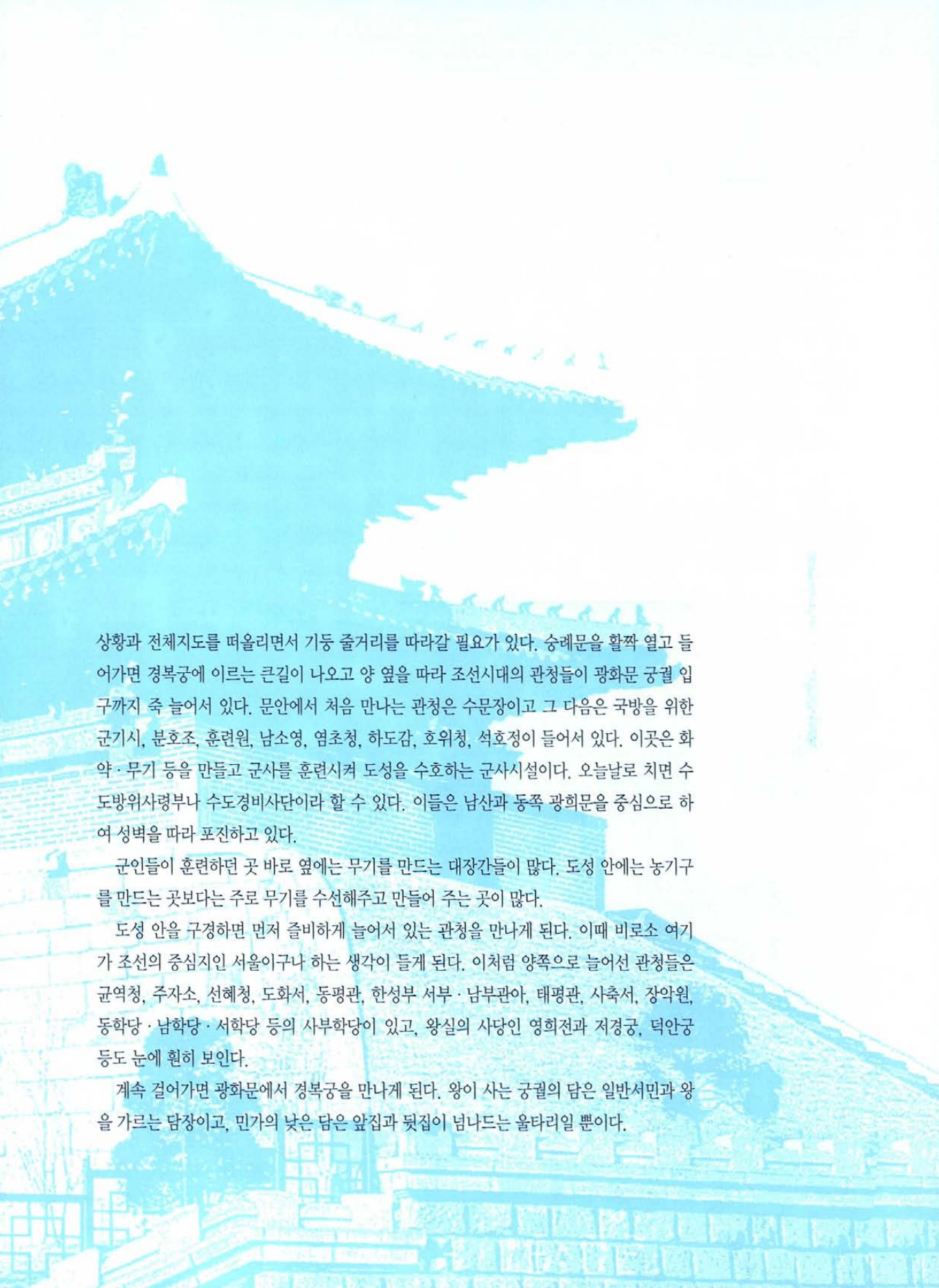
남대문(숭례문)은 한양도성의 정문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은 이곳에서 비로소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며, 가장 변화하고 화려한 지역이기도 하고 조선 건국 후 관청이 많이 모인 곳이었다.

이번 장은 한양도성의 정문이었던 남대문 지역을 12개의 작은 주제, 즉 「남대문의 어제

와 오늘」, 「칠패시장에서 대형유통점까지」, 「철도의 시작과 끝, 서울역」, 「한국 천주교의 상징, 명동성당」, 「조선시대에 서슬이 퍼렇던 관아」, 「외국 사신들의 유숙처」, 「도성방비를 위한 군사기지」, 「하늘에 제사드리던 곳, 원구단」, 「항일 독립운동 전적지」, 「신식 문물의 박람회장」, 「근대화, 외세침략의 교두보」, 「선열들의 숨결」 등의 테마들을 서로 씨줄과 날줄로 삼아 역사의 현장을 재현해보고자 구성하였다.

1392년 조선이 이곳에 건국하면서 한양 주변은 정치적 중심지로 크게 부각되었다. 조선이 건국되어 한양도성이 축조되면서 남방의 문을 남대문(숭례문)으로 정하였다. 이곳은 도성의 시작이자 서울의 시작인 셈이다.

따라서 이번 장은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보다 마음속에 한양이라는 당시의



상황과 전체지도를 떠올리면서 기동 줄거리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 승례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면 경복궁에 이르는 큰길이 나오고 양 옆을 따라 조선시대의 관청들이 광화문 궁궐 입구까지 죽 늘어져 있다. 문안에서 처음 만나는 관청은 수문장이고 그 다음은 국방을 위한 군기시, 분호조, 훈련원, 남소영, 염초청, 하도감, 호위청, 석호정이 들어서 있다. 이곳은 화약·무기 등을 만들고 군사를 훈련시켜 도성을 수호하는 군사시설이다. 오늘날로 치면 수도방위사령부나 수도경비사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남산과 동쪽 광희문을 중심으로 하여 성벽을 따라 포진하고 있다.

군인들이 훈련하던 곳 바로 옆에는 무기를 만드는 대장간들이 많다. 도성 안에는 농기구를 만드는 곳보다는 주로 무기를 수선해주고 만들어 주는 곳이 많다.

도성 안을 구경하면 먼저 준비하게 늘어서 있는 관청을 만나게 된다. 이때 비로소 여기가 조선의 중심지인 서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이처럼 양쪽으로 늘어선 관청들은 균역청, 주자소, 선혜청, 도화서, 동평관, 한성부 서부·남부관아, 태평관, 사측서, 장악원, 동학당·남학당·서학당 등의 사부학당이 있고, 왕실의 사당인 영희전과 저경궁, 덕안궁 등도 눈에 훤히 보인다.

계속 걸어가면 광화문에서 경복궁을 만나게 된다. 왕이 사는 궁궐의 담은 일반서민과 왕을 가르는 담장이고, 민가의 낮은 담은 앞집과 뒷집이 넘나드는 울타리일 뿐이다.



각기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구분되어 있던 도성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변화하게 되는데, 도성 안의 시장은 허가받은 시전이나 육의전만 장사를 할 수 있다. 도성 밖에는 무허가 상점인 난전이 생기면서 점차 영역을 확장하자 상업이 허가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신흥통공(辛亥通共)이다. 당시 한양 도성 인근의 무허가 시장은 남대문 밖 칠패와 종로 4·5가의 이현 등이 있었다.

한편 조선후기에 천주교가 유입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조선은 천주교인들에 대한 혹독한 탄압으로 맞섰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서소문 밖에서 처형되었는데 처형장 인근에 약현성당이 들어섰으며 이승훈 등이 천주교 집회를 가졌던 곳에는 명동성당이 들어서었다.

이후 일본은 조선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면서 식민지수탈기관을 곳곳에 설치하였다. 동양척식회사, 조선통감부, 조선총독부 등을 차례로 만들었으며 자신들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성부청 등을 만들었다.

이들은 주로 조선의 상징적인 건물들을 파괴하고 그 위에 설립하였다. 남산에는 조선신궁과 조선통감부를, 경복궁에는 조선총독부를,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원구단에는 철도호텔을 지어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기도 하였다.

일제의 파괴력 앞에 조선의 민중은 또다시 힘을 모아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강우규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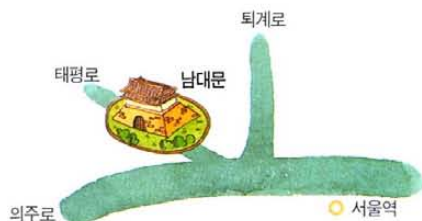
본 총독인 사이토에게 폭탄을 투척했고, 정미7조약에 반대하여 의병운동이 일어났으며, 나 석주가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는가 하면 한국은행과 세브란스 앞에서는 3·1 독립운동 때 만세시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남산·용산을 중심으로 일본인 거리가 형성되어 원효로, 용산, 명동, 충무로 등지로 확대되어 갔다. 일본인 지역이 생기면서 역시 소비시장이 형성되었다. 소위 없는 것이 없다는 백화점, 호텔 등이 건축되었는데 당시에는 미쓰코시백화점(三越, 현재의 신세계백화점), 조지야백화점(丁字屋, 현재의 미도파백화점) 등이 생겨나 순진한 백성들의 마음을 끌게 되었다.

조선시대 초·중기에 승례문을 열고 도성 안으로 들어섰던 여러분들은 빠르게 변모하는 한양과 남산지역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 할 것이 틀림없다. 일제 당시의 서울역과 승례문은 조선의 영화를 누리던 곳인 반면에 식민지의 흔적이 가장 많이 침투된 곳이기도 하다. 빠르게 변모하는 도시의 외형만큼이나 잊혀져 가는 역사와 문화를 오늘날 다시 정리하고 되새기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남대문의 어제와 오늘

숭례문이 원래 이름, 한양도성의 정문



중구 남대문로 4가 29번지에 위치한 남대문(숭례문)은 우리나라 국보 제1호로 지정되어 있는 한양도성의 정문이다. '남대문(南大門)'이라는 명칭은 방위를 표시하는 보통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양도성의 정문을 뜻할 정도로 고유명사처럼 굳어버렸으나 원래는 숭례문(崇禮門)이라고 불러야 옳다.

1392년에 조선이 한양을 수도로 삼고 건국하면서 도성이 축조되었다. 남대문은 1396년(태조 5)에 축조되어, 1447년(세종 29)에는 개수공사를 하였으며, 1961년에서 1962년 사이 군사정부 시절 목재와 석재 등이 썩고 부서져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문루와 홍예를 헐고 중수하였다. 그러나 부서진 석재와 썩은 목재만 새것으로 갈고 다른 것은 옛날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옛날의 모습으로 완전히 복원되었다. 이때 해체수리를 하면서 발견된 상량문에서 1479년(성종 10)에도 대대적인 중수공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대문은 조선시대 때는 정치적·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한양의 관문이다.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에 갔을 때는 궁궐의 문에 들어서면서부터 무릎으로 기어갔다고 전한다.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들은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했을까? 무릎이 닳도록 기어왔을까? 아니면 노비나 하급관리를 대신 기어가게 했을까? 모화관까지 지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사신을 상당히 우대해주었을 것이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왔을 것이다.



한양도성의 정문 남대문

남대문은 화강암으로 쌓은 기단 위에 건립되었는데 견고하고 아름다우며, 현존하는 우리나라 성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단청은 적(赤)·녹(綠)의 두 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2층 누각 아래에는 화강암으로 석축한 중앙에 홍예문이 있고, 철갑을 씌운 문이 있다. 홍예문 위에는 벽돌을 쌓아 여장을 돌리고 양쪽 끝에 조그마한 협문을 달아서 성곽으로 통하는 길을 내어 계단을 통해 오르내릴 수 있게 했다. 성벽 위에는 길이 있어 협문을 통해서 둘레를 정찰할 수 있었다.

건물의 평면은 아래 위층이 모두 정면 5칸, 측면 2칸이며, 위층에는 기둥 사이의 중방과 창방 사이에 작은 창이 나있다. 지붕은 모두 겹처마이고 추녀마루에는 잡상과 용두를 올려놓은 우진각 지붕으로 되어 있다. 이 건물은 전형적인 다포양식의 건물로 창건연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견실한 목조건축물의 수법을 보이고 있는 한국건축사상 중요한 건물중 하나이다.

원래는 팔작지붕으로 더 화려한 지붕모양을 하고 있었고, 살미첨자의 하향을 막기 위한 헛공아와 공포 사이의 포벽도 토벽으로 내외면을 단청하여 연화 또는 당초문 등이 그려져 있었으나 이 역시 후세의 것임을 알게 되어 제거되었다. 편액을 『지봉유설(芝峰類說)』에는 양녕대군이 썼다고 하는데, 다른 견해가 많아서 아



남대문 앞 모습(1900년 이전)



남대문 주변 모습(1958년)

직도 분분하다. 남대문의 원래 이름인 숭례문에서 예(禮)자는 오행에 배치하면 불꽃이 되고, 오방(五方)에 배치하면 남쪽이 된다. 대개의 경우 편액은 가로쓰기를 하나 숭례문의 편액은 세로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경복궁에 대치하는 남쪽 관악산의 기세를 억누르기 위해 불길이 거세게 일어나는 모양을 뜻한다고 한다.

지금 남대문 양 옆으로 도로가 있는데 도로는 정부종합청사, 서울역, 남대문시장, 중림동 방면 등 다섯 개의 길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잡한 길 중에 하나이다. 지금도 남쪽으로 드나드는 큰길이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서울성곽이 남산에서 내려와 힐튼호텔 앞을 지나 남대문에 연결되었고, 서소문으로부터 상공회의소 앞을 지나 성벽이 남대문에 연결되어 인마(人馬)의 통행은 남대문을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었다. 조선시대의 문은 각기 기능이 달랐는데, 인마가 통행하는 곳은 남대문이고, 소의문·광희문의 경우는 시체가 나갈 수 있었던 문이어서 시구문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남대문 주위의 성벽은 일본이 을사조약 후 시가지 확대사업과 일본 황태자(대정)의 조선 방문을 위해 파괴해 버렸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의한 조선 파괴 원칙을 살펴보면 조선의 정신이나 조선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파괴하여 일본의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다.

칠패시장에서 대형유통점까지

근대화와 함께 밀려온 소비대형화의 모습들



온갖 물건들이 팔려나가는 곳을 시장이라고 한다. 과거의 시장에서는 비단장수를 생각할 수도 있고, 쌀을 팔던 싸전도 있고, 엿가락이 담긴 긴 판을 어깨에 메고 큰 가위를 요란하게 흔들던 엿장수도 흔히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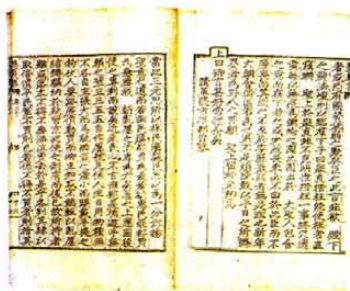
아주 오랜 옛날에도 시장이 있었을까? 물론 지금과는 차이가 있지만 시장은 있었다. 옛날에는 시장이 각기 다른 물품을 교환하기 위한 장소였으며 신성한 장소로 여겨진 곳에 시(市)를 열고 그곳에서 물건을 교환했다. 그러다가 점차 물건을 사기 위해 화폐라는 수단을 사용하게 되었고, 물건 대신 조그만 동전과 지폐를 가지고 다니게 되었다. 동전에 가치를 부여해 물건과 바꿀 때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정해졌다. 이것이 상품의 가격이다.

조선 초기에는 국가의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는 시전이 있어서 국가에 일정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전매특권을 부여받았다. 이 중에서도 육의전(六矣廛)이라 불리는 특수한 가게가 있어 다른 곳에서 살 수 없는 물건을 여기서만 파는 독점 상인들이 있었다. 육주비전·육부전·육저비전 등으로 불렸던 육의전은 일반적으로 비단을 파는 선전, 무명을 파는 면포전, 명주를 파는 명주전, 종이를 파는 지전, 모시와 베를 파는 저포전, 생선을 파는 어물전 등이 있었다.

조선 초기에도 시전이나 육의전은 납세의 의무가 있었지만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된 이후부터는 국가의 주요 행사시 경비를 부담하고 중국에 파견되는 각종



1920년대 남대문시장 모습(옆)
전매특권 폐지조서인 「신해통공」(아래)



사절의 세폐 및 수요품 조달 등을 맡는 국역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높은 부담 대신에 독점적인 특권이 부여되어 장사 자금을 대여받는다거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시전이 그 위세를 떨치는 반면 도성 밖에는 점차 난전이 생기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조세로 쌀을 납부하거나, 부역을 함으로써 축성이나 건물을 쌓는데 인력을 지원하거나 지방특산물 등 현물을 납부하는 등 3가지 형태의 납부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조세의 부족도 부족이지만 현물이나 지방특산물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못쓰게 되는 것들이 많아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하고 부족한 조세를 확보하기 위해 조·용·조의 납세방식을 일괄적으로 쌀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대동법을 실시하고, 국가에서는 모아진 쌀을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바꾸어 썼는데, 이때 물건을 대신 사서 납품해 주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조선 초기의 고정적이던 시장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다.

또한 관영상업과 수공업자들은 과중한 부담과 부역으로 시장에서 활력을 잃었는데, 물건을 만드는 대신 능력있는 민간상인이나 수공업자들에게 물건을 사서 판매를 대행해 주는 체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시전상인과 민간상인의 관계는 각별한 것이었다.

시전의 변화양상을 보면 대동법 이후로 물물교환장소가 교통의 중심지에서 이



사람들로 북적대는 1999년의
남대문시장

루어지게 되어 이들 지역이 급속하게 상업지역으로 변화해 나갔다. 때문에 더 이상 시전이나 육의전 체제가 지속되기 어렵게 되자 전매특권을 모두 없앤다는 조서가 반포되는데 1791년(정조 15)의 「신해통공(辛亥通公)」이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상인집단으로는 경강상인(서울 한강), 송상(개성), 만상(의주), 내상(동래)이 있다. 이들은 거대 자본과 도시로 밀려오는 빈민들의 값싼 노동력과 결합하여 막대한 차익을 남기면서 부를 축적하고 결국 궁방이나 권세가와 결합하여 조선 후기 최대 상업자본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칠패시장(七牌市場)은 남대문 밖에 있었던 난전으로 칠패는 조선시대 당시 봉래동 일대의 지명이 아니라 군영의 순찰구역을 뜻한다. 정부는 변란, 도적, 방화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1670년(현종 11)부터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군인들로 하여금 한양을 순찰하게 하였다. 각 군영에서는 8패, 즉 8조로 나누어 해당구역을

순찰했는데 봉래동이 7패였다. 1414년(태종 14) 무렵 조정에서 남대문 언저리에 가게를 지어 지정된 상인들에게 빌려주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인 1608년(선조 41) 지방에서 올라오는 세공·세곡 등을 보관하고 포·전의 출납을 맡아보는 선혜청이 지금의 남창동 부근에 설치됨에 따라 남대문 밖 칠패에는 자연히 객사와 주막이 생기고 사상(私商) 도매시장이 생기게 되었다.

칠패는 정문인 남대문이 바로 옆에 있고, 당시 물화가 가장 많이 집산되고 있는 마포, 용산, 서강과 연결되기 쉬운 곳에 있었다. 또한 외어물전인 서소문이 칠패와 가까웠다. 도성 밖이므로 시전상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칠패 이외에도 종로·이현 등에 난전이 있었다. 이현시장에는 채소와 과일이 많이 나고, 남산 아래에는 술을 잘 빚었으며, 북쪽에는 떡집이 많았다. 동대문시장 부근에는 배가 많이 나서 배우개장이라고 했다.

근대적인 남대문시장은 1912년 3월 친일파 송병준이 칠패시장터에 조선농업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주로 미곡·어류·과일·잡곡 등이 매매되었다. 1922년에는 경영권이 일본인 회사로 이관되자 그 명칭도 중앙물산시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여전히 남대문시장이라고 불렀고, 광복 후에는 상인연합회를 결성하여 시장경영에 주력하였다. 남대문은 우리나라 최대의 종합시장으로 전국에서 올라오는 도·소매 상인들이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달려와 불야성을 이룬다.

남대문 외에 재래시장으로는 월남한 이북 피난민들이 세운 평화시장과 중앙시장, 그리고 1957년 서울시에서 조성한 중부시장이 있고, 농산물시장이었다가 고추 등 내륙지방의 농산물이 집하되는 경동시장이 있다. 그러나 경동시장은 가락동농산물시장이 생기면서 그 기능이 약해졌다. 한편, 1960년대에 세워진 세운상가가 있으며, 예지동에는 시계골목이 있고, 전국의 모든 골동품들이 집산되는 황학동시장이 있다. 이곳은 1980년대부터 형성되어 한동안 번창하였으나 현재 장안평에 고미술상가가 형성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남대문시장은 다른 재래시장이 확대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나, 일제 때부터 백화점이 집중적으로 생기면서 새로운 상업시장이 형성되었다. 대표적인 상업양태로 등장한 것이 백화점인데, 신세계·미도파·롯데백화점이 충무로와 명동 일대에서 처음 생겨났다.

신세계백화점(三越百貨店)은 1906년에 충무로 1가에 설립되었으나 1927년 현재의 자리로 옮긴 후 1930년에 개점하였다. 당시에는 만주와 조선일대 최대의 백

화점이었다. 1963년 삼성그룹이 인수하면서 신세계로 상호를 변경하고, 1991년에는 삼성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유통업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미도파백화점은 1922년 조지야백화점(丁字屋百貨店)에서 출발하여 일본 상인들을 위한 쇼핑의 명소였다. 1954년부터 미도파라는 상호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1971년에는 시대백화점과 가고파백화점을 흡수하여 분점을 개점함으로써 백화점업계 다점포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다.

쁘랭땅백화점은 1989년 대구 동아백화점이 고급브랜드를 지향하면서 프랑스 뿌랭땅과 제휴하여 설립하였다. 지방 백화점으로는 처음으로 수도권 안으로 진입하였다. 1998년 프랑스 뿌랭땅과의 계약이 만료되자 동아 델타마트라는 소형할인점으로 변모하였다.

롯데백화점은 1979년 12월 17일 개점된 이래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쇼핑공간을 확대하고 문화공간으로서의 백화점을 구축하여 갔다.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에 공식백화점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으나, 90년대 들어서는 점차 고가의 백화점식보다는 저가의 할인점으로 전환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남대문 시장을 대신하는 대형유통업체가 생겨나면서 새로운 상업문화가 창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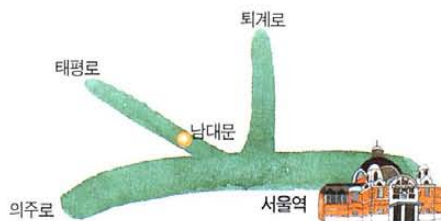


신세계백화점(위)
미도파백화점(중간)
롯데백화점(아래)



철도의 시작과 끝, 서울역

1900년 7월 8일 남대문역으로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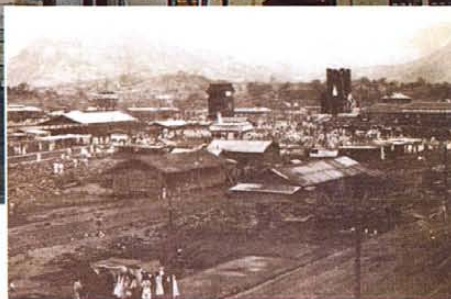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12번지 72,655평의 대지 위에 자리잡고 있는 서울역 (사적 제284호) 건물은 현재 구역사 656평 외에도 민자역사 1,541평, 기타 건물 12,629평 등 14,826평의 규모를 자랑한다. 서울역의 역사는 1900년 7월 8일 한강철교의 준공과 함께 경인선이 완전히 개통되면서 간선철도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서울역은 처음에는 서대문정거장으로 불리다가 남쪽으로 옮겨오면서 남대문역이라고 불렸다. 초기 남대문역은 2층 목조 건물로 현재의 서울역보다 조금 남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1915년 10월에 역사를 크게 개축하면서 이름도 경성역이라고 바뀌었다. 현재의 웅장한 역사건물의 모태는 1922년 6월에 착공하여 1925년 9월에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이다. 건축양식은 서양에서 18세기 이래 유행되어 온 절충주의 양식을 모방하였다. 새롭게 건축된 콘크리트 건축물은 규모는 동경역, 외양은 대판시 중앙공회당, 기능은 핀란드의 헬싱키역과 유사하게 설계했다고 한다.

1899년 개통 당시 서울과 인천간의 거리가 8~12시간이나 걸리던 것이 이 주변을 따라 경인철도가 생기고 한강철교가 완성되면서 1시간으로 단축되었으니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청일·러일 전쟁을 겪으면서 남대문역은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한 기점이었으며, 일본은 그 중요성을 내세워 10만 평의 방대한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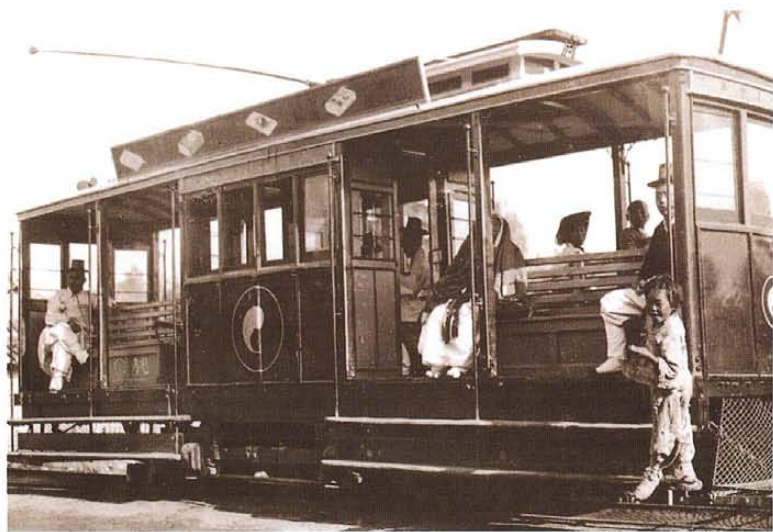
서울역 전경(현재의 모습과 초기의 서울역 모습)



모의 철도부지를 요구하기에 이른다. 더구나 조선정부는 철도용지를 매입하여 일본에 무상공급해야 했다.

이 지역의 토지는 민가, 민유지, 공동묘지 등도 많아 수용에 번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 모든 부담을 조선이 담당하였는데 일본으로부터 빚을 내어 지급했고, 그나마도 중간에 착복이 많아 실소유자에게 돌아간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곳에는 철도 관련 시설과 일본인 상가들도 건설되어 일본인들이 서울로 침투해 들어오는 입구이자 거점이 되었다. 일본인 세력은 남대문을 지나 명동·충무로역까지 확장해 나갔다. 당대의 고급관리나 친일파의 거두, 지주 등의 자본가들이 역사 2층에서 모임을 가졌다. 경인선을 개통한 이후 한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전차에 매달려
즐거워하는 아이 모습

경부선·경의선을 부설했고 (1900~1906), 강점한 이후에는 호남선·경원선을 부설하였는데(1910~1914), 이들 노선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두 남대문역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남대문역은 조선 철도의 발착지이자 중심부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서울역은 일본과 조선의 주요 기점을 연결하여 조선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망을 확대하고 자국의 상품시장을 급속히

확대하는 한편, 조선의 식량·원료를 효과적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서울역 일대는 원래 도성의 중심지가 아니었고 인구도 많지 않았다. 조선의 도성도를 보면 이곳은 남대문 밖에 있었던 지역이었으며 인구도 증가하고 활기를 띠게 된 것은 조선 후기 난전상인들이 들어오고 칠패시장이 형성된 때부터였다. 남대문을 통해 사람들이 성 밖으로 오가면서 그 주변을 따라 길이 생기고 그곳에는 도성의 물품을 공급하는 시장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시장이 관의 주도하에 일정 지역에서만 열리게 되어 있었고, 도성 안에서는 육의전이라는 상설시장이 있어서 이곳에서만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었다.

그러다가 도성 밖에 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 상인들이 생겨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활발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점차 중심지가 되어 갔다. 남대문 일대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인데, 특히 경인철도가 생기면서 용산역이나 서울역이 설치되면서 인구는 더욱 집중되었다.

광복 후 1946년 5월 경성역은 국유화되었으며, 1947년 1월에는 명칭도 경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뀌었다.



한국 천주교의 상징, 명동성당

우리나라 천주교의 상징적 구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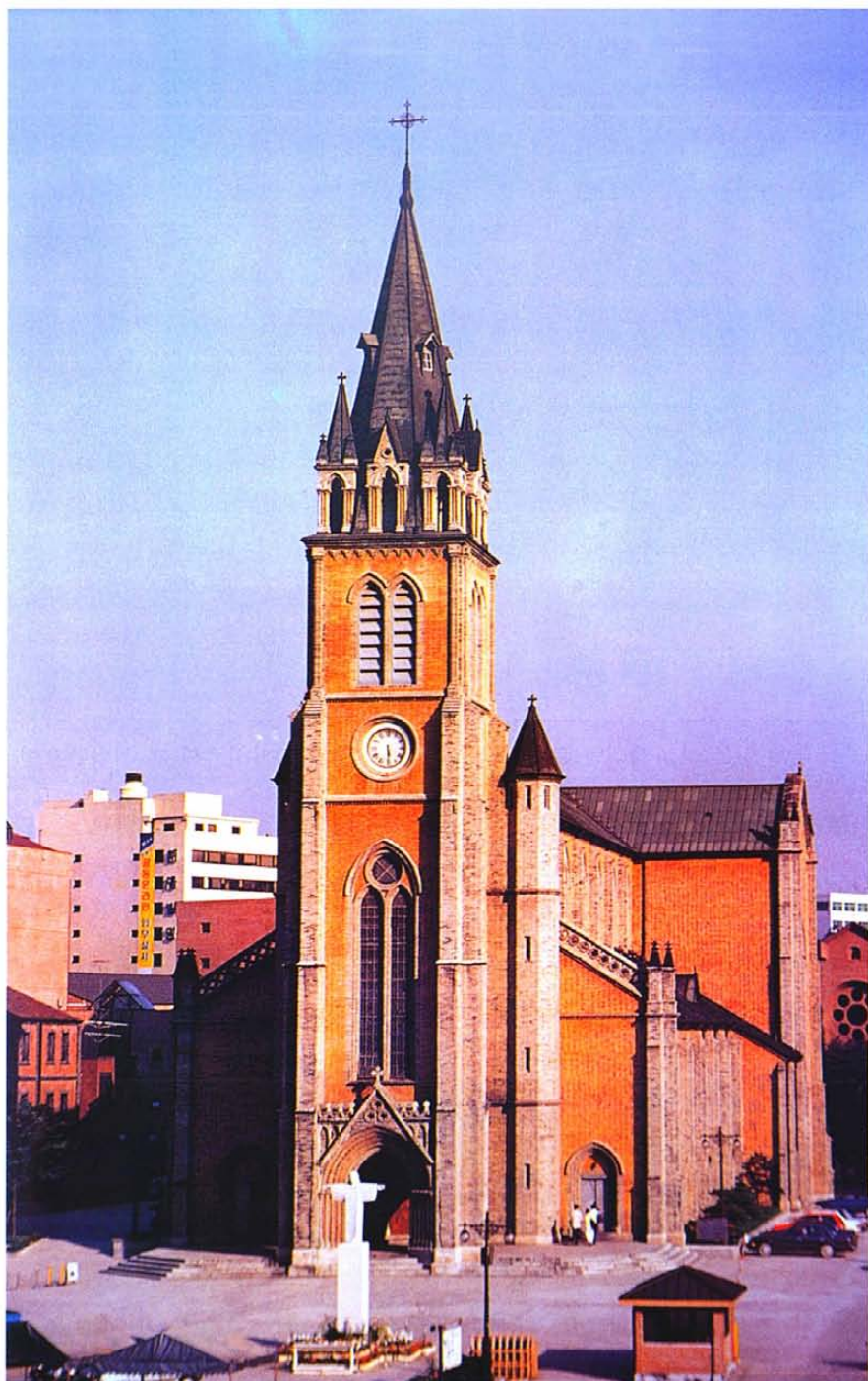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에 위치한 명동성당(明洞聖堂, 사적 제258호)은 1892년(고종 29)에 착공하여 1898년에 준공하였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성당인 명동성당은 우리나라 유일의 순수한 고딕양식의 연와(벽돌)조 건물이다.

명동성당이 자리잡은 대지는 한글학회가 펴낸 『한국지명총람』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인 양호가 진을 치고 남대문에 있던 북을 옮겨 달았던 고개여서 '북달재', 또는 '북고개'로 불렸던 곳이다. 또한 이 터는 중현이라고 불렸는데 원래 판서를 지낸 윤정현의 저택이 있던 곳이다. 1784년(정조 8) 역관인 김범우의 사저인 명례방(지금의 명동성당 자리)에서 이벽·이승훈·정약용 형제 등 당시의 양반과 중인 수십 명이 종교집회를 가짐으로써 이곳에서 초기 교회를 창설하였다.

특히, 김범우는 자신의 사저를 내놓아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회당이 설립되는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1785년 종교집회를 자신의 사저에서 열었다가 잡혀 유배되었고, 장형을 당한 상처가 악화되어 유배된 지 1년만에 죽어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가 되었다.

1882년 한미수호조약의 체결로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자, 당시 교구장이던 주교 블랑(Blanc, M. J. G.)이 성당부지로 이곳을 사들여 중현 본당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역대 왕의 어진을 모신 영희전과 가까이 풍수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조정에서 소유권을 억류한 적도 있었으나, 1892년 5월 8일에



정초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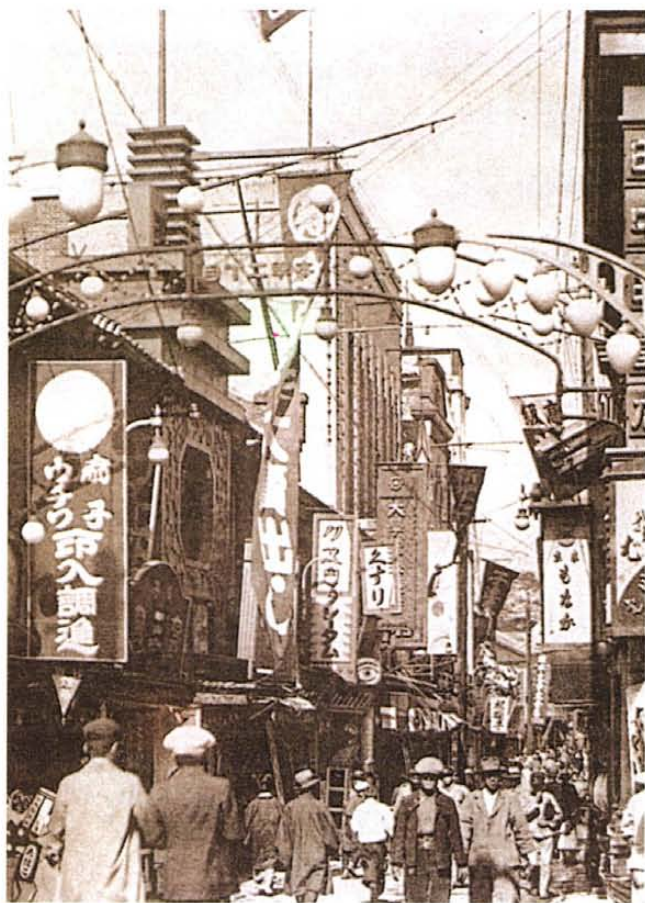
처음에 명동성당을 설립할 때 우리나라에는 기술자가 없어 중국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고 도중에 재정난과 청일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1896년 설계와 감독을 맡았던 코스트 신부가 죽자 프와넬이 뒤를 이어 내부공사를 속행하여 1898년 5월 29일에 준공식을 가짐으로써 명동성당은 ‘뽕죽집’이라는 이름으로 장안의 명물이 되어 매일 많은 구경꾼이 몰려 왔다고 한다.

병인박해(丙寅迫害) 때 순교한 순교자들의 유해를 용산신학교에서 옮겨와 지하 묘지에 안장하였고,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종현 본당의 이름을 명동대성당으로 바꾸었다. 1947년에는 가톨릭출판사를 설립하여 각종 출판물을 간행하였으며, 1947년과 1973년 두 차례에 걸쳐 수리공사와 부속건물의 건립을 이룩하였다. 또한 교회창설 100주년 기념으로 1981년부터 스테인드 글라스·지붕동판 교체 등 대대적인 복원수리공사에 착수하여 1984년에 마무리지었다.

명동성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벽돌조 교회당으로 고딕적인 장식을 추구하였다. 벽돌은 용산의 한강통 연와소에서 제작한 것으로 그 모양이 20여 종에 달하고 적색과 회색의 이형 벽돌로 내외 각 부분에 알맞도록 쌓아 전통적인 고딕공법에 따라 건립했다. 성당부지는 4,370평이며 건평은 454평이다.

내부에 있는 복자제대와 복자상본은 1952년 79위 복자시복식 때 설치됐으며, 강대(講臺)는 위돌 박 신부의 고향에 있는 성당의 강대를 모방한 것이다. 모든 창은 아치형이고 열주(列柱)는 이형 벽돌을 사용하여 석재의 조각적인 효과를 내고 있으며, 스테인드 글라스는 중세양식으로서 원래 프랑스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제작한 것인데 1981년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원형대로 보수되었다.

오늘날 명동성당은 우리나라 천주교의 상징이자 구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명동성당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와 민주화운동의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었다. 더불어 각종 정치·경제·문화·인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대중적인 집회장소로도 그 명성이 드높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속화된 거리 명동에 가장 성역화된 명동성당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세속의 도시에 살면서 고단한 육체와 정신을 쉬게 함은 물론 사회의 등불을 밝히는 장소로서 명동성당은 이미 깊은 뿌리를 내렸다.



일제 때의 명동거리

명동 이야기

명동은 조선시대에 한성부의 행정구역 5부 49방의 하나인 명례방(明禮坊), 혹은 명례방골이라고 하던 것을 명(明)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일제 때에는 명치정(明治町)으로 불리다가 해방 후 1946년에 밝은 마을, 밝은 고을이라는 의미에서 명동이라는 이름이 공식화되었다.

조선시대 때 명동 인근은 주택지로 밀집을 이루었고, 일제 때 일본인이 충무로 일대를 상가로 발전시킬 때 인접지역이었던 이곳도 영향을 받아 상가로 변모하게 되었다. 충무로와 명동 일대가 발전한 것은 근본적으로 일제에 의한 서울의 도시계획에 따른 결과이다. 북촌을 대변하는 종로 일대를 견제하기 위해 남촌을 대변하는 충무로·명동 일대를 집중적으로 개발했다는 얘기다. 종로는 일제 때 일본사람들에게 상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고수했던 민족자존심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명동·충무로·종로 일대에는 1930년대부터 예술극장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출발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비슷한 시기에 명동에는 '메이지자라예술극장'이 들어섰고, 충무로에는 스카라극장의 전신인 약초극장이 생겨났다. 명동의 메이지자라예술극장은 명동극장, 시민관, 국립극장, 예술극장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나중에 증권회사에 자리를 넘기게 되었다. 명동의 예술극장이 사라지면서 영화회사들이 남산이나 충무로로 이동하고 그 밖의 장소로 떠남에 따라 명동은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기능 또한 잃게 된다.

어쨌든 명동 일대는 광복 전후로부터 1960년대까지 서울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다. 광복의 기쁨과 6·25 이후의 정신적 황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명동의 다방이나 술집에 모여 인생에 대해 논하고 문학과 예술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했다.

특히, 명동의 다방문화는 소시민에서부터 지식인 계층의 룬펜에 이르기까지 많

그리고 독일계 러시아인 손탁이 1902년 정동에 지은 '손탁호텔'은 서울에서의 호텔식 다방의 최초였다. 손탁호텔은 1917년 이화학당에서 사용하다가 1922년에 허물고 3층 건물을 지어 '프라이홀(Frey Hall)'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것은 한국은행 맞은편 제일은행 본점 서쪽에 있었던 '청목당'이었는데 2층은 살롱이었으며, 주인은 일본사람이었다.

1930년대에는 동경미술학교 도안과를 나온 이순석이 소공동에 개업한 '낙망 파
라'가 등장하는데 이곳은 1930년대를 대표하는 다방이었다. 나중에 이곳은 유명
여배우 김연실이 인수하여 1940년대까지 이어졌다.

남대문지역 · 85

인사동에 '쓰루'라는 카페를 인수하여 운영했으나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상은 1935년 명동에 '무기(麥)'를 직접 설계하여 지었으나 개업 직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말았는데 이 '무기' 다방은 명동에 다방이 밀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1933년 이상이 개업했던 제비다방을 전후로 해서 영화연극인, 화가, 문인들에 의해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게 되었다. 다방이 가장 밀집했던 지역은 명동(明治町), 충무로(本町), 종로, 소공동(長谷川町) 등이었다. 그 당시 다방은 광복과 전쟁 이후의 지식인들 속에 남아 있던 허무와 애수를 마음껏 발산하는 장소이자 문화의 산실이기도 했다.

1956년을 접어들면서 충무로 일대는 쇼핑의 기능이 현격하게 약화되었고 상대적으로 명동 일대는 주점들이 서린동과 청진동지역으로 이주해 갔다. 때문에 명동 일대는 도시가 재개발되면서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대형 백화점, 양장점, 양화점, 의상실 등과 각종 사무실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1960년대 말에는 경제적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남대문로 2가와 을지로 2가의 금융업무활동이 활발해져 금융가로도 발달하였다.

명동은 1960년대까지는 문인들의 집합처가 되었으며, 1970년대는 통기타와 청바지 문화를 이룩한 낭만의 거리였다. 명동은 1970년대까지 서울의 대표적 변화가로 군림했으며, 이후 점차 강남의 영동지역 등 다른 지역으로 기능이 분산되고 있다.



조선시대에 서슬이 퍼렇던 관아

정치·경제·교육·행정 기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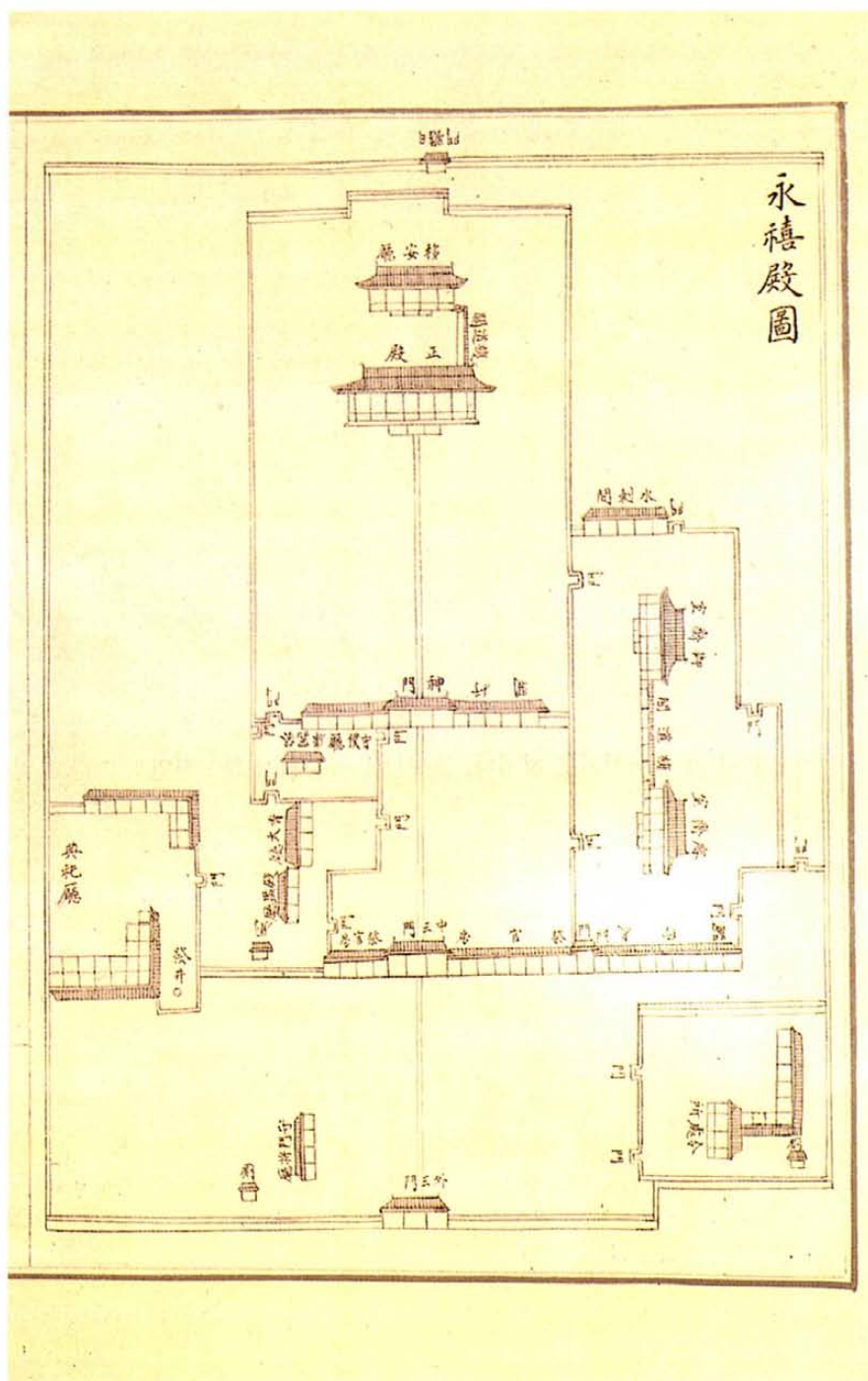
저경궁터

중구 남대문로 3가 한국은행 본점 옆에 자리했던 저경궁(儲慶宮)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 원종의 옛 저택으로 원래의 이름을 송현궁(松峴宮)이었다. 1755년 (영조 31) 6월에 선조의 후궁인 인빈 김씨의 신위를 모시고 향사하면서 저경궁으로 고쳤는데 인조의 잠저(潛邸)이기도 한 곳이다.

1927년 그 자리에 경성치과의학 전문학교가 들어서면서 철거되어 궁의 정문과 하마비(下馬碑)만 현재의 한국은행 뒤뜰에 남아 있었다. 그후 1936년 10월에 정문이 철폐되고 하마비만 치과대학에 보존되었는데 지금은 한국은행 동문 쪽에 표석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 하마비에는 ‘大小人員皆下馬’라고 써어 있어 이곳이 궁궐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영희전터

중구 저동 2가 62번지 저동파출소 자리에 있었던 영희전(永禧殿)은 세조의 장녀인 의숙공주의 생가터로서 숙종 때는 태조의 어진(御眞)을 모셨던 곳이다. 지금은 극동빌딩 뒤로 수표교다릿길을 따라 가다보면 나오는 저동파출소 앞에 영희전이었음을 가리키는 표석이 자리잡고 있다.



장악원터

중구 을지로 2가 181번지 외환은행 본점 인근에 위치하였던 장악원(掌樂院)은 궁중에서 연주되는 음악 및 무용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었다. 조선 초기에 아악서·전악서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1457년(세조 3) 장악서로 통합된 이후 모든 궁중의 음악과 무용 행정을 담당한 국립음악기관이다. 1895년(고종 23) 정부기구 개편 때까지 존속하였다. 그 뒤 유명무실하다가 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에 국립국악원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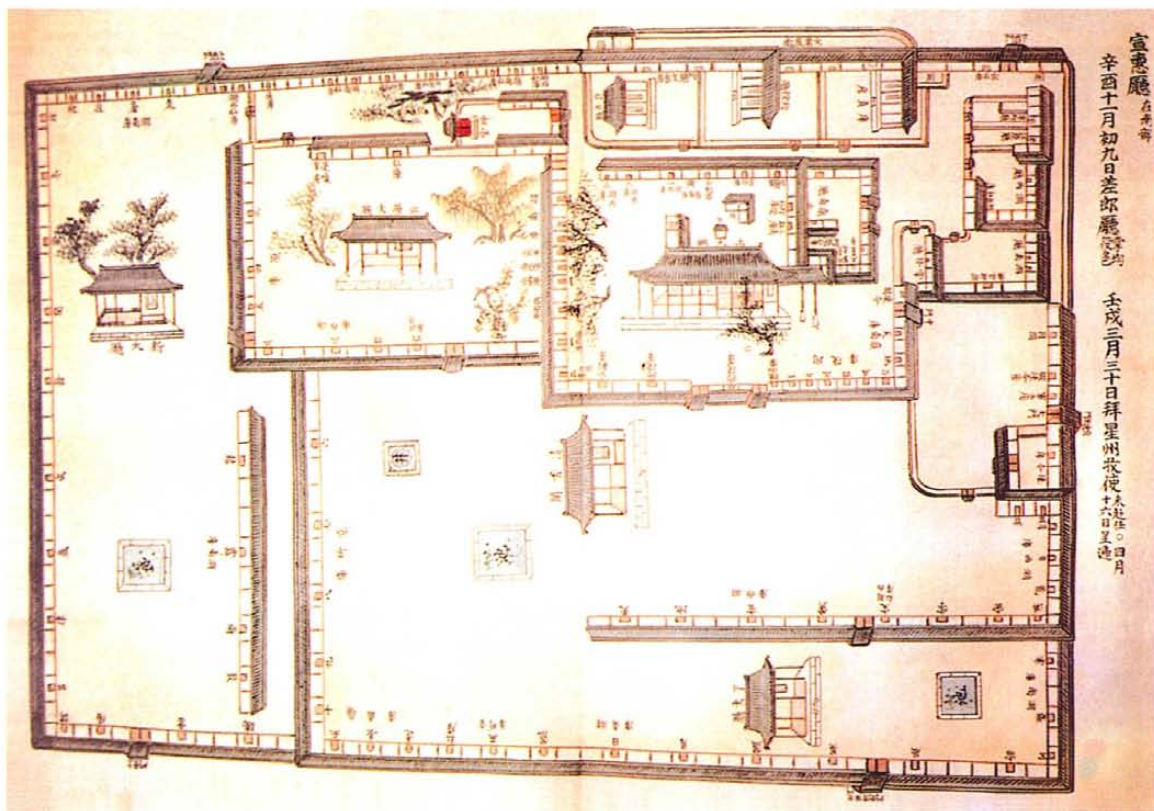
장악원에서는 종묘·사직 등의 제례의식과 조회의식에 음악을 제공하거나 궁중의 여러 가지 잔치와 외국사신 접대 때 음악을 제공하였다. 원래 위치는 한성부 서부에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된 후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이곳은 『한경지략(漢京識略)』에 따르면 풍수설에 터가 불길하므로 음악으로 사람들을 달랜 곳이라고 한다. 조선시대 때 악공은 941명에서 양란 이후 641명으로 줄이고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전국에서 보충하였다.

그러나 장악원은 연산군 때 향락기구로 전락하기도 했고, 임오군란 이후에는 일본군 1대대가 주둔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관아가 그러하듯이 장악원이 있었던 자리에는 일제 때는 동양척식회사가 들어섰고, 광복 후에는 신한공사, 국방부, 내무부가 들어서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궁중의 진찬·진연 때마다 음악과 무용을 제공하였던 장악원의 활동사항은 『진연의궤(進宴儀軌)』, 『진찬의궤(進饌儀軌)』 등의 문헌에 자세히 전하고 있다.

선혜청터

중구 남창동 284번지 일대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관아 선혜청(宣惠廳)은 인경궁터에 있었던 것으로 고지도에 나타난다. 선혜청이란 임진왜란 이후 1608년(광해군 원년)에 대동법을 선혜법이란 이름으로 경기도에 처음 시행하면서 얻은 이름이다. 특히 선혜청은 대동법의 실시로 대동미는 물론 균역법에 의한 군관포와 결막미 및 어·염·선세의 출납을 맡아보던 재정기관이었다.

선혜청이 처음 설치될 때에는 물가조절과 진휼을 담당하는 상평창의 업무와 경기도의 대동미를 취급하였으나 1652년(효종 3)에 충청도·강원도의 대동미까지 관장하다가 각 도의 대동미를 출납하게 되면서 조선 후기 세입의 대부분을 관장, 호조를 능가하는 새로운 재정기관이 되었다. 즉 비변사에서 관장하는 진휼청은



1861년에 제작된 「선혜청도」

1626년(인조 4)에, 균역법의 시행으로 설치된 균역청도 1753년(영조 29)에 선혜청에 소속되었다.

효종 때 선혜청의 책임자는 영의정 등 세 정승이었으나 기구가 확대되면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당상을 두었다. 선혜청은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동미의 출납을 위하여 용산에 별창을 두었는데 북창은 삼청동에, 동창은 이진의 장용영에 두었으며 갑오개혁 때까지 존속하였다. 한편 선혜청의 창고가 있어 창동이라는 동명이 생겨났는데 그 북쪽은 북창동, 그 남쪽은 남창동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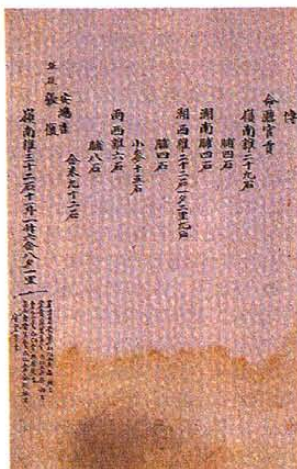
균역청터

현 퇴계로의 큰길로 들어간 중구 남학동 1번지와 12번지 일대에는 조선 후기 1750년(영조 26)에 창설된 병역세를 관장하던 관아인 균역청(均役廳)이 있었다

곳이다. 영조 때에는 양민들이 부담해오던 균역이 과중하다고 여겨 그 대책으로 매년 벼 2필씩을 내던 것을 1필로 줄이고, 대신 부족한 재정은 어업과 제염에 대한 부가세인 어·염·선세와 징집대상자에게 부과하던 세금인 선무군관포 외에 군량미 조달을 위해 공미에 덧붙여 받던 결작의 징수로 보충하고, 해당 관청에 대한 급대를 총괄하기 위해 옛날의 수어청 자리에 균역청 청사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양민들의 부담이 반감되어 종래까지 왕권을 견제하던 신권을 억누르는 계기를 만들고 국가재정의 균형을 바로잡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 경비의 절약책으로 2년 뒤인 1753년(영조 29)에 균역청은 선혜청에 합병되었다. 대체로 영조 때 균역청의 1년 수입은 돈으로 환산하여 약 60만냥이 되었으므로 호조의 1년 예산을 웃돌았다.

조선 임오군란(1882) 때는 급료를 받지 못한 구식 군인들이 선혜청 당상 민검호의 집을 습격하여 선혜청 창고로 사용되었던 전 균역청에 몰려들어 쌓여있던 곡식을 분배하기도 하였다. 균역청 자리는 일본인 교육을 위해 히노데(日出)소학교가 세워졌다가 광복 후 일신국민학교로 변경되었는데 학생수의 감소로 폐교되고 현재는 극동빌딩이 들어서 있다. 주자소 표석이 바로 옆에 있다. 한편, 『균역청등록(均役廳謄錄)』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는 균역청에서 논의된 제반사항이나 왕복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균역청등록』

주자소터

중구 주자동 4-7번지 일대에는 조선시대에 활자를 주조하여 책을 인쇄하던 관아인 주자소(鑄字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자동이란 동명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고려시대 서적원을 이어받아 조선조 1403년(태종 3), 왕명에 의해 승정원 직속으로 주자소를 설치하여 궁궐 내의 교서관을 내관, 주자소를 외관이라 하였다. 이 해 2월부터 수개월 동안 '계미자(癸未字)' 약 10만 개의 활자를 주조하여 책을 인쇄하였다. 조선의 수도가 1405년(태종 5) 개성에서 한양으로 다시 천도하면서 이곳 주자동에 주자소를 두었다가 1436년(세종 17)에는 경복궁 내로 이전하였는데 1460년(세조 6)에 교서관을 병합시켰다

그 뒤 1794년(정조 18)에는 이곳에서 '정리지(整理字)'로 큰 활자 19만 자와 작은 활자 14만 자를 구리로 주조하였다. 1857년(철종 8) 화재로 '정유자(丁酉字)'



남학당터 표석



서학당터 표석

등의 활자가 불타버리자 그 이듬해에 ‘한구자(韓構字)’, ‘정리자’를 다시 주조하였다. 지금도 충무로 일대에 인쇄소와 출판사가 많은 것은 주자소가 있었던 오랜 전통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

사부학당

조선시대의 중등 중앙관립 교육기관을 사학(四學)이라고 하는데, 동부·서부·남부·중부학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1261년(고려 원종 2)에 동·서학당을 설치하여 가르치다가 유교가 성하게 되면서 오부학당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것을 조선이 계승하여 오부로 나누고 오부학당을 설치했다.

초기에는 건물이 없이 사찰을 빌려 사용하기도 했는데 동부학당은 순천사, 서부학당은 미륵사를 빌려서 썼다. 1411년(태종 11)에 이후 한성부 남부 성명방에 독립학당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차츰 독립학사를 마련하게 되었다. 사부학당은 성균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교육 정도도 낮았으나 방법이나 내용은 유사했고, 성균관 부속학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부학당(四部學堂)은 성균관에서 교관을 파견하고 학당의 잡무를 처리하는 서리는 물론 노비까지도 관리해 주었다. 학생들의 성적은 학당에서 5일마다 시험을 치르고 예조에서는 매월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여 1년의 성적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국가에서는 학생교육을 위해 학전·노비·잡물을 내리고, 전라북도의 여러 섬의 어장을 주어 교육비에 충당하게 하였다.

이곳에서는 8세 이상의 양반과 서인의 자제를 대상으로 『소학(小學)』과 『사서오경(四書五經)』을 가르쳤다. 임진왜란 이후 소실된 것을 재건하였으나 학생수가

줄어들어 유명무실해졌다. 사부학당은 중국에는 없었던 제도로 고려말 유학진흥을 위한 현실적 요구에서 시작되었고 행정단위로 학당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인재를 양성했는데 중등교육을 담당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서학당터

중구 태평로 1가 60일대는 서학당(西學堂)이 있던 자리다. 조선이 건국이 되면서 1400년(정종 2) 수도가 개성으로 이전되었을 때 동학당과 서학당이 설치되었는데 학당건물을 갖추지 못해 임시로 미륵사 건물을 빌려 썼다가 승려들과 여러 번 충돌하기도 했다. 그 후 한양 천도 후 한성부 북쪽의 경고(京庫)를 사용하다가 1435년(세종 17)에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임진왜란 때 서학당 건물이 소실되었는데 1607년(선조 40) 9월에 중건되어 1894년(고종 31)까지 존속하였다. 이 부근의 고개를 서학재라고 불렀다.

도화서터

서울시 중구 수하동 64번지 동국제강 옆에 자리했던 도화서(圖畫署)는 조선시대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관청이었다. 고려시대에도 그림을 그리는 관청인 도화원이 화국(畵國)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었다. 조선이 고려의 직제와 명칭을 계승하였고, 1464년(세조 10)까지 고려시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선 초기의 도화원은 고려시대의 것을 계승한 것이다. 1471년(성종 2)에 명칭이 도화원에서 도화서로 개칭되면서 신분도 5품에서 6품으로 격하되는 등 지위하락을 겪기도 하였다. 도화서는 예조에 소속되어 있으며, 시험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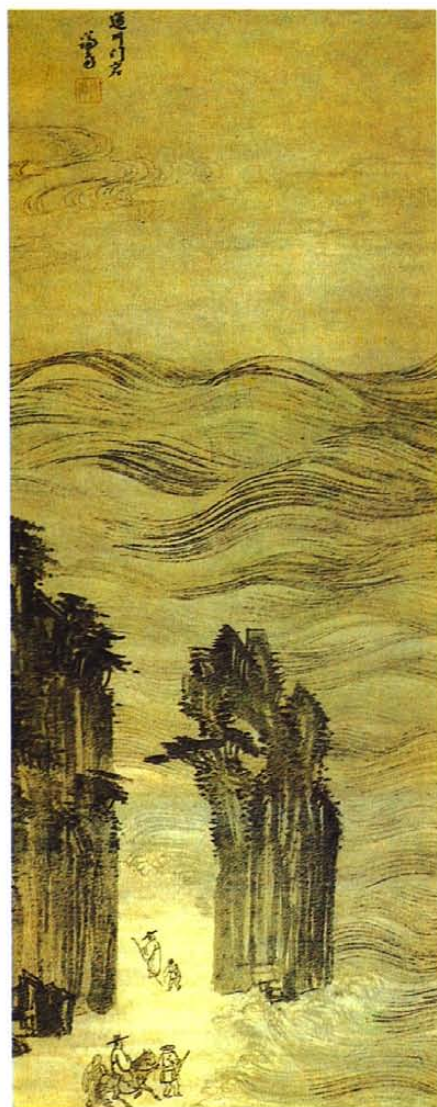
도화서가 비록 왕실·사대부 등의 요청으로 회화작업을 하는 관청이기는 하였으나 국가가 제도적으로 화가를 양성하고 보호하는 토대를 마련한 곳이어서 여기서 화원들은 그들의 회화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화서는 한국적 화풍을 형성하고 그 업적을 이어나가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 기관이다. 이곳 출신의 대표적인 화가로는 안견(安堅), 강희안(姜希顔), 정선(鄭愼), 김홍도(金弘道), 신윤복(申潤福) 등이 있다. 이들은 격조 높은 한국적 화풍을 성취하고 후대의 회화발전을 위한 토대를 굳건히 하였다.



장승업의 「수탉」



김홍도의 「기노세련계도」



정선의 「통천문암」



신윤복의 「미인도」

남학당터

현재의 중구 필동 1가 30번지에 자리하고 있었던 남학당(南學堂)은 1411년(태종 11년) 6월에 예조참의 허조의 건의로 독립건물을 건축하여 9월에 완성했다. 남학당은 오부학당 중에서는 최초의 독립학당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419년(세종 1)에는 개성에서 폐사의 목재와 기와를 옮겨와 남학당의 동서재를 중축하였다. 1445년(세종 27) 이후 북부학당이 폐지되자 오부학당이란 표현 대신 사부학당이라고 나타난다. 교육체제나 유지방법은 다른 학당과 같이 성균관 소속이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10년(광해군 2) 이후에 중건한 것으로 1894년까지 존속하였다. 남학당의 옛터에서는 일제 때에도 남아 있어 깨진 기와조각이나 주춧돌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은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4번 출입구 앞에 표석으로 남아 있다.

동학당터

종로구 종로 6가 121번지에는 동학당(東學堂)이 있었다. 세종 때 여진의 사신이 머물던 북평관이 설립되자 동학은 동쪽으로 옮겨져 이대부속병원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 동학당도 다른 사부학당과 체제는 같다.

중학당터

현재 종로구 중학동 88번지에 자리잡고 있었던 중학당(中學堂)은 조선시대 중등교육기관의 하나인 중부학당이다. 지금도 중학동이란 동명과 중학천이라는 개천의 이름이 남아 있다. 중학당은 1411년(태종 11) 11월에 오부학당을 설치함에 따라 마련되어 남부학당의 건물을 빌려쓰다가 1432년(세종 4) 12월에 비로소 독립된 학당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북부학당의 학생수가 줄어들자 폐지하여 중학당에 합쳐졌다. 임진왜란으로 사부학당은 소실되었지만 국가 재정상 복구가 용이하지 않아 1601년(선조 34)에 정도전(鄭道傳)의 집터에 중학당을 중건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학생수가 격감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조선 말기에는 관학이 부진하고 신교육기관이 설립되면서 소멸되었다.



한성부 청사

한성부 서부 관아터 · 남부 관아터

서울 중구 무교동 70번지 현대종합금융빌딩 정문 우측에는 조선시대 내내 서울 서쪽지역의 주민행정을 담당하던 관아인 한성부 서부(西部) 관아가 있었다. 또한 중구 을지로 1가 140번지에는 서울 남쪽지역의 주민행정을 담당하던 관아인 한성부 남부(南部) 관아가 있었다. 이 관청들은 오늘날의 서울시 각 구청과 같은 기능을 하였다.

사축서터

조선시대에 짐승을 기르는 사축서(司畜署)는 현재의 중구 북창동에 있었는데 고려시대의 전구서(典廩署)를 계승한 것으로 조선 건국 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1406년(태종 6)에 사축소(司畜所)라고 하였다가, 1466년(세조 12)에 비로소 사축서로 기본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그 후 1637년(인조 15)에 전생서(典牲署)로 합병되었다가 다시 설치되었다.

그러다가 1746년(영조 22) 『속대전(續大典)』에 의거하여 기구가 축소되어 제조



『사축서사목』

를 호조판서가 겸임하고, 사축 1인은 감원하였으며 별제 2인을 두어 서리는 서원으로 격하되었다. 1767년에는 아주 호조에 합병되어 호조낭청 1인이 관리토록 하였다. 1865년(고종 2)에 다시 정비되었으나 1894년 갑오개혁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

사축서의 위치는 원래 송례문(남대문) 밖에 있었으나 미동으로 옮겨졌다. 여기서는 돼지·양·염소·거위·오리 등의 가축을 길러 궁중의 여러 행사에 쓰이도록 하였다. 사축서의 사료 확보를 위해 국초부터 곡초·생초를 경기지방에서 공물을 받아 충당하였다. 그러나 수령들이 임의로 백성에게 과다하게 부과하는 폐단이 자주 일어나자, 수량을 감하고 대동법 실시 이후에는 축료를 호조와 선혜청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축서의 업무나 제반절차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사축서사목(司畜署事目)』이라는 책이 있는데, 직원과 사공의 급료, 건물 보수비 등 재산관리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나, 왕실 및 관수용 육류의 용도, 연회의 종류와 육류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외국 사신들의 유숙처

국력에 따라 대우도 달랐던 대사관

태평관터

서소문 120-23번지 동방생명 빌딩 뒤, 한국주택은행 서소문지점 자리에는 조선 초에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고 유숙하게 하던 영빈관으로 태평관(太平館)이 있었다. 1395년(태조 4)에 각 도의 인부 1천 명을 동원하여 세웠다. 이 누각에 오르면 서울 장안의 경치가 한눈에 들어왔으므로 명나라 사신들은 으레 이곳에 올라 시부(詩賦)를 지었다. 이 태평관의 건물은 인조 때 헐려 홍제원을 보수했다고 김정호가 쓴 『대동지지(大東地志)』에 기록되어 있다. 이곳은 사신들이 유숙하게 됨에 따라 이곳에서 중국 사신이 가져온 중국 황제의 고명(誥命)이나 금인(金印)을 받는 의식이 거행되기도 하고, 가례를 올리던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태평관에 중국 사신이 오면 그 뒤쪽에는 태평관후시라는 시장이 섰다. 즉 중국 사신을 따라온 일행들이 가지고 온 진귀한 물건과 우리나라 토산품의 물물교환을 하는 사무역이 이곳에서 행해졌다.

남별궁지

중구 소공동 87번지 조선폰텔 자리에는 조선 후기에 중국 사신이 유숙하던 남별궁(南別宮)이 있었다. 조선시대 별궁의 하나인 남별궁은 원래 태종의 차녀인 경

정공주가 조대림에게 출가하여 거주하던 저택이어서 소공주택으로 부르던 것이 이 일대를 소공동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1583년(선조 16)에 왕은 이 집을 크게 수리하여 3남 의안군에게 주었으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왜장 우키타의 주둔지가 되었다. 이듬해 명나라군이 남쪽으로 내려오자 이어송이 머무르게 되었고, 이 뒤로 선조가 환도하자 이곳에서 나가 명나라 장수들과 관원을 접견하고 요담하게 되자 남별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뒤에는 남별궁은 명·청의 사신을 접견하던 자리로 사용되었다. 1778년(정조 2)에 빈객 접대와 연향 등을 맡아보던 예빈시(禮賓寺)를 이 궁안으로 이전하였다. 1897년에는 이곳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광무황제가 하늘에 고한 원구단이 설치되었으나, 일제가 이를 헐고 그 자리에 철도호텔을 세웠다. 철도호텔은 오늘날의 조선포털의 전신이다.

동평관터

인현동 2가 192번지에는 조선시대 때 일본의 사신이 머물던 숙소인 동평관(東平館)이 있었다. 일명 왜관(倭館)이라고 부르던 이곳은 조선 초부터 일본 사신의 내왕이 있자 1407년(태종 7)에 이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1434년(세종 16)에는 동평관을 위시하여 서평관 및 묵사에 일본 사신을 머물게 한 바 이들이 국가에서 금한 물건을 사고 파는 밀수행위를 하였으므로 동관과 서관을 합하여 1관으로 하고 사면에는 담장을 높이 쌓아 문을 엄중하게 지키면서 잠상(潛商)의 출입을 단속하였다. 4년 뒤에는 감호관을 두었다. 동평관에는 관사와 창고를 설치하여 그릇과 미곡을 저장하고 일본 사신과 객인을 접대하였다. 1445년(세종 27)에는 동평관에 머물던 왜인들이 몰래 담을 넘어 민가에 들어가 행패하는 자가 생겨 의금부에서 체포한 일도 있었고, 삼포왜란 때에도 10명을 감금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왜인들이 일으킨 폐단이 많았다. 임진왜란 때 동평관이 불타버렸으므로 그 후 일본 사신의 상경을 제재하면서 폐쇄되었다.



도성방비를 위한 군사기지

국방을 약속하는 군사기지과 시설들

훈련원터

훈련원(訓練院)은 1392년(태조 1)에서 1894년(고종 31) 군사의 무예훈련, 병법 교습과 무과 과거시험을 맡던 관아이다. 훈련원은 중구 을지로 6가와 방산동에 걸쳐 있었다.

1917년 6월까지도 훈련원이라고 쓴 현판이 기와집에 달려 있었는데, 이곳에 국민학교를 신축하면서 기와집은 간호부양 성소의 건물로 고쳐졌다. 조선 건국 초에는 훈련관(訓練官)이라고 하였으나 1466년(세조 12)에 훈련원으로 바뀌었다. 훈련원에는 중요한 업무의 하나인 무과 시험을 주관했는데 서울에서 초시에 합격한 70명과 각 도에서 뽑힌 120명을 합한 190명을 병조와 함께 복시를 치러 28명을 선발하고 최종적으로 전시를 보아 등수를 정하였다. 이곳은 시험을 보면서 다리를 다쳤다는 충무공의 일화가 유명하다.

조선 말 1907년에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훈련원이 폐지되고 군대해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해 8월 1일 모든 한국군을 비무장으로 훈련원에 집합하게 하였다. 그



1907년 정미의병운동이 시작된 훈련원

러자 이를 분개한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 박승환 대대장이 자결함에 장병들이 무장하여 일본군과 총격전을 벌인 항일운동이 전개되었다.

분호조터

분호조(分戶曹)는 남별궁 옆에 있었으며, 조선호텔 동쪽 옆에 있던 호조의 분실이다. 조선 광해군 때 세금을 줄이고 무슨 쓸 일이 생기면 그때 임시로 서민에게 그 비용을 내게 하였는데 이항복(李恒福)과 이덕형(李德馨)이 분호조를 이곳에 설치하여 명나라 사신이 오면 접대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어서 편리하게 하였다.

군기시터

군기시(軍器寺)는 옛 지도에서 보면 명례방과 남별궁 사이에 있었다. 지금의 서울시청과 프레스센터 자리에 있었으며 조선시대 때 병기와 기치, 용장, 집물 등을 제조하던 관아가 바로 군기시다. 1392년(태조 1)에 군기감(軍器監)이 설치되었다가 1466년(세조 12)에 군기시로 고쳐졌다. 고려 말기에 화약·화포의 제조로 왜구 소탕에 공이 많은 최무선이 조선 건국 후 책임자였고, 아들 최해산이 부정(副正)이 되어 군기감의 청사를 건립하였다.

군기시는 1417년(태종 17)에 여러 건물을 증축하여 화약·활·화포를 제작하고 장치하는 곳으로 유명하였다. 군기시에는 화약을 다루는 기술자인 화약장이 배속되어 있었고, 화기를 전담하는 10여 명의 관원을 두었는데 이들은 양반 자제 중에서 기술이 정교하고 무재에 뛰어난 자를 뽑았다. 군기시에 예속된 화약고는 소격서(현재 화동 24번지)에 있었다. 그런데 1884년(고종 21)에 군기시는 기능을 상실하여 기기국에 통합되고 10년 뒤인 고종 31년에 폐지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군기시 앞에 군기시다리(무교)가 있었고, 이곳에서는 국가반역죄 등 중죄를 지은 죄인을 공개 처형하기도 했다.

무교터

중구 무교동 32번지 체육회관 앞에 있는 무교(武橋)터는 체육회관 1층 동해수산 앞에 표석이 설치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군장비를 관장한 군기시 앞에 놓여 있

던 군기시다리로 일명 무교가 있었던 자리이다. 이 주변에 다리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나, 19세기 후반에 그려진 「수선전도(首善全圖)」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호위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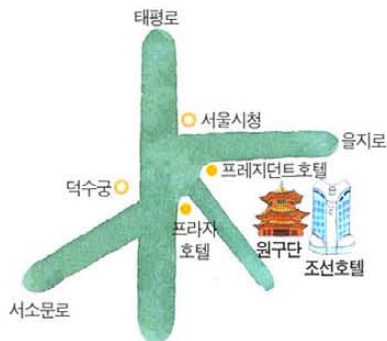
중구 남산동 2가 2번지에 자리하고 있는 호위청(扈衛廳)은 조선 후기에 궁중을 호위하기 위하여 설치된 군영으로, 1623년 인조반정에 공이 있었던 김류(金瑬)·이귀(李貴) 등의 훈신들이 숙위가 소홀하다고 하여, 반정 직후에 군영의 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정공신들이 자신의 군사적 세력기반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고 왕권을 견제하는 구실로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1778년(정조 2)에 정조가 왕권 호위기반으로 숙위소 등을 설치하면서 호위청을 축소하였고, 사실상 왕권호위의 친위체제로 변형시켰다. 1881년(고종 18)에 한번 더 개편되었고, 1894년 군제개편을 통해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외에도 화약을 제조, 관리하던 염초청은 지금의 방산동시장 안에 있었으며, 하도감(下都監)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병영터가 있는데 390칸이나 되었다고 하며 현재의 동대문운동장 야구장 자리이다. 염초청은 화약을 만들어 훈련원이나 하도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 곳이다.



하늘에 제사드리던 곳, 원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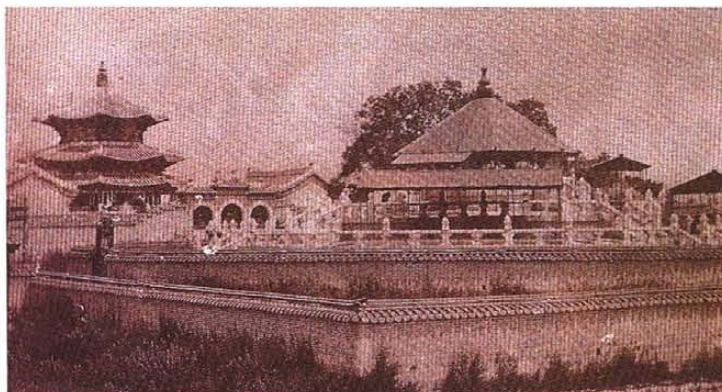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천단



서울시 중구 소공동 87-1번지에 위치한 원구단(圓丘壇, 사적 제157호)은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천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단을 원형으로 쌓았다.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983년(성종 2) 정월에 원구단에서 풍년기원제를 지냈으며, 조선시대에도 계승이 되어 1398년(태조 7)에도 제를 올렸고, 세조 때에도 원구단을 쌓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때부터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천자가 아닌 제후국으로 하늘에 제를 지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여 제천단을 폐하였기 때문이다.

1897년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하면서 연호를 건양(建陽)에서 광무(光武)로 고치고 천지와 종묘 사직에 고하기 위하여 남별궁자리에 원구단을 만들어 황제즉위 제사를 지내면서 완전한 제사의식을 갖추게 되었다. 원구단에는 황천상제(皇天上帝)를 비롯하여 황지지(皇地祇), 대명(大明), 야명(夜明), 별과 산천 기타 여러 신위를 모셨다.

1899년에는 원구단 뒷편에 황궁우(皇穹宇)를 세워 신위판에 봉안하면서 태조를 태조고황제로 추존하여 배천(配天-하늘과 같은 것으로 등급을 격상시킴)하였다. 1913년 일본이 원구단 자리에 철도호텔을 세웠으며, 그 후 조선호텔이 되었다. 지금은 황궁우와 석고만이 남아 있어, 황제의 위용을 떨치고자 하였던 고종의 의도를 기록에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해운퇴기 전의
원구단 모습



황궁우(앞)
황궁우 계단(바로 아래)
석고(石鼓)(맨 아래)





한일 독립운동 전적지

식민지 한복판에 펼쳐진 민초들의 투쟁기

강우규의사 항일의거 자리



강우규의사

현 서울역 남쪽(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에는 남대문역이 있었다. 이 역은 1905년 5월 경부선 철도가 개통될 때 15평의 작은 역으로 세워져 1925년까지의 서울의 관문역할을 하였다. 3·1운동이 계속 진행되던 1919년 9월 2일, 만주로부터 국내에 잠입한 강우규(姜宇奎, 1885~1920)의사는 남대문역을 통해 부임하는 사이토(齋藤實)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하였다.

강우규는 평안남도 덕천 출신으로 일찍 부모를 여의고 누님의 집에서 자라면서 서당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30세에 함경남도 흥원군으로 이주하여 한방 의술로 사람을 고쳐주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한일합방으로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자 1911년 북간도로 망명하여 조선인들을 모아 신흥촌을 건설하고 광동학교와 교회를 세웠다.

그러다가 강우규는 조국에서 3·1독립운동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 광동학교에서 독립선언과 만세시위를 진행하였다. 그는 국내에 들어가서 일본 요인을 없애기로 결심한 뒤 러시아인으로부터 수류탄 1개를 구입하여 원산을 거쳐 1919년 8월 서울에 잠입하였다. 일본에서 사이토 총독이 9월 2일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사계획을 치른 뒤 남대문역으로 나가서 그를 기다렸다. 엄중한 경계 속에서 환영행사를 치르고 마차에 오르는 사이도 총독에게 그는 수류탄을 던졌으나 실패하여 수행원, 경찰, 신문기자 등 37명의 사상자가 났다.

강우규 의사는 의거 후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와 은거하다가 9월 17일 체포되었다. 1920년 5월 27일 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이해 11월 29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그의 유해는 당시의 은평면 공동묘지에 묻혔다가 이후 우이동으로 이장하였으며 지금은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치되어 있다.

정미의병 발원터

중구 서소문동 58-17번지에는 정미의병(丁未義兵) 발원터가 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1907년 정미 7조약이 체결되면서 군대가 해산되었다. 이에 분격한 박승환 대대장이 자결하자 시위보병 장병들이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의병투쟁을 격화시킨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이곳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선무사가 있었던 곳으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 형개와 양호를 제향한 사당이다. 1903년 선무사가 폐지되고 그곳에 시위보병 제1연대 1대대를 주둔시켰다. 일본이 헤이그특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킨 후 정미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모든 권력을 탈취하였다. 1907년 7월 31일 일제는 정미 7조약에 따라 정부와 고종에게 군대해산령을 내리게 하였다.

대대장 박승환(朴昇煥)은 군대해산식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교관으로 와있던 일본 대위가 제1대대를 정렬시켜 훈련원으로 인솔하려 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대한제국 만세”를 크게 외치고 권총으로 자결했다. 이에 장병들이 호응하여 분연히 떨기하였고 탄약고를 깨뜨려 무장하고 밖으로 진출하자 인근 부대도 이에 호응하였다. 이들은 남대문을 중심으로 일본군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으나, 기관총 등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는 적수가 되지 못하고 많은 사상자와 포로를 내고 진압되었다. 서울시위대의 항일전투 소식은 각 지방에서도 해산 군인들의 붐기로 이어졌고, 이들은 각각 의병에 가담하여 의병항일전의 주축이 되었다.



나석주의사 동상



동양척식회사 전경

나석주의사 의거기념터

중구 을지로 2가 181번지 외환은행 본점 자리는 나석주(羅錫疇, 1892~1926)의 사가 1926년 12월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일본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자결한 곳이다.

나석주는 황해도 재령 출신으로 1910년 일제가 우리의 주권을 강탈하자 23세에 만주로 건너가 무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국내로 잠입해 3·1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20년 황해도에서 비밀항일결사를 조직하여 활동하기도 하고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하였다. 1926년에는 의열단에 입단하였다. 나석주는 조선 경제침략의 총본산인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위시하여 조선은행·조선식산은행을 폭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에 김창숙·유우근·한봉근·이승훈 등과 거사계획을 세웠다. 1926년 12월 26일 서울에 들어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실패한 후,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들어가 권총으로 일본인 직원 3명을 사살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힌 다음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불발하였다. 이에 일본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소지하던 권총으로 자결하였다.

3·1독립운동기념터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0번지 한국은행 앞은 3·1 독립만세 시위대가 일제 헌병·경찰과 격돌하여 200여 명의 부상자를 낸 곳이다.



신식 문물의 박람회장

고전 간행·화폐주조·서양식 병원들

광문회관터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는 한국의 고전을 간행한 출판사와 같은 단체로서 고전문헌의 보급을 위해 발족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제가 서적이나 국보급 문화재를 반출해가자 이에 경악하여 최남선(崔南善)·박은식(朴殷植) 등이 조직하였고, 고전을 간행하고 귀중 문서를 수집·편찬·개간을 통해 이를 보전하기 위함이었다.

조선광문회는 고문헌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인쇄하고 싼 가격에 배포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1차로 역사서, 지리서, 국어학서, 고전 등을 간행하였다. 이때 간행된 것이 『동국통감』·『삼국유사』·『택리지』·『동국세시기』·『훈몽자회』·『용비어천가』·『산림경제』·『지봉유설』·『성호사설』·『열하일기』·『울곡전서』·『이충무공전서』 등이다. 처음에는 180여 종의 고전간행 계획을 세웠으나 20종 밖에 간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주시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을 편찬하려다가 여의치 않아 1927년 원고를 계명구락부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조선광문회의 활동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 고전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려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광문회관은 서울시 사법서사회관 옆(중구 삼각동 7-1)에 외로이 표석으로 남아 있다.



광문회관 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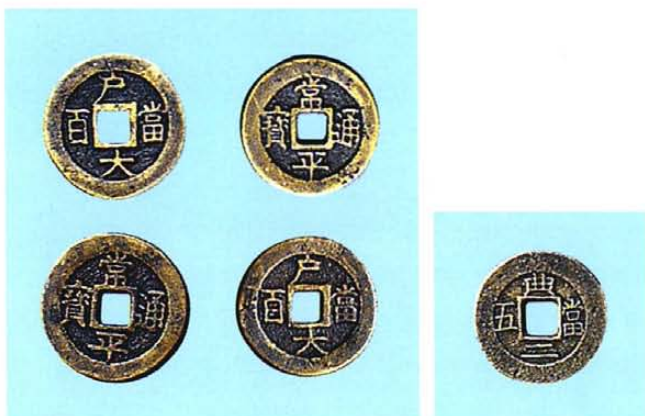
전환국의 옛 모습

전환국터

중구 남대문로 삼성플라자 광장에는 1885년(고종 22)부터 1898년(광무 2)까지 근대식 백동전을 찍어내던 관아인 전환국(典園局)이 있었다. 조선 후기부터 화폐 주조는 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관리, 운영했다. 그러나 민비가 집권한 이후 급증하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지방관청 등에서 화폐를 남발하였다. 이를 통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서양과의 무역에 있어서 적잖은 피해를 보게 되자, 조선정부는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근대 화폐를 주조할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1883년(고종 20)부터 당오전을 발행하던 임시 주전소가 있었으나 조선정부는 이곳에서 충분한 화폐를 주조할 수 없다고 여겨, 상설조폐기관인 전환국을 설치하고 근대식 주화 기계를 도입하여 새로운 화폐를 다량으로 발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1884년 선혜청 별창 자리에 전환국을 짓고 독일의 기술자 세 사람과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여 1885년(고종 22)부터 화폐를 주조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조선의 화폐권 침해 의도로 1892년(고종 29)에 인천으로 옮겨 은화와 백동화 등 5종의 화폐를 주조하게 되고 1894년에야 비로소 통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인천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 15종의 화폐를 시범적으로 발행하는 것에 그치게 되었다. 경인철도 개통으로 원료의 용이한 운반과 러시아 간섭으로 인한 일본세력이 약화되고 독립사상이 팽배함에 따라 1900년(광무 4)에 인천에



당백전과 상평통보

당오전

있었던 전환국이 용산의 군자감 강감터로 이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악화가 발행되면서 금융질서가 어지럽게 되어 국내 통화량이 급등하여 화폐가치가 폭락하고, 일본도 심각한 위협을 느껴 화폐개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당시 재정고문이었던 메카다(目賀田種太郎)는 백동화를 남발하는 전환국의 폐지를 건의하였고, 이에 조선정부는 전환국의 폐지안을 승인하였다. 결국에는 조선 화폐에 대한 지배권조차도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혜민서터

을지로 2가 외환은행 본점 동쪽에는 조선시대 의약과 서민을 치료하는 것 외에 여의사를 교육하던 관아인 혜민서(惠民署)가 있었다. 혜민서는 고려 때 혜민국을 계승하여 조선에서도 설치되었는데 1466년(세조 12)에 이와 같은 명칭으로 확정되었다.

한양천도 후에 서울성곽을 쌓을 때 동원된 민정들 가운데 부상자가 나타나고 전염병으로 환자가 발생하자 혜민국에서 이들을 치료하였다. 혜민서에서는 기생 중에서 70명의 영리한 자를 선발하여 '약방기생'으로 삼고 의술을 교육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엄격한 내외로 궁중의 비빈, 궁녀 및 정경부인들이 병에 걸려도 남자의 의사가 진찰을 할 수 없었으므로 약방기생들이 이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혜민서는 1637년(인조 15)에 전의감에 병합되기도 하였으나,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었다. 3년 뒤 1885년(고종 22)에 의정부의 건의로 혜민서와 활인서 두



제중원의 간호원이 부인환자를 진찰하는 모습

관아의 사업을 수행할 광혜원을 새로 설치하였다가 제중원으로 개칭하였다. 1905년 7월 8일 고종은 헤민서와 활인서의 역할을 담당할 대한적십자사병원의 설립을 명하고 이곳에서 서민의 병을 치료하게 하였다.

제중원터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번지 외환은행 본점 뒤의 제중원(濟衆院)터는 원래 홍영식의 집이었다. 1885년(고종 22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인 왕립 광혜원이 미국 선교의사 알렌에 의해 재동의 헌법재판소 자리에 세워진 후 4월 23일에 제중원으로 개칭되었는데 1887년 재동에서 이곳으로 옮겨왔다. 즉 고종은 광혜원이 백성들의 치료에 공이 크다고 하여 제중원으로 고치고 기구를 확대한 것이다.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지자 제중원이 너무 비좁아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므로 1887년에 재동에서 이곳 구리개로 이전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해 내무아문에 속하게 된 제중원은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지원이 줄어들어 운영난에 빠졌으므로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로 운영이 넘겨졌다. 제중원은 1904년(광무 8) 9월에 미국인 세브란스의 재정지원으로 남대문 밖 용산구 도동에 현대식 병원을 세워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여기서도 황해

도와 평안도의 13~16세까지의 총명한 기생을 2~3명 뽑아 병설 여의원에서 의술을 익히게 했다.

세브란스 병원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번지 연세대 세브란스 빌딩 앞에는 세브란스(Severance) 병원의 표석이 세워져 있다. 조선 말 1908년에 세브란스 의학교와 병원이 위치했던 곳으로 기독교 지도자들과 학생측 대표자들이 1919년 3·1독립운동을 준비하던 곳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최초의 근대적 의학교육기관인 광혜원이 모태로 미국 선교사 알렌이 국가의 지원으로 설립한 것이다. 광혜원이 제증원으로 명칭이 바뀐 후부터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에서 운영을 맡아왔다. 1903년에는 간호원 양성소를 설치했으며, 1899년 미국의 세브란스의 기금으로 1904년 의학교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09년 7월에 제증원이 세브란스의학교로 개칭하고 1917년 5월 세브란스연합 의학전문학교로 인가를 받게 되었다. 1919년 3·1독립운동 때는 학생대표인 이용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기독교지도자들도 이곳에 모여서 독립운동을 논의하기도 했다.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 위기에 놓이자 아사히(旭)의학전문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광복 후에는 본래의 명칭을 되찾았고 1947년에 세브란스의과대학으로 개편되었다. 1957년에 연희대학교와 합병되어 현재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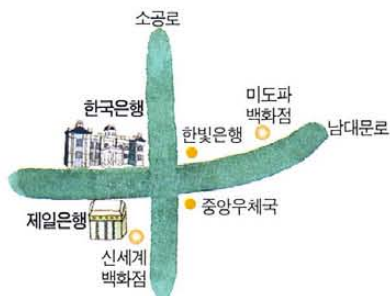


세브란스 병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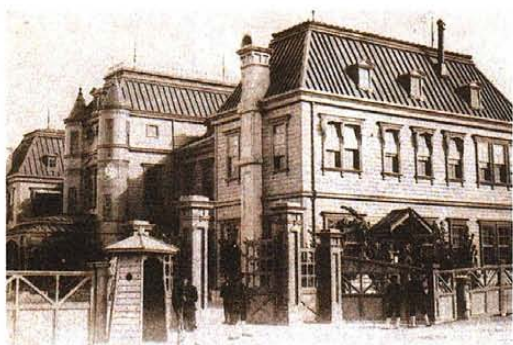


근대화, 외세침략의 교두보

식민지의 정치와 경제 수탈의 거점들



조선총독부



1920년대 남산 총독부 청사. 경복궁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사용했다.

현재의 소파길 서울예술대학 남쪽, 예장동 8번지는 조선통감부와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있던 자리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존속한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식민통치 및 수탈기관으로 경복궁 안에 지어지기 이전까지는 남산 아래에 있었다.

일제는 1904년 한일의정서로 군사적 거점을 강제로 점거하고, 1905년 소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하였으며, 초기 무관중심의 통치방식을 문관중심으로 바꾸어 1919년 문치를 표방하면서 통감정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조선민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군정보다 강력한 치안유지체제로 변화하게 된다.

방대해진 통감부 관료체제와 군대·헌병·경찰·헌병보조원 등 치안 기구가 확대되고 무관체제로 전환되면서 1910년 한일합방으로 총독부를 설치하여 한민족의 주권회복운동을 저지하려고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에 대한 일제 침략의 핵심기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조선총독부 건물은 1926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자리인 경복궁 근정전 앞에 석조건물로 건립하여 조선민족을 탄압하였다. 1995년 철거되기 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분수대 쪽에서 바라본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중구 남대문로 3가 110번지에 위치한 한국은행(韓國銀行, 사적 제280호)은 1896년에 김중환·이완용 등이 발기하여 설립한 조선은행에서 출발하였다. 1900년에 한국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영진도 새로이 구성하는 등 의욕을 보였으나 실패하였다. 다만 한국인 최초로 세워 경영한 근대적 은행이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었다.

조선은행은 일본에 의해 조선의 금융시장이 장악된 이후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1904년 10월 한국정부의 재정고문으로 부임해 온 메카다는 이듬해 1월 화폐조례를 통해 일본 화폐를 무제한 유통시켰으며, 일본 제일은행이 한국의 국고를 취급하게 하였고 화폐정리사업도 대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한국의 금융과 재정은 제도적·실질적으로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일본군은 서울 뿐만 아니라 함경도 및 변방에까지도 군사적·정치적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1909년 10월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을 설립했다가,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점하자마자 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개편하였다. 1917년에 오면 조선은행권이 만주에서도 통용되기에 이르렀고, 1929년에 조선은행이 설



경성우체국

치한 조선 내의 지점 및 출장소는 10개소에 이르렀다. 조선 외에 지점도 설립하였는데 주로 일본의 대륙침략과 같이 확장되었다. 만주에서의 영업에 치중하여 1937년 중일전쟁 당시에는 그 영역이 몽고와 화북 일대까지 확대되었다. 이처럼 조선은행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 그리고 대륙침략의 전개와 궤적을 같이 하면서 성장해간 전형적인 제국주의 금융기관이었다.

조선은행은 전형적인 르네상스양식의 석조건물로, 설계자는 일본인 다츠노 긴고(辰野金吾)로 1907년에 시작하여 1912년에 지어졌다. 해방 후 한국은행이 사용하였는데, 한국 전쟁 때 내부가 크게 손상되어 1956년에 임시로 복원하였다. 1987년 복원공사를 하였으며, 본관 2층에는 1990년부터 화폐박물관을 개관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소공동 일대는 산업은행(구식산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이 들어서면서 금융가를 형성하였다.

남대문로에 있던 조선은행의 일대는 한국 민중을 억압하고 수탈한 위에서 번영을 구가하는 식민지시대의 흥청거림이었다. 명동 일대를 조선은행 앞 광장이라고 했다고 한다. 『경성명소물어(京城名所物語)』라는 책에는 빨간색의 중앙우체국 건물과, 화강암으로 쌓아올린 장중한 영국풍의 조선은행 본점, 화강암 외장을 씌운 조선저축은행과 고딕장식을 한 미쓰코시 경성지점이 줄을 지어 있어서 이 일대는 서양식 건물들이 아름답게 늘어서 있었다고 한다.

구제일은행

구제일은행(舊第一銀行, 유형문화재 제71호)은 한국은행과 마주보고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바로 옆에 있다. 처음에 서민금융을 표방하고 설립된 민간은행으로서 광복 후에는 제일은행이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구제일은행은 1933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35년에 완공되었고 처음에는 조선저축은행으로 불리웠다. 일본인 히라바야시(平林 長)가 설계했다. 한국은행이 화려한 로마네스크양식을 하고 있다면, 마주보는 제일은행은 단아하면서도 단조로운 미를 보여주고 있다. 천장의 꽃모양을 한 석고부조가 무척이나 아름다운데 전체적으로 연한 노랑색으로 화



제일은행 제일지점(구제일은행)



경성부청(현재의 서울시청)

사하다. 한국전쟁 때도 피해를 입지 않아서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경성부청

현재의 서울시청 자리에 있었던 경성부청(京城府廳)은 일제 때 경성부의 행정을 담당했던 관청이었으며, 조선시대 때 한성부는 지금의 한국통신 빌딩 자리에 있었다. 경성부청은 일제 침략과정에서 명칭이 경성이사청·경성부청으로 바뀌고, 그 위상이 격하되어 경기도에 소속되기도 했다. 처음에는 신세계백화점과 구 제일은행 본점 자리에 일본공사관 건물인 2층 벽돌건물을 1910년부터 경성부청사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이전을 계획하던 중 현재의 시청자리가 일본 상업지구와 가깝고 지형이 높아 덕수궁이 내려다 보인다는 이유로 이곳으로 이전했다. 조선시대에 가장 크고 웅장한 건물인 궁궐을 내려다보면서 그 권위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이곳에 건립된 것이다. 이곳은 조선총독부와 경성역을 가로지르는 큰길 한가운데 있으며 경성 어디에서나 보이게 지어졌다.



광통관(구상업은행, 현재는 한빛은행 종로지점)

광통관(구상업은행)

중구 남대문로1가 19번지 구상업은행 건물에는 광통관(廣通館)이 있었다. 광통관은 1907년(융희 원년)에 재정고문에 의해 계획된 집회소이다. 신축사육이 필요했던 천일은행과 어음조합이 함께 건물을 신축하여 여러 회사들에 대여하게 된 것이다. 전체 234평의 이 건물은 1909년 5월에 건축된 벽돌 2층으로서 아래층에는 천일은행과 수형조합을 두고 2층에 광통관으로 회의실 등을 두었다.

15년 동안 사용하다가 본점이 이전된 후 1924년부터는 종로지점으로 개편되었다. 벽돌과 석재를 혼합하여 만든 이 건물은 정교하게 지어졌고, 절충주의 양식을 써서 전면을 화강석으로 아이오닉·오오더의 불임기둥으로 장식하였으며 중앙상부의 페디먼트와 처마 위의 석조난간 등도 화강석으로 다듬어 붙였다. 1914년 화재로 소실되자 수리 복구하여 1915년 완성하였다. 건물의 외형은 그대로이나 각 장식부, 개구부 등이 원형과 달리 변화가 많이 있다. 현재는 한빛은행 종로지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선열들의 숨결

선현들의 꿈과 생활의 그루터기

충무공 이순신 나신 곳



이순신 영정

명보극장 앞에는 충무공 이순신(忠武公 李舜臣) 탄생지라는 표석이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 마른내골로 불렸던 곳으로 충무공 이순신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려서부터 무인의 기질이 엿보였고 1576년(선조 9)에 무과에 급제한 후, 여진족의 침입을 격퇴하고 1591년(선조 24)에는 전라좌도 수군절제사로 임명되어 부임함과 동시에 철저히 훈련하고, 군비를 확충하여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포·함포의 해전, 6월의 당포·당항포 해전에서 승리하고, 7월에 한산도에서 왜선 40여 척을 격파하는 등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어 남해안 일대의 왜군을 소탕하였으므로 10월에는 3도 수군통제사를 겸하였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 원균(元均)의 모함으로 한때 통제사에서 파직되어 백의 종군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제사 원균의 수군이 거제에서 전멸하자 다시



『난중일기』

기용되어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과 맞서 31척을 격파하여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듬해 11월 안타깝게도 노량해전에서 퇴각하는 왜선 500여 척을 공격하다가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임진왜란 중 충무공이 해전에서 거둔 승리는 군량미의 조달처였던 호남을 왜군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고, 육지에서 왜군의 지속적인 북상을 저지한 결과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충무공은 해전의 승리로 제해권을 장악하여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했으며, 전쟁기록인 『난중일기(亂中日記)』를 남겨 당시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세종로 네거리에는 그를 기리는 동상이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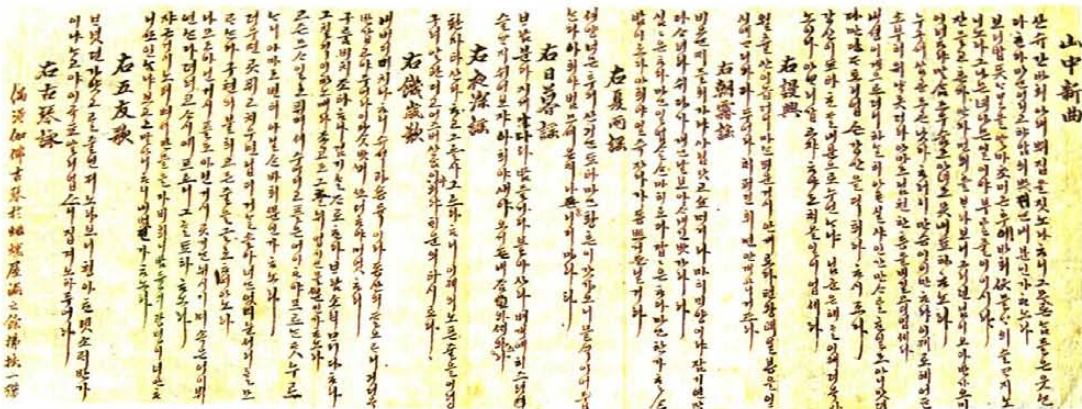
이덕형 집터

중구 남대문로 5가 526번지 대우재단 빌딩 정문 앞에는 이덕형(李德馨) 집터가 표석으로 남아 있다. 한음 이덕형(1561~1613)은 선조 때의 인물로 1580년(선조 13)에 문과에 급제하여 중앙에 진출했다. 그는 임진왜란 때에 왕을 호위하여 정주까지 갔으며, 청원사로 명나라에 가서 명군의 조선 파병을 성사시켰다. 이어 한성 판윤으로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을 접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유재란 때는 명군을 위무하는 한편 도성의 방어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왜란 이후에 이덕형은 민심을 수습하고 군대정비에 노력을 하였으며, 쓰시마(對馬島) 정벌을 건의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613년(광해군 5)에 영창대군의 처형과 인목대비 폐모론이 거론되자 이항복과 더불어 반대하다가 관직을 삭탈당하기도 하였다. 그는 만년에 도동과 경계가 되는 고개에서 거처하면서 경전을 낭송하였으므로 송경현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윤선도선생 집터

중구 명동 1가 1-3번지 한국증권금융 명동지점에는 윤선도(尹善道)선생의 집터가 표석으로 남아 있다. 윤선도는 조선 중기의 문신·시조작가로, 본관은 해남이며, 자는 약이·고산이다. 중구 명동성당 부근은 옛부터 명당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여기에 조선 인조 때 정치가이자, 문학의 대가인 고산 윤선도(1587~1671)가 살았다. 윤선도는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글을 좋아하였



윤선도의 「신중신곡」

다. 백부의 양자로 들어가 해남에 내려가서 살았다.

윤선도의 삶은 귀향과 낙향의 삶이었다. 1616년(광해군 8)에는 집권 복인의 실정을 밝히는 상소를 올렸다가 함경도 경원에 유배되었고, 인조반정으로 풀려나 1633년(인조 11)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지평 등을 지냈으나 서인들의 모함으로 파직되어 해남으로 낙향하였다. 병자호란 때는 인조가 청군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욕되게 생각하여 제주도로 가던 중 보길도에 정착한 후 자연을 벗하여 살며 「어부사시사(漁父四詩詞)」 등 많은 시조를 남겼다. 병자호란이 평정된 후에는 서울에 와서도 왕에게 문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38년(인조 16)에 경상도 영덕으로 귀양갔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효종이 즉위하자 예조참의에 제수되었으나 서인들에 의하여 밀려나 다시 낙향하였으며, 1660년 효종이 죽자 조대비의 복제에 대한 예문문제로 논쟁하다가 삼수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그는 남인의 거두로서 정철(鄭澈), 박인로(朴仁老)와 함께 조선시대 3대 가인으로 꼽히며 가사는 없고 단가와 시조 75수를 남겼다.

양성지 살던 곳

명보극장에서 을지로 3가 파출소 방향으로 가는 길 중간 지점은 조선 초기의 학자 양성지(梁誠之)가 살았던 곳이다. 양성지(1415~1482)는 1441년(세종 23)에

진사·생원에 이어 식년문과에 급제하였고, 집현전에 들어가 부수찬 등을 지냈다. 그는 세종의 총애를 받았고 춘추관 기주관으로 고려사 수사관을 겸직하여 『고려사』 개찬에 참여하였다. 이어 집현전 직제학으로 승진하여, 이듬해 집현전이 폐지되자 좌보덕(左輔德)으로 전임하였다.

양성지는 세종대부터 성종조에 이르기까지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는 동안 정치상의 의견이나 언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위한 건요한 도리를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의 성인보다는 단군을 추앙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풍속이나 혼례에 있어서도 사치를 금하였으며, 과거시험도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할 것을 주장하였고, 『서적12사상소문(書籍十二事上疏文)』에서 현대적 의의를 함축한 주장인 도서의 보존 및 간행에 실효를 주장하였다. 문서나 도서의 보존에 관한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의 저서로는 『눌재집(訥齋集)』이 있다.

유성룡 집터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의성에서 태어나 현재 중구 인현동 1가와 목정동 지역인 남부 낙선방 목정동계에서 살았다. 그는 이황의 문신이며, 김성일과 동문수학하여 친분이 두터웠다. 1566년(명조 21)에 문과에 급제한 후 도승지·예조판서·우의정·좌의정을 역임하였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의정으로 왕을 평양까지 호위하였다. 임진왜란이 있기 전에 전란을 대비하여 권율을 의주목사, 이순신을 전라좌수사에 천거하였다. 명나라 장수 이여송과 함께 평양성을 수복하고, 영의정으로서 4도의 도체찰사를 겸하여 군사를 총지휘하였다. 의주에서 선조를 호위하고 서울에 돌아와서 훈련도감을 설치하도록 요청하였으며, 1594년에 이 군사기구가 설치되자 그 책임자가 되었다. 1604년 호성공신 2등에 책록되고 다시 풍원부원군에 봉해졌다.

유성룡은 도학·문장·덕행·글씨로 이름을 떨쳤고, 특히 영남유생들의 추앙을 받았다. 그의 저서 중에서 『징비록(徵秘錄)』과 『서애집(西厓集)』은 임진왜란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된다. 유성룡을 모신 안동 하회 마을의 충효당은 보물 제414호로 지정되어 있다.

제3장

대한제국의 중심 무대

덕수궁지역

조선왕조의 궁궐 덕수궁

순교자의 지킴이 약현성당

문호개방에 이은 열강들의 손길

근대 교육기관의 산실

난세 속에 빛나는 민족의 저항지

개신교와 구교의 터전

선열의 체취가 가득한 장소

서울성곽



덕수궁지역



제3장

대한제국의 중심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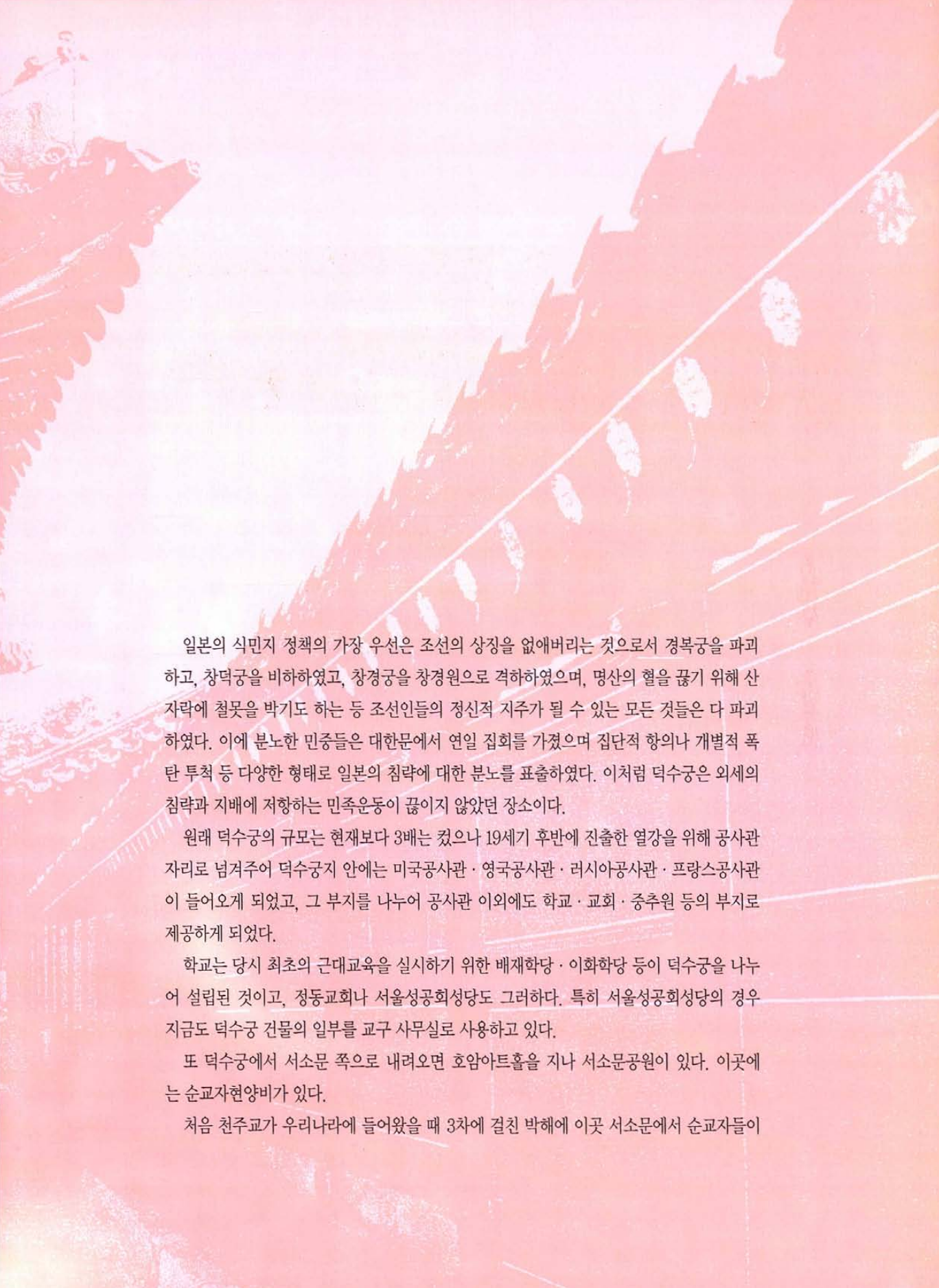
덕수궁지역



덕수궁은 조선왕조의 마지막 궁궐로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라는 힘겨운 시대를 지켜보아야 했다. 변혁과 보수, 그리고 침략과 저항이라는 대립적 현상을 보이는 역사적 상황이었다. 1897년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서 덕수궁으로 환궁하고 부국강병을 통한 왕조의 중흥을 꾀하게 되면서 열강들의 이권 침탈을 막아내기 위해 나름으로 고민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일본이 열강을 누르고 결국은 조선을 독점지배하면서 이곳에서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었고, 청호마저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 개칭되었으며, 1880년 이래로 덕수궁은 열강의 근거지로 제공되면서 그 위상은 훼손되었고 예전의 규모나 위용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대한제국을 병탄한 일제는 덕수궁 주변에 수탈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는데, 주로 조선왕조의 상징이었던 건물이나 상징물을 헐고는 그곳에 지배기관을 세웠다. 특히 왕궁은 풍수상 명당이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신성한 집이라는 개념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더 높은 곳에 건물을 지어 덕수궁이 내려다보이게 하였다.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가장 우선은 조선의 상징을 없애버리는 것으로서 경복궁을 파괴하고, 창덕궁을 비하하였고,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하하였으며, 명산의 혈을 끊기 위해 산 자락에 철못을 박기도 하는 등 조선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파괴하였다. 이에 분노한 민중들은 대한문에서 연일 집회를 가졌으며 집단적 항의나 개별적 폭탄 투척 등 다양한 형태로 일본의 침략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이처럼 덕수궁은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이 끊이지 않았던 장소이다.

원래 덕수궁의 규모는 현재보다 3배는 컸으나 19세기 후반에 진출한 열강을 위해 공사관 자리로 넘겨주어 덕수궁지 안에는 미국공사관·영국공사관·러시아공사관·프랑스공사관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부지를 나누어 공사관 이외에도 학교·교회·중추원 등의 부지로 제공하게 되었다.

학교는 당시 최초의 근대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배재학당·이화학당 등이 덕수궁을 나누어 설립된 것이고, 정동교회나 서울성공회성당도 그러하다. 특히 서울성공회성당의 경우 지금도 덕수궁 건물의 일부를 교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또 덕수궁에서 서소문 쪽으로 내려오면 호암아트홀을 지나 서소문공원이 있다. 이곳에는 순교자현양비가 있다.

처음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3차에 걸친 박해에 이곳 서소문에서 순교자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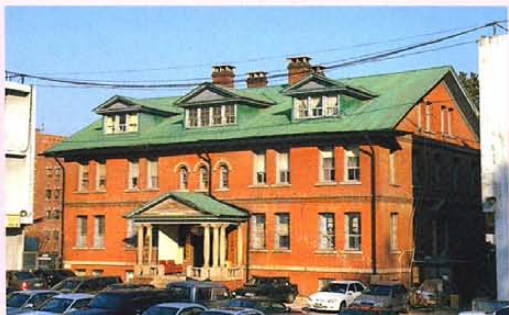
많이 처형되었다. 이에 1892년 이곳 서소문에 약현성당이 설립되었고 순교를 위한 서소문 기념관이 세워졌다.

이밖에도 많은 유적이 있는데 일제의 침략에 대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저항한 장소가 곳곳에 있다. 지금의 서울시의회에 해당하는 경성부민관을 폭파한 부민관 의거터가 있고, 일본의 강압 때문에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국내와의 연락을 위해 서울에 세웠던 대한민국임시정부 서울연통부터가 지금의 동화약품 자리에 있다.

그리고 근대학교의 발상지이며 근대교육을 통한 신문물의 요람인 배재학당에는 당시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을 발행했던 터가 있다. 만리동 2가에는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경기에서 금메달을 탔으나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던 손기정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는 손기정체육공원이 있다.

그리고 덕수궁을 바라보고 있는 대법원이 있었는데, 지금 대법원은 서초동으로 이사하여 건물만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곳 대법원터에서 독립운동을 한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언도받고 지하로 연결된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되어 순국하였다.

이곳 덕수궁 일대는 이를테면 근대화과정에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속담이 있듯이 밀려오는 서양세력이 전통적인 우리의 생활양식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 그들의 판이 된 모양새다.



서양세력에 밀려 궁궐을 내어주게 되고 그러면서 위상이 축소되자 이에 분노한 민중들이 잃어버린 조국을 다시 찾기 위해 끊임없이 항거하게 된 진원지인 셈이다.

이 장에서는 덕수궁지역을 대한제국의 중심 무대라는 주제 아래 8개의 테마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왕조의 궁궐 덕수궁

덕수궁의 영화와 고난의 흔적들



조선시대의 궁궐은 경복궁(景福宮)을 비롯하여 창덕궁(昌德宮), 창경궁(昌慶宮), 그리고 경운궁(慶運宮)이 있다. 이들은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정치활동의 무대였으며, 특히 경운궁은 조선왕조 말기의 왕궁답게 근현대사의 고난의 흔적이 아로새겨져 있다. 위풍당당했던 왕조의 영화는 어느덧 퇴락하고 건물마저 사라져가는 비운을 맞게 된 것이다. 지금도 이 일대는 제 모습을 잃어버린 덕수궁(德壽宮, 경운궁)이 간신히 자존심을 지켜나가고 있다.

경운궁은 1592년 임진왜란 때 경복궁 등이 모두 소실되자 선조가 월산대군(1454~1488)의 사저를 수리하여 정릉동 행궁으로 삼았다. 광해군 때까지도 행궁으로 쓰이다가 1611년(광해군 3)에 창덕궁을 중건하여 이거하면서 경운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한때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폐하면서 서궁(西宮)이라는 속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후 광해군은 주로 창덕궁에 머물러 경운궁은 빈 궁궐로 남게 되면서 퇴락해 갔다.

1897년 아관파천 이후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하면서부터 정궁이 되었다. 당시 경운궁에는 1880년대 서양과의 국교수립 이래로 많은 외국 공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고종은 서양의 힘을 빌어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이곳으로 환궁한 것이었다.



덕수궁 전경

고종은 아관파천과 동시에 경운궁의 수리를 진행시켰고 1897년(고종 34년) 2월 20일 세자와 함께 경운궁으로 돌아왔다. 그해 10월에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大韓)으로 하고 연호를 광무(光武)로 하였다. 이때부터 경운궁은 대한제국의 중심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여기에서 1904년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었으며, 1905년에는 중명전에서 소위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고종은 퇴위를 당하였다.

1910년 이후에는 일제가 덕수궁 주변에 수탈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수모를 겪어야 했다. 결국 고종황제도 이곳에서 1919년에 한 많은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때부터 빈 궁궐로 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전각들도 파괴되기 시작했다.

시청역에서 내려 덕수궁 출입구로 나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한문(大漢門)이다. 원래는 경운궁의 동문이었는데, 정문인 인화문(仁化門)이 없어지자 대



수문장 교대식 모습

한문이 역할을 대신한 것이다. 궁궐의 정문은 광화문, 돈화문, 홍화문 등과 같이 '화(化)' 자가 들어가는데 경운궁도 남향 정문인 인화문이 있었으나, 1902년에 궁을 증축하면서 인화문 자리에 건극문(建極門)을 세우고 동향인 대안문을 세워 정문으로 하였다. 그 뒤 건극문도 없어지고 담장만이 남게 되었다. 1904년 대화재로 대안문을 중수한 후에 대한문으로 고쳤다. 이 문 앞에서 주로 군대사열, 복합상소, 군중집회 등이 많이 벌어졌다. 1914년 태평로가 문 앞으로 나면서 오른쪽의 건물과 담장이 잘려나갔고 뒤로 옮겨지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태평로가 확장되면서 다시 한번 뒤로 물러나 지금은 원래의 자리보다 약 16m 정도 물러나게 되었다.

대한문에서 오른쪽 행각을 지나면 함녕전(咸寧殿)이 나온다. 이곳이 경운궁의 침전으로 고종은 대부분 이 건물에서 기거하였고, 이곳에서 승하하였다. 그 왼쪽으로 있는 덕홍전(德弘殿)은 고종이 외국사신이나 고위 관료들을 접견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던 건물이다. 덕홍전의 셋담은 조선 후기에 일반적으로 유행하던 벽돌을 이용하여 쌓았다. 연한 주홍색 빛이 감도는 담장을 통해 섬세한 장인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덕홍전의 아름다운 담장은 정관헌(靜觀軒)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관헌으로 들어가는 문은 아기자기한 유헌문과 꽃담으로 꾸며졌다.

정관헌은 함녕전 뒷편 동산 위에 있는 서양식 연회건물로, 1900년 진전의 화재 이전에 이곳에 태조의 영정을 보관하기도 했다. 한때 경운당이라 칭하기도 했다. 누각처럼 로마네스크식 기둥이 서 있는 사이로 넓은 연회장이 보이는 단층건물이다. 지금은 기둥 윗부분에 단청처럼 드리운 곳을 분홍빛과 적록색으로 새로 단장하고, 단을 둘러싼 난간에는 화려한 금색으로 도색하여, 고즈넉한 저녁빛에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지붕의 양식은 전형적인 일본풍으로 삼각형의 낮은 지붕에 한가운데 원모양의 유리창이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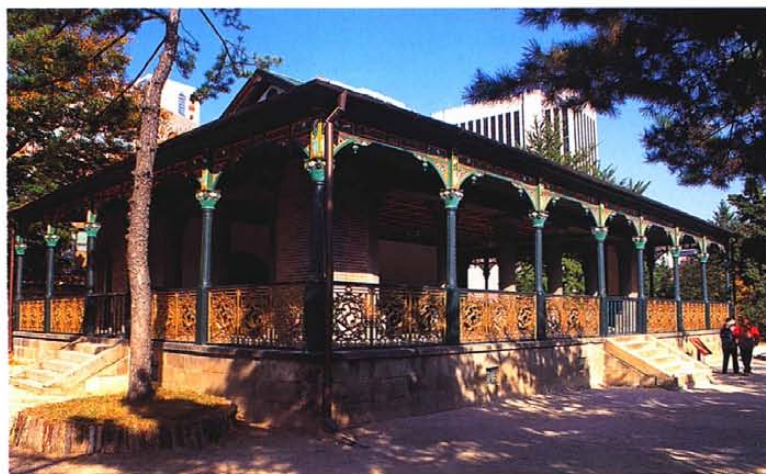
그 옆에 2층의 작은 건물이 보이는데 석어당(昔御堂)이다. 석어당은 궐내의 유일한 2층 건물로, 선조 때 건축되었고, 1904년 화재 이후 중건되었다. 옛날에는 왕이 거처하기도 하였다. 석어당의 미는 도도하게 흐르는 나무결의 청초함과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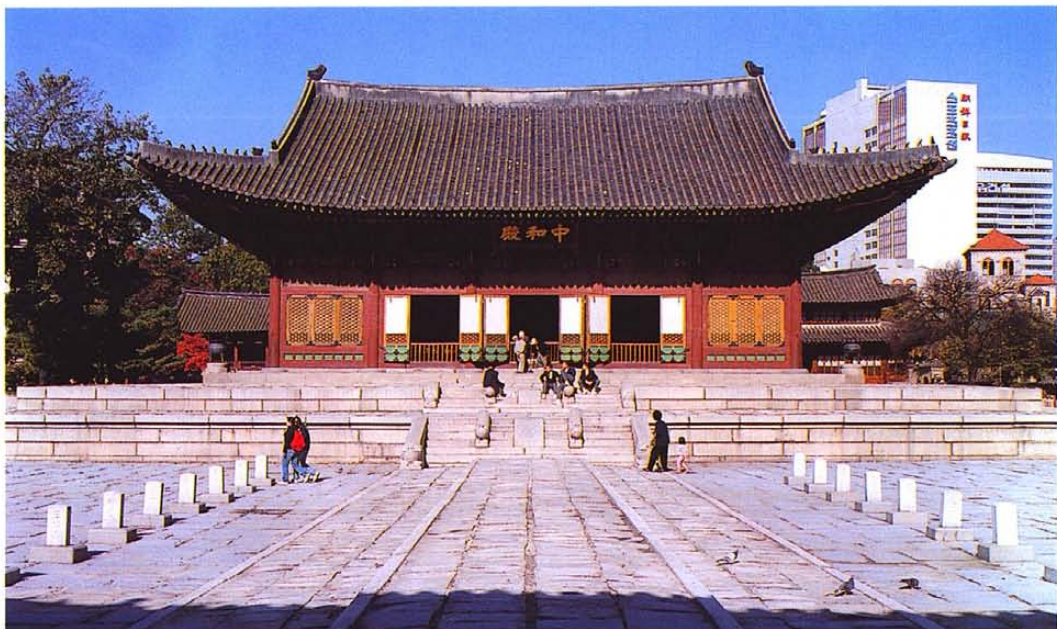
함녕전



덕흥전



정현관



중화전 전경



중화전 중앙 계단의 판석



중화전 앞의 용향로

조차 입히지 않은 기둥의 고고함에 있다. 석어당 뒷편의 격자무늬는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멋을 풍기고 있다.

즉조당(卽祚堂)은 중화전이 건립되기 전 정전으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인조가 반정을 통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목대비가 윤희되어 있던 경운궁에서 즉위하여, 즉조당이라 한다. 그 뒤 고종황제 때에는 귀인 엄씨의 거처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즉조당과 석어당은 광해군 때 지어진 건물로 조선 후기 내내 옛 건물로 남아 있었으나, 고종황제 때 소실되었다. 현재의 것은 그 직후 중건한 것이다.

준명당(浚明堂)은 행각이었던 것을 건물로 개조한 것이다. 1904년 대화재 이후 6월에 중건된 것인데, 이때 고종과 순종의 어진, 예전을 여기로 옮기고, 경효전도 이 건물의 서행각에 옮겼다. 외국 사신이 오면 여기서 접견을 하기도 하였다.

중화전(中和殿)은 경운궁의 정전으로 원래는 근정전, 인정전과 같이 중층(重層) 지붕이었으나, 1904년 대화재 이후 동일한 규모의 단층으로 중건되었다. 궁궐의 정전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중화전이 단층으로 복원됨으로써 경복궁의



석어당



즉조당

근정전과 같은 위용을 찾아 볼 수는 없게 되었다. 다만, 중화전의 천장에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는 두 마리의 용과 중화전 앞에 정연하게 놓여진 품석(品石)이나 당가(唐家) 등이 왕실의 위용을 나타내 주고 있을 뿐이다. 아쉬운 점은 중화전이 단층으로 복원됨에 따라 중화문에서 바라 볼 때 정연한 품계석보다는 전각이 왜소해 보이는 느낌이 든다는 점이다.

석조전(石造殿)은 르네상스식 건물로, 1900년(광무 4) 당시 대한제국의 총세무사였던 영국인 브라운(John Mcleavy Brown)이 주도하여 건축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영국사람의 설계로 영국인 기술자들이 영국회사의 물품을 들여와 짓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05년 브라운을 밀어내고 일본인 메카다(目賀田種太郎)가 재정고문으로 오면서 석조전 건축의 주도권도 그에게로 넘어가서 공사가 진행되어 1909년(융희 3년)에 완공되었다. 덕수궁의 각 건물은 열강의 입김에 따라 축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종황제는 생존시 이 건물에서 살기도 하였지만, 고종황제가 서거한 후 덕수궁이 황폐해지는 과정에서 석조전도 일본의 미술품 전시장으로 일반에 공개되기도 하였다. 광복 직후 우리나라의 운명을 놓고 미국과 소련이 흥정을 벌일 때는 그 접점인 미소공동위원회가 이곳에서 열리기도 하였다. 그 뒤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이 이곳을 사용하였다. 1953년 이후 국립박물관과 현대미술관으로 쓰이다가 지금은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쓰이고 있다. 멀리서 석조전을 바라보면 우뚝한 기둥과 선명한 흰색의 고집스러운 우직함이 엿보인다. 가을하늘에 비치는 하얀색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대한제국 시대의 덕수궁 배치도



현존하는 전각

- | | |
|--------|---------|
| 1. 중화전 | 6. 함녕전 |
| 2. 중화문 | 7. 정관헌 |
| 3. 석어당 | 8. 대한문 |
| 4. 즉조당 | 9. 광명문 |
| 5. 준명당 | 10. 중명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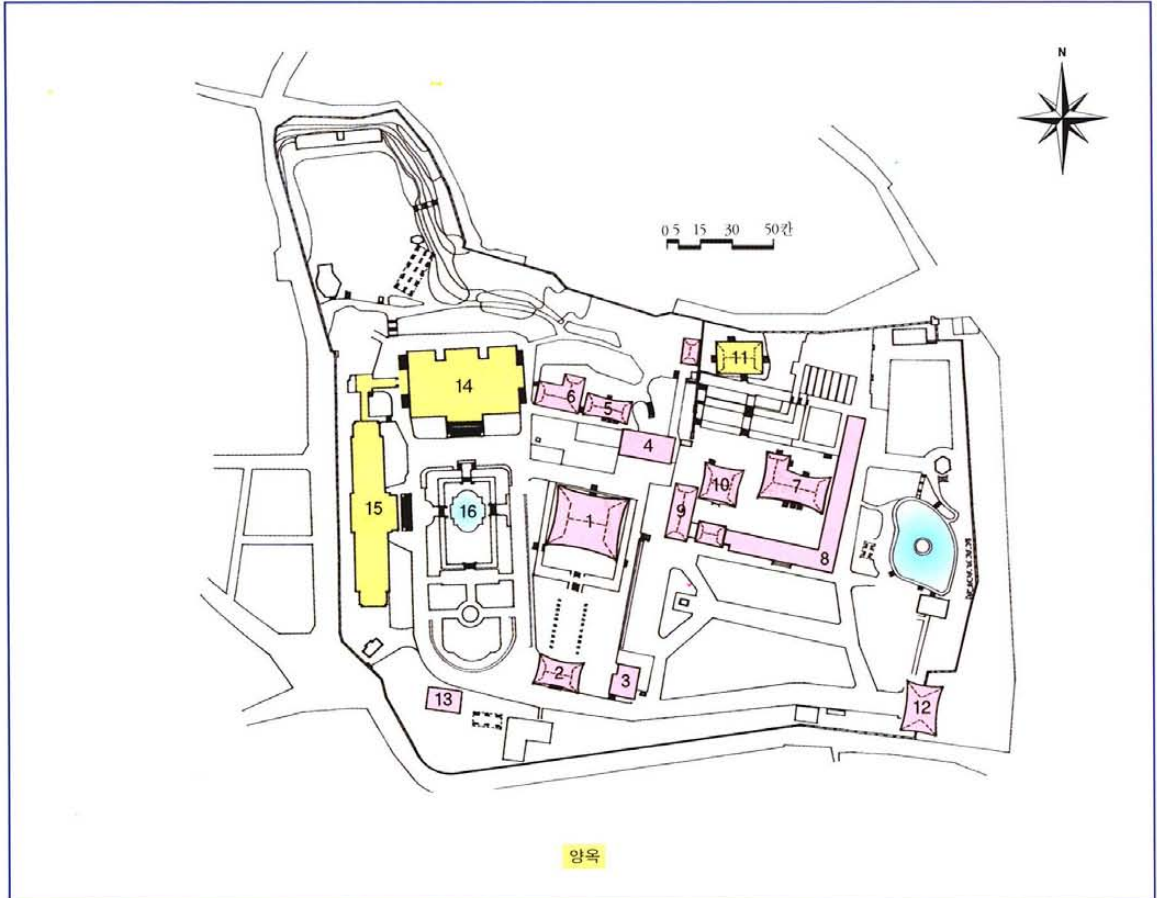
철거된 전각

- | | | |
|--------|---------|---------|
| 1. 조원문 | 8. 승헌부 | 15. 선원전 |
| 2. 경효전 | 9. 평성문 | 16. 사성당 |
| 3. 영복당 | 10. 구성헌 | 17. 혼 전 |
| 4. 양심당 | 11. 돈덕전 | 18. 장웅대 |
| 5. 포덕문 | 12. 만회당 | 19. 양화당 |
| 6. 소방계 | 13. 환벽정 | 20. 수학원 |
| 7. 전무과 | 14. 영성문 | |

기타

- | |
|-----------|
| 1. 미국영사관 |
| 2. 영국영사관 |
| 3. 러시아영사관 |

현재의 덕수궁 배치도



- | | | | |
|-----------|-----------|---------|------------|
| 1. 중화전 | 5. 즉조당 | 9. 귀빈실 | 13. 광명문 |
| 2. 중화문 | 6. 준명당 | 10. 덕홍전 | 14. 석조전 |
| 3. 중화전 행각 | 7. 함녕전 | 11. 정관헌 | 15. 석조전 별관 |
| 4. 석어당 | 8. 함녕전 행각 | 12. 대한문 | 16. 분수대 |



석조전



준명당

중명전(重明殿)은 1900년에 러시아 건축가가 지은 최초의 서양식 벽돌건물이다. 1905년 일제가 이곳에서 ‘을사조약’을 강요하고 불법적으로 체결하였다. 정동극장 원편에 막다른 골목이 있는데, 지금은 (주)경한산업의 사무실이 있다. 처음 찾아간 이들은 이곳이 궁궐이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원래는 덕수궁 안에 있었던 것인데, 도로가 생기면서 궐 밖으로 나온 것이다. 자그마한 안내판이 있어 이곳이 대한제국의 궁궐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덕수궁의 서문은 평성문이었으나 지금은 포덕문이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광명문은 원래 함녕전으로 들어가는 중문이었으나, 지금은 중화문 옆으로 옮겨져 문 안에 자격루와 홍천사 종, 신기전기화차(神機箭機火車)가 전시되어 있다. 신기전기화차는 고려말 최무선의 주화를 개량하여 1448년(세종 30) 대나무 화살의 앞부분에 쇠를 달고, 뒤에 원통형의 종이 약통을 부착하여 불이 붙으면 날아가게 한 것이다. 홍천사 종의 경우는 1462년(세조 8) 이성계의 계비인 신덕왕후를 추모하기 위해 주조한 것으로 처음에는 정릉에 있는 홍천사에 있어 홍천사 종이라고 하였다. 1510년(중종 5년)에 홍천사가 화재로 소실되자 1747년(영조 23)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에 옮겼다가 창경궁을 거쳐 이곳에 옮기게 된 것이다. 보루각 자격루(報漏閣自擊漏)는 국보 제229호로 지정된 것으로 1536년(중종 31)에 만든 물시계이다. 1434년(세종 16)에 장영실이 처음 만든 것으로 조선왕조의 표준시계였다. 자격루는 중종 때 유전이 개량한 것이다. 처음에 창덕궁에 있었던 것을 옮겨온 것으로 지금은 자동장치와 그 밖의 것들은 유실되었다.

선원전(璿源殿)이란 태조와 당대 왕의 4대조 전왕의 초상화(御眞)를 모셔놓고

수시로 왕이 차례(茶禮)를 올리던 곳이다. 일제는 이를 헐어 없애고 여학교를 세웠다.

세종대왕상

세종(1397~1450)은 조선 제4대 왕으로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재위하였다.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이다. 원래는 양녕대군이 왕세자였으나 태종은 자신이 이룩한 정치적 안정과 왕권을 이어받기에는 양녕대군이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세종대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유교정치가 이루어졌으며, 찬란한 민족문화가 이룩된 시대였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으로 기틀을 잡은 시기였다. 집현전을 통해 인재를 확보하고, 의례와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방대한 편찬사업이 이루어졌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우리 글을 만들었다. 훈민정음은 집현전을 통해 길러진 최항·박팽년·신숙주·성삼문·이선로·이개 등 소장학자들의 협력을 받아 우리 민족의 문자를 창제하였다. 이 많은 일들을 주도한 세종은 태종이 이룩한 정치적 안정기 반을 이어받아 이를 펼쳤다. 세종 4년까지는 태종이 상왕으로 생존하여 있었으므로 태종의 영향이 계속된 시기였다. 1414년(태종 14)에 이룩된 6조직계제는 의정부 대신의 정치적 권한을 크게 제약하고 왕권의 강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이에 세종은 이러한 정치체제 속에서 태종대에 이룩한 왕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소신있는 정치를 추진할 수 있었다. 세종은 유교와 유교정치에 대한 소양, 넓고 깊은 학문적 성취,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판단력, 중국문화에 경도되지 않은 주체성과 독자성, 의지를 관철하는 신념과 고집 등이 당시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인적 모든 여건과 조화됨으로써 빛나는 민족문화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호는 장헌(莊憲), 능호는 영릉이고 여주군 능서면에 능이 있다. 세종대왕상은 덕수궁 함녕전 앞 잔디에 있다.



순교자의 지킴이 약현성당

약현성당과 천주교박해의 흔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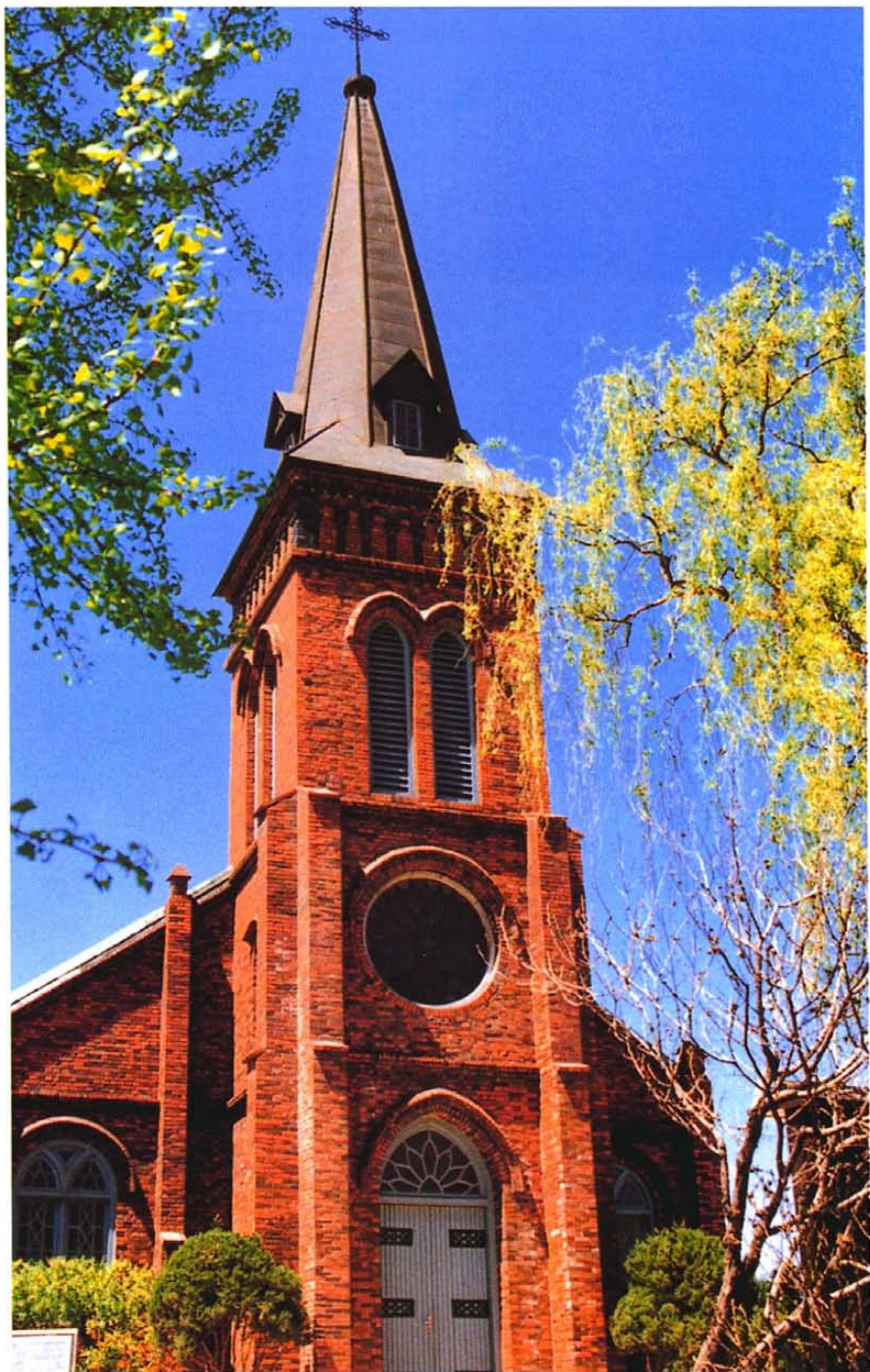


약현성당은 프랑스 신부인 코스트(G. Coste)에 의해 설계되어 1892년(고종 29)에 준공되었다. 코스트는 1887년 한불수호조약 체결로 국내에 들어온 후 용산신학교와 명동성당 등을 설계한 바 있다. 1905년에 높이 22m의 첨탑을 세워 종을 달았고, 1921년에 내부개조를 통해 칸막이를 없애고 벽돌기둥을 돌기둥으로 세웠다.

최근 1998년에 화재로 첨탑이 소실됨에 따라 현재 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붉은 벽돌로 가지런히 쌓은 고딕양식으로 지어진 약현성당은 건물 몸체에 비해 작고 긴 첨탑을 가지고 있다. 보통의 고딕양식은 창틀이 삼각형인데 비하여 둥근 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당인 명동성당이 교세가 확장되면서 4대문 안의 교인보다 문 밖 교인의 수가 많아져 성당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곳 중립동에 성당을 설립한 것이다. 천주교에서는 성당을 세울 때에 그 지역의 의미를 중시하는데 이 지역도 역시 천주교박해 때에 44인의 순교자가 처형된 서소문과 인접해 있다. 마찬가지로 1902년에 완공된 원효로성당에는 김대건(金大建) 신부의 생존시기(1822~1846)가 기록되어 있고 그의 유해도 이 성당에 안치되었다고 하는데, 병인박해 때 순교자를 낸 한강의 새남터와 기해박해 때 많은 순교자를 낸 당고개가 보이기 때문에 이곳에 성당을 지었다고 한다.

성당 앞길을 건너는 곳에 서소문공원이 있는데 이곳에는 순교자현양비가 있다.



화재로 소실되기 전의 약현성당



서소문순교자기념관(왼쪽)
순교자현양비(오른쪽 위)
서소문 공원(오른쪽 아래)

서소문 밖 사거리는 학문연구를 통해 신앙을 찾아 자발적인 노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실천했던 평신도들의 예지와 용맹, 그리고 결단의 순교지라고 할 수 있다.

이곳 서소문에서의 순교는 신유박해(辛酉迫害, 1801) 때 이 땅에 최초의 영세자인 이승훈(베드로)을 비롯하여 정약종, 최창현, 강완숙 등 초기 교회의 대표적인 평신도 지도자들이 순교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기해박해(1839)를 고비로 절정을 이루었는데, 한국 최초의 신학생이며 조선교구 설정의 주역이었던 정하상을 비롯하여 유진길, 이광렬, 박후재, 현경련 등 무수한 평신도들이 이곳에서 참수·순교하였다. 이곳에서 순교한 41위가 시복, 시성의 영광을 안았다. 가장 혹독했던 병인박해(1866년)를 맞아 서소문은 또다시 형장으로 변했고, 수많은 이름없는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다. 이에 이곳 서소문 밖은 한국 최대의 성지가 되었다. 지금 서소문순교지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슬픈 옛 모습을 찾을 길은 없으나 순교자현양비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순교자현양비 이외에도 약현성당 바로 옆에는 서소문순교자기념관이 있다. 중림동 성당은 '약현성당 100주년 기념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최대의 순교 성지이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대거 순교한 이곳을 되살리기 위해 『서소문성지』 기념책 발간과 더불어 서소문순교자기념관을 건립하였다.



문화개방에 이은 열강들의 손길

외국공사관들이 들어선 거리



1880년대 조선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외국의 공사관이 차례로 서울에 설치되었다. 용산과 남산 일대는 일본이, 소공동·청계천 일대는 중국이, 정동 일대는 서양 여러 나라가 혼재되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구러시아공사관

러시아공사관은 '아관파천'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장소이다. 일본군에 의해 민비가 살해된 을미사변이 일어난 후 고종은 언제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경복궁에 유폐된 고종은 1896년 2월 9일 세자와 더불어 대기중이던 러시아인을 따라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이러한 아관파천은 고종의 불안과 조선에서 일본을 견제하려는 러시아의 요구가 만들어낸 산물이었다. 고종은 1년 동안이나 러시아공사관에 머무르면서 국정을 총괄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갑오개혁'을 추진한 김홍집내각이 무너지고, 대신 친러세력인 박정양 등이 집권하였다. 결국 러·일의 관계는 1905년 러일전쟁으로 완전하게 일본이 우위를 확보하기 전까지 타협과 대결이라는 이중정책의 반복이었다.

러시아공사관은 1890년(고종 27)에 건축된 르네상스풍의 건물로서 설계는 러



구러시아 공사관

시아인 사바틴이 했다. 한국전쟁 때 파괴되어 탑과 지하 2층만이 남아 있었으나, 1973년 일부가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구조는 벽돌조 2층 건물로서 한쪽에는 탑을 세웠다.

특히 이곳은 1896년(고종 21년) 2월 고종황제가 세자(순종)와 함께 경복궁에서 나와 다음해까지 기거했던 곳으로, 사진자료에 의하면 고종이 거처했던 방의 내부도 르네상스풍의 실내장식을 했었다. 현재 탑의 동북쪽으로 지하실의 일부가 발굴되었는데, 이것이 경운궁까지 연결되었다고 한다.

광복 후 러시아공사관은 동서냉전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폐쇄되었으나, 1990년 러시아와 국교를 재개하면서 그 부지의 소유문제가 현안 사항으로 떠올랐다

프랑스공사관터

현재의 창덕여중 교내 스탠드 오른쪽 맨끝은 프랑스공사관이 있던 자리로 1896년 프랑시(V. Colinde Plancy) 공사가 정동에 신축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과 함께 영사관으로 격하되어 합동으로 강제 이주 당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이곳에 있던 건물은 총독부에서 매수하였다. 2층 벽돌에 일부 탑옥이 있는 총 415평의 건물이었던 당시 공사관은 화강석을 다듬어 만든 대석, 창대, 장식기둥과 우아한 아치창이 있어 멋과 운치를 더해 주었으나 1939년 소학교가 세워지면서 헐려 지금은 정확한 터를 찾을 수 없으나 학교 곳곳에 흩어져 있는 화강석과 'RP 1896'라는 머릿돌만이 당시 프랑스공사관의 존재와 그 건축연대를 알게 할 뿐이다.

정동구락부

정동구락부는 1894년에 정동에 들어와 있던 서양인들이 사교 및 친목이라는 명목으로 비정치적인 모임을 만든 것에서 시작하였다. 여기에 속한 회원은 주로 서양인 공사들과 한국 정부에 초청된 고문관과 선교사들이 중심이었고, 내국인으로는 민영환·윤치호·이상재·서재필·이완용 등이 참여하였다.

구락부의 회원으로 일본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 조선에서의 일본의 우위를 견제하기 위한 열강과 조선의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침

락을 지지하려 했던 고종과 민비는 이곳을 통해 러시아와 열강의 힘을 빌리고자 하였다. 구미인들의 비정치적인 모임이었던 정동이 조선인과 서구인의 모임으로 바뀌자 일본은 이러한 정세를 깨닫고 궁내의 호위병을 일본군 휘하 군사로 교체하여, 궁궐을 감시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열강의 반발로 실패로 돌아갔다.

또한 당시의 정세가 1895년 8월 제3차 김홍집내각이 성립되어 친일각료들이 배제되고 당시 친러파인 이완용·이범진 이 입각하게 되는 등 급격한 정세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일본으로 하여금 민비와 친러파 제거를 위한 음모를 도모하게 하여 결국 일본 낭인에 의해 민비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 나름대로 서양세력을 이용하여 일본을 견제하고자 했던 노력이 일본의 거센 반발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정동구락부의 모임 장소가 순탁호텔과 하남여관 이다.

손탁호텔

이화여자고등학교 정문 수위실 앞 화단에는 손탁호텔(Sontag Hotel)의 표석이 세워져 있다. 손탁호텔은 독일사람인 존타그(Antoinette Sontag)가 서울에서 최초로 경영한 서양식 호텔이다. 그는 1885년 러시아인 웨베르를 따라 서울에 와 민비와 연결되어 궁내의 서양문화를 도입하고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하였다. 이때 정동에 집을 하사받아 2층 건물을 지었는데, 이것이 손탁호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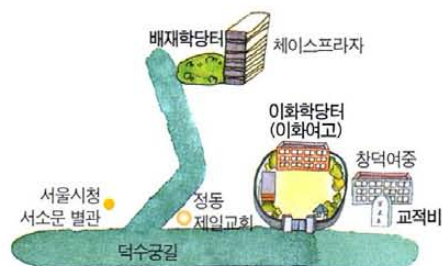
손탁호텔은 서양인과 국내인의 친목단체의 사교장이 되면서 '정동구락부'의 근거지가 되었다. 1905년 러·일전쟁 후에 호텔의 규모가 위축되면서, 손탁은 1909년 프랑스로 돌아갔다. 이화학당에서 1917년 손탁호텔을 인수하여, 1922년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프라이 홀(Frey Hall)을 지었다. 프라이 홀은 이화여대, 이화여중, 서울예고 등이 사용하여 오다가 1975년 5월 화재로 소실되었다. *



우체국 공사현장 뒤로 보이는
프랑스공사관(맨위)
서울의 외국인 집단(중간)
정동 미국공사관(아래)

근대 교육기관의 산실

반일구국운동의 본산, 사립학교



근대교육은 서구의 사상과 근대학제를 수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과거제가 폐지되고 신학제가 제정되고, 고종의 교육조서가 반포되면서 신문명 도입을 위한 근대학교의 설립이 가속화되었다. 교육활동은 민간인계 사립학교와 종교계 사립학교로 분류되는데 민간인계는 원산학교, 광흥학교, 을미의숙 등이 차례로 설립되었고, 종교계는 주로 기독교학교가 주류를 이루었다. 외국인 선교사들의 입국과 더불어 배재학당·이화학당 등의 학교가 만들어지게 된다.

을사조약 이후 사립학교의 설립이 급속히 늘어나며 구국운동과 개화운동의 일환으로 신교육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일제의 조선인 우민화 정책과 사학탄압정책에 맞서 학교교육은 구국운동과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3·1운동과 6·10만세운동 등 대규모 항쟁과 민립대학 설치운동, 문자보급운동, 신사참배 거부 등의 크고 작은 반일 구국운동이 이를 통해 나타났다. 정동 일대에는 서양세력이 들어오면서 정동제일감리교회, 성공회 등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화학당과 배재학당 등 고종의 지원을 받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들어섰다.



배재학당의 옛 모습(1887년)



배재고등학교 동관으로 사용한 경세관(警世館)건물(1916년 건립)

배재학당터

배재학당(培材學堂)은 한미수호조약 이후 본격적인 기독교의 전래에 따라 1885년 8월에 미국 북감리교회의 선교사 아펜젤러가 선교사업과 함께 신교육의 필요성을 깨달아 의료선교사 스크랜턴의 집을 사서 조그마한 교실을 만든 것이 시초였다.

1886년에는 정동의 민가를 사들여 교실을 개축 운영하였고, 고종이 이를 듣고 배양영재(培養英才)의 뜻이 담긴 약자인 배재학당이라는 이름을 지은 뒤 명필 정학 교에게 학교현판을 쓰게 하여 김윤식을 통해 아펜젤러에게 전달하였다. 초기에는 중등과정의 특별과와 대학과정의 본과를 두고 한문, 영어, 만국지지 등을 가르쳤다. 1887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르네상스식 벽돌교사를 신축하여 학교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수업연한도 보통과 4년, 본과 5년으로 정하였다. 입학자격은 17세 이상의 남자로 『동몽선습(童蒙先習)』을 읽을 줄 알고 한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했다.

배재학당은 1925년 일제에 의해 폐교되었고, 1937년에 배재고등보통학교는 6년제 배재중학교로 개편되었다가 1951년에는 학제의 변경으로 3년제 배재중학교와 분리되어 배재고등학교로 개편되었다.

배재학당은 1896년 학생회인 협성회를 조직하여 기관지 『협성회보』를 발간하고 조국의 독립과 교육구국의 정신을 일깨웠다. 아펜젤러의 교장사택과 학당기숙사는 서재필, 윤치호 등 개화주의자들의 집회소가 되었다. 3·1운동 때에는 목사 이필주를 중심으로 기숙사에 모여 거사를 계획하여 전교생이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대대적인 시위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일제에 의해 아펜젤러가 해임당하기도 하였다.



이화학당의 옛 모습

배재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중등교육기관으로 기독교정신과 개화사상의 바탕 아래 근대교육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교육을 통해 기독교 보급에 노력하였으며 근대교육을 통한 신문화의 요람지로서 실험실습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하였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고적답사와 수학여행 등을 실시하였다.

배재학당터는 덕수궁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보면 왼쪽에 정동제일교회가 나오고 교회별관을 따라 계속 걸으면 'chase plaza'가 나타나는데 그 건물 뒷쪽 일대가 모두 배재학당터였다고 한다. 현재 건물 뒷쪽 일대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배재공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공원이라고 부르기도는 건물의 작은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알맞을 만큼 협소하다. 건물 뒤로 보이는 공간 안쪽의 시원한 나무 그늘과 물줄기가 공원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군데군데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이곳에서는 최근 러시아대사관 신축공사를 준비하다가 땅속에서 서소문과 서대문을 잇는 성곽의 밑부분 일부가 발견되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미확인된 서울성곽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화학당

이화학당(梨花學堂)은 중구 정동에 있는 사립 여자고등학교로 1886년 5월에 미국 북감리교회 선교사인 스크랜턴이 설립했다.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보다 완전한 한국여성이 되게 할 목적으로 여성교육기관을 설립하였고, 1887년에는 명성황후(明成皇后)가 '이화학당'이라는 교명을 내렸다.

이화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신교육기관으로 설립 당시에는 여성교육을 기피하는 전통적 관념과 서양인에 대한 배타적 성격 때문에 학생 수용에 큰 곤란을 받기도 했으나 점차 학교교육의 체계를 확립해 나아갔다. 이화학당은 1905년 을사조약 이후에는 오후 3시면 수업을 중단하고 조국의 독립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가지기도 했고, 3·1독립운동과 각종 항일운동으로 이어져 류관순과 같은 인물이 배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근대교육은 조선의 근대화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물밀듯이 밀려오는 외세라는 힘에 국가는 굴복하였으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청년정신은 근대 교육기관에서 서서히 살아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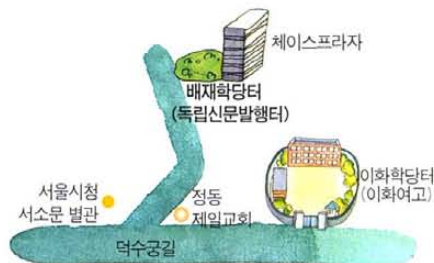


서당에서 공부하는 모습



난세 속에 빛나는 민족의 저항지

독립을 위한 끊임없는 행로와 유적지



독립신문 발행터

독립신문 발행터는 지금의 배재학당터 앞에 있었는데 “신문화의 발상지”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 비석이 있어 근대교육을 통한 서구문물 수용의 의지를 알 수 있다. 지금은 법무사 사무실들이 학교건물 전체에 들어차 있다. 이곳에서 머지 않은 곳에 대법원 등 법조거리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법무사 사무실이 즐비한 까닭을 알 수 있다.

독립신문은 1896년(고종 33) 4월 7일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신국문판 신문으로 1899년 12월 4일자로 폐간될 때까지 제278호가 발행되었다. 갑신정변 이후 미국에 망명했던 서재필이 귀국하면서 신문발간에 뜻을 두고 창간되었다. 내각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처음에는 주 3회(화·목·토)의 격일간지로 1면에서 3면까지 한글판이고 4면은 영문으로 발행되었다. 그러다가 1897년(광무 1년)에 한글과 영문을 각각 분리하여 크기도 2배로 확대하여 발행하였다.

독립신문은 신문의 발행부수보다 실질 독자층은 광범위하였다. 1897년 7월 1일부터는 일간지로 발행되어 러시아의 내정간섭이나 이권침탈에 대해 공격함으로써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1898년(광무 2) 5월 14일 서재필이 국외로 떠나자 윤치호가 독립협회의 기관지로서 발행하였으나 정부의 탄압으로 결국 폐간되었다.

부민관폭파의거터

부민관(府民館)은 시민회관에 해당하며, 공연·집회·강연 등의 공공집회가 이곳에서 자주 열렸다. 부민관은 1935년 12월에 준공된 건물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난방·환기·조명 등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일제는 전시 총동원체제로 전환하면서 군국주의를 강화하고 황민화를 부추기는 각종 집회와 공연 예술을 이곳에서 열었다. 대표적으로는 이광수의 학병지원 권유 연설회나, 친일파의 거두인 박춘금의 아시아민족분격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박춘금

의 경우는 관동대지진 때 일본의 앞잡이로 조선인 색출에 큰 공이 있어 중의원의 원까지 역임한 반민족적 행위를 한 인물이었다. 그는 황도실천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대의당이라는 친일집단을 결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이광수·이성근·조병상·진학문·김동환·박흥식·주요한·김사연 등이 가담하고 있었다.

부민관 의거는 1945년 7월 24일에 발생하였는데, 당시 일본은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치달아 패색이 짙어가고 있었다. 그날 박춘금의 강연이 끝난 후 웅변이 시작될 무렵, 폭탄이 날아와 연단에서 폭발하였다. 이로 인해 사망 1명과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일제는 경성 일대에 비상을 선포하고 범인색출을 시도하였으나, 범인을 찾지는 못하였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국내에 거의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광복 후에 강윤국·유만수·조문기 등이 주모자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광복 후에도 부민관은 이승만 정권에서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치적 곡절을 겪었으며, 1980년대 태평로의 확장공사로 건물의 몸통 부분은 대부분 잘려나갔다. 이 건물은 한때 국회의사당,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서울특별시 의회가 사용하고 있다.



구경성부민관(현재의 서울시의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서울연통부터

현재의 중구 순화동 동화약품공업주식회사 자리에 있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 서울연통부(聯通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수립되자 서울에 연통부와 교통국을 조직하여 국내외의 연락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당시 연통부의 활동은 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서울연통부터 표석

제와 싸우면서 임시정부의 활동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각종 정보와 군자금 전달하기도 하였다. 1922년에 일제에 의해 탄압을 받게되어 활동이 저지되었다. 이곳은 원래 숙종비인 인현왕후가 태어난 곳이다. 1897년 동화약방으로 시작하여 1930년 동화약품공업주식회사가 되어 현재까지 이르렀다. 원래 동화약방의 설립자의 아들인 민강(閔綱)이 행정책임을 맡았으나 일정에 체포되면서 연통부 기능이 약화되었다. 버섯 모양의 기념비는 1995년에 서울시가 설치하였는데, 사각형의 멋없는 표석 모양과 달리 우람하게 서있다.

대법원(조선고등법원, 경성복심법원)



대법원 건물

이곳 대법원 건물은 조선침략을 합법화하는 마지막 기구로서 덕수궁을 마주보고 건립되었다. 이곳에서 일제에 항거한 많은 독립투사들이 사형을 언도받았고, 대부분이 예외없이 서대문형무소로 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앞서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펼쳤던 강우규의 경우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원래는 이황의 집터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 대법원은 서초동으로 옮겨갔지만 일제 때에는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여 사형시키는 힘없는 조선에 대한 억압의 상징이었다.

손기정 월계관수

만리재길을 따라 서울역 쪽으로 가다보면 중림동 동사무소가 있고 그 맞은편에 보면 손기정공원이 있다. 손기정공원의 정식명칭은 손기정체육공원으로,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를 기념하여 그가 썼던 월계관의 수종과 같은 것을 심고 공원을 조성한 것이다. 원래는 그리스 지중해 부근에서 자라는 월계관수로 만들었으나 독일대회에서는 독일 특유의 자연수가 아니라 미국 수종인 참나무가지를 대신 사용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문화·정보의 공간을 공유하는 지적인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시민을 위한

꼼꼼한 배려가 엿보이는데 이곳에 있던 옛 학교를 이용하여 도서관을 만들고, 아동도서실·성인도서실·강당 등을 건립하여 문화강좌와 에어로빅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손기정 월계관수 뒤에는 손기정 흉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약 2~3m 정도 나 된다.

손기정체육공원 안내도



손기정 흉상



손기정 월계관수



개신교와 구교의 터전

고딕과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들



정동교회

정동교회(貞洞教會)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교회당으로 1895년에 착공하여, 1896년 12월 26일 헌당식을 올린 건물이다. 1926년 건물의 원형을 유지한 채로 증축하였고, 두 번에 걸친 복원공사가 있었다. 한번은 6·25전쟁을 치르면서 부서져 1953년경 복원하였고, 또 한번은 1987년 3월 8일의 화재로 일부 불탔으나 원형대로 복원한 것이다. 건물양식은 북미풍의 고딕양식으로 간결하고 소박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 개신교의 선교활동은 1898년 6월 10일에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는데, 장로교의 언더우드나 감리교의 아펜젤러는 이미 10년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다. 아펜젤러는 1885년 입국한 이래로 배재학당을 세워 한국의 근대교육을 창시하고 또한 이를 보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처음에는 이곳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행사를 펼쳤으나, 교회전용 건물을 구입하고 이를 수리하여 소박한 기와집 형태로 1887년 10월에 미국형 감리교회인 베델예배당(Bethel Chapel)을 세운 것이 초기의 정동교회였다.

이후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현대식 예배당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895년 건물을 착공하고 1898년에 완공하였다. 후일 임시정부의 정원 의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손정도 등이 이곳에서 묵회 활동을 했으며 서재필·이승만 등 자유주의자와 민족

의식을 부르짖던 독립협회 인사들이 정동교회에서 예배를 보곤 하였다. 특히 서재필의 경우는 미국 망명에서 귀국하면서 정동교회청년회를 중심으로 협성회를 조직하여 독립협회의 전위대를 만들었다. 정동교회는 특히 태평양전쟁 때 군수물자로 일본군에 의해 교회의 종이가 공출당할 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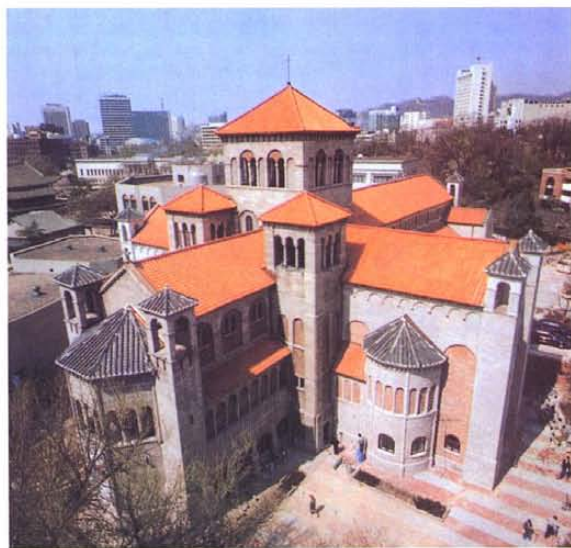
정동교회는 붉은색 고딕양식의 건물로 하얀색 창틀이 깔끔하고 인상적이며, 원형 그대로 복원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특이한 것은 교회에는 일반적으로 세워져 있는 첨탑이 없다는 점이 이채롭다.



정동교회

서울성공회성당

서울성공회성당(聖公會聖堂)은 대한문에서 종로 쪽으로 조금만 가다보면 태평파출소가 나오는데 그 골목길을 따라 가면 바로 나온다. 화강석과 붉은 벽돌을 아울러 쌓은 조적조(組績造) 구조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이다. 벽체와 지붕의 경계에는 코너스를 두르고 모딜리온을 촘촘하게 배열하여 건물 전체에 울동감을 주고 있다. 한편 이 건물은 1890년에 우리나라에 온 초대 주교 코프가 1922년에 착공하여 1926년에 완공하고 헌당식을 가졌다. 일제침략기에 서양인에 의하여 로마네스크양식으로 설계된 본격적인 건축양식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붉은 기와와 큰 화강암으로 색을 조화시키고 있다.



서울성공회성당



선열의 체취가 가득한 장소

조선시대 선현들의 삶과 터전들

이황 집터

이황(李滉)의 집터는 구대법원 구내에 자리하고 있다. 이황(1501~1570)은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로, 호는 퇴계(退溪)이다. 1527년에 진사시에 합격한 후 문과에 급제하여 중앙정계에 진출하였으며, 대사성·예조와 대제학을 지낸 후 은퇴하였다. 종종 말년에 조정이 어지러워지고 을사사화 이후에는 독서에 전념하는 구도의 생활에 들어갔다.

이황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학자로서 주자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발전시켰으며 도산서원을 설립하여 후진양성과 학문연구에 전념하여 영남 중심의 주리적인 영남퇴계학파를 형성하였다. 소수서원에서 7년간 기거하면서 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저술활동을 하였다.

표석은 구대법원 자리에 있는데 현재는 시립미술관이 들어서 있다. 2001년까지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라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그의 동상은 남산공원에 있다.

김종서 생가터

김종서(金宗瑞) 생가는 중구 충정로 농업박물관에 자리잡고 있었다. 김종서(1390~1453)는 조선 초기의 정치가로 1405년(태종 5)에 문과에 급제하여 정계에

진출하였다. 세종의 신임이 두터워 1433년 좌대언인 그에게 이부지선(吏部之選)을 관장하도록 특명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함길도 관찰사가 되어 7, 8년간 북변에서 6진을 개척하여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확정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다.

김종서는 1445년 충청·전라·경상 3도의 도순찰사로 파견되어 삼남지방의 목마장으로 적합한 곳과 방마가 가능한 곳의 수효를 조사하여 보고하였으며, 주로 지방으로 돌면서 민정과 실태를 파악하였다. 1451년(문종 1)에는 좌찬성 겸지춘추관사로서 『고려사』를 찬진하였고, 같은 해 우의정이 되었으며, 1452년 『세종실록(世宗實錄)』 편찬의 감수를 맡았다. 1452년 단종이 즉위하자 좌의정이 되었으나, 단종을 보필하다가 수양대군에 의해 살해되었다.

김종서는 6진을 개척한 수장이며, 강직한 위엄을 갖춘 관료였다. 그는 6진의 개척으로 무신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헌부·사간원을 맡아본 문신이었다. 그는 관료로서 세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자, 그의 위세는 범접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의 위세는 단종대에 오면 더욱 심해져 '그의 전횡과 독단이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 단종이 즉위한 후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 아래에서 의정부대신들의 권한은 왕을 압도할 정도였고, 학문과 지략을 갖춘 그의 위세는 당시 '대호'(大虎)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여서, 수양대군이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는 데 가장 문제되는 인물로 지목되었고 계유정난(癸酉靖難) 때에 제거되었다. 그 뒤 1678년(숙종 4)에 그 후손들이 채용되었고, 1746년(영조 22)에 노산군이던 단종이 복위되면서 함께 김종서도 복관되었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 문숙공 윤관 장군상

윤관(尹瓘) 장군상은 중림동 서소문공원 안에 우뚝 서 있다. 윤관은 고려 예종 때의 문신이면서도 여진을 정벌하고 9성을 개척한 공이 있다. 당시 동여진 완안부족은 고려와 여진의 경계지점이었던 함흥 부근에 주둔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때문에 고려군과 여진군은 충돌 직전에 들어갔으며 이듬해 완안부의 기병이 정주관 밖에 쳐들어오게 되었다. 이때부터 여진과의 전쟁이 일전일퇴를 거듭하면서 지속되었다.

결국 여진과의 전쟁에서 고려의 승리로 끝나고 조정에 전승 보고를 올린 다음 탈환한 각지에 장수를 보내어 국토를 확정하고 9성을 축조하였다. 이어 남쪽의 백



윤관장군동상

성들을 이주시켜 이곳을 개척하여 살게 하였다. 새로 성을 구축한 곳은 함주·웅주·길주·공험진 등 6주에 송녕·통태·진양의 3성을 더하여 9성이 되었다.

당시는 서쪽의 요나라가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던 시점으로 여진도 고려와의 평화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으나 9성의 축조와 고려의 농업 이민 때문에 농토를 상실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 여진 사람들도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여진의 적극적인 강화교섭이 시작되었고, 당시 고려측에서도 3가지 이유로 이 지역을 환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첫째는 근거지를 잃은 여진의 보복, 둘째 거리상으로 멀어서 관리가 어렵고, 마지막으로는 무리한 군사동원으로 인한 백성의 원망이라는 이유를 들어 결국은 9성의 환부를 결의하여 여진에게 돌려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윤관도 모함을 받고 관직과 공신칭호조차 삭탈당하게 되었다. 명분 없는 전쟁으로 국력을 탕진하였다 하여 처벌하자는 주장도 대두되기도 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예종의 비호로 1110년에 다시 관직에 오르게 되었으나 사양하고 1130년(인종 8)에 사망하였다. 묘와 사당이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있다.

윤관의 9성 개척은 발해의 멸망 이후 대동강과 원산 도련포 이남으로 한정되었던 영토를 일시적으로나마 확장하였다는 의의를 지니는데, 이는 조선 초에 이르러 4군 6진의 개척으로 이어졌다.

고산자 김정호기념비

김정호(金正浩)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면서 지리학자이다. 우리에게는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생물 연도가 모두 미상이나 대동여지도의 간행연도로 보아 순조·헌종·철종대의 인물로 추정된다. 지도제작과 지지 편찬에 온 정성을 기울였다고 한다. 당시 사회적으로 지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력이나 후손에 대해 알려진 기록은 거의 없다. 또한 그 때만 해도 조선에서는 지도제작이 천기를 누설하는 것으로 여겨져 금기사항이었다. 그는 조선조의 지도와 지지를 집대성한 학자이다. 어려서부터 지리학에 열중하여 널리 지도를 연구하다가 『대동여지도』를 손수 판각하여 발표하였다.

『대동여지도』는 30여 년간 그가 실제로 답사하면서 실측에 의해 만들었으며, 이를 위해 백두산만도 17회나 올라갔다고 한다. 남북 120리, 동서 80리를 1판으



김정호기념비(앞면)



김정호기념비(뒷면)

로 하고, 지도에는 산과 산맥, 하천의 이름과 형상, 관청, 병영, 성터, 역참, 창고, 목장, 봉수 등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청구도』를 참고하여 지도를 제작하였다. 당시로서는 동양적인 전통이 강하면서도 상당히 정확한 지도를 만들었는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지도이다.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지자 너무나도 정확하고 자세한 것에 놀란 조정대신들이 나라의 기밀을 누설시킬 우려가 있다는 혐의로 판각을 압수하여 소각하였으며, 그도 옥에 가두어 옥사시켰다고 한다.

서학당터

조선일보사 자리는 조선조 학생을 교육하던 4학의 하나인 서학(西學)의 터로 1402년(태종 2)에 중부·동부·서부·남부에 학당을 두어 5부학당이라고 칭하였다가 1445년(세종 27)에 북부학당을 폐지하였으므로 4부학당이 되었다. 서부 흥천사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서학이라 이름하였다. 1894년(고종 31)까지 존속하였다.

덕안궁터

1897년(고종 광무 원년)에 후궁인 순빈 엄씨의 궁을 명례궁터에 창설하여 경선궁이라 하고 1912년에 순빈이 죽자 사당에 모시고 덕안궁(德安宮)으로 고쳤다.

무교동 신태악가

조선시대 중인의 전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고, 건축한 당시의 모습대로 변함 없이 내려온 집이다. 대들보에는 186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첫방송터(경성방송국터)

서학당터에서 서대문 쪽으로 계속 가면 덕수초등학교의 담장이 나온다. 학교의 정문을 들어서면 정면 스탠드 위에 방송국자리를 알리는 표석이 서 있다. 덕수초등학교 앞의 길을 따라가면 덕수궁 뒷길로 연결된다. 한적하고 사람이 별로 없어 한가로이 걷기에 좋다.



서울성곽

총둘레 17km, 축성에 11만 명 참여

서울성곽은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석성으로 조선이 개국한 후 1394년에 한양으로 천도하고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축성하였다. 사적 제10호로 지정되어 있고, 총둘레는 약 17km, 현재 남대문·동대문 등의 성문과 암문·수문·여장·옹성 등의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다. 조선왕조는 정도전에게 축성을 명하여 인왕산·목멱산·낙산 등 네산을 연결하는 성터를 결정하였다.

전국의 민정이 무려 11만 명이나 동원되었고, 축성구간을 97개로 나누어 천자문의 글자를 기준으로 하여 각 구획을 나누어 천자(天字)에서 조자(弔字)까지 97구간으로 구획하였다. 해당지역 공사는 2개의 구간마다 각 12명씩을 임명하여 견고한 축성을 유도하였다. 책임부분에 해당하는 관직에 군명을 새겨넣어 책임을 분명히 하였는데 지금도 광희문 부근 성곽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다.

4대문은 동쪽의 흥인지문(興仁之門, 동대문), 서쪽의 돈의문(敦義門, 서대문), 남쪽의 숭례문(崇禮門, 남대문), 북쪽의 숙청문(肅淸門)을 말하고, 4소문이란 동북의 동소문(東小門, 혜화문), 동남의 광희문, 서남의 서소문(西小門, 소의문), 서북의 창의문을 말한다. 현재 숭례문은 좌우 성벽도 없이 도로 한복판에 남아 있고, 서소문과 돈의문은 흔적조차 없어졌다. 서소문은 시청에서 아현동으로 이어지는 서소문로의 중앙일보사와 순화빌딩 사이에 있었고, 돈의문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서대문 사거리로 이어지는 신문로를 따라가면 경향신문사가 나오고 그 신문사에



서울성곽(위)
오간수문(아래)

서 기상청으로 건너가는 건널목 자리에 있었다. 현재 도성은 이화여고 구내에 있는 성돌들을 통해 그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성벽이 강과 만나는 지점에는 수문을 만들고 그 위로 성벽을 연결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창계천 6가와 7가 사이에 있었던 오간수문(五間水門)을 들 수 있다.

1422년(세종 4)에도 한번 수축하였고, 부분부분 수축한 기록도 남아 있다. 1451년(문종 1) 1월부터 경기·충청의 수군으로 성벽을 수축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하여 왜루(倭壘)가 쌓아졌고 이듬해 왜루를 철거하여 그 돌로 다시 수축하였다. 그러다가 1915년에 오면 일제는 '경성시 구역개수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 성문과 성벽을 무너뜨렸다. 그 결과 삼청동·장충동 일대에만 성벽이 남아 있고, 문도 남대문·동대문·동북문·홍예문만 남게 되었다. 현재 정부에서 1975년부터 1980년까지 총연장 9,764.6m의 도성을 원형대로 복원하였다.

서소문터

서소문(西小門)은 1396년(태조 5)에 세워졌으며 남대문과 서대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였다. 이 문은 조선 5백년간 파주·고양·김포 방면으로 왕래하는 인마가 출입하는 작은 성문으로 지금의 중앙일보사옥과 순화빌딩 사이에 세워져 있었는데 1914년 일제에 의해 철거되었다. 소덕문터라고도 하였다.

서소문은 광희문-일명 시구문(屍口門), 또는 수구문(水口門)-과 더불어 도성 안의 백성들이 죽으면 시신을 상여에 싣고 운구하는 저승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서소문 밖의 서소문공원 자리에는 조선 5백년 동안 중죄인을 공개 처형하는 사형장이 있어서 참터(斬址)라고 하였다. 1866년 천주교인을 학살한 병인박해 때 남종삼 등 많은 천주교인들이 이곳에서 처형되어 지금 서소문공원 안에는 천주교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갑신정변(1884)이 3일 천하로 끝난 후 체포된 개화파 인물들이 이곳에서 처형되었다.

제4장

충절의 고향

장충단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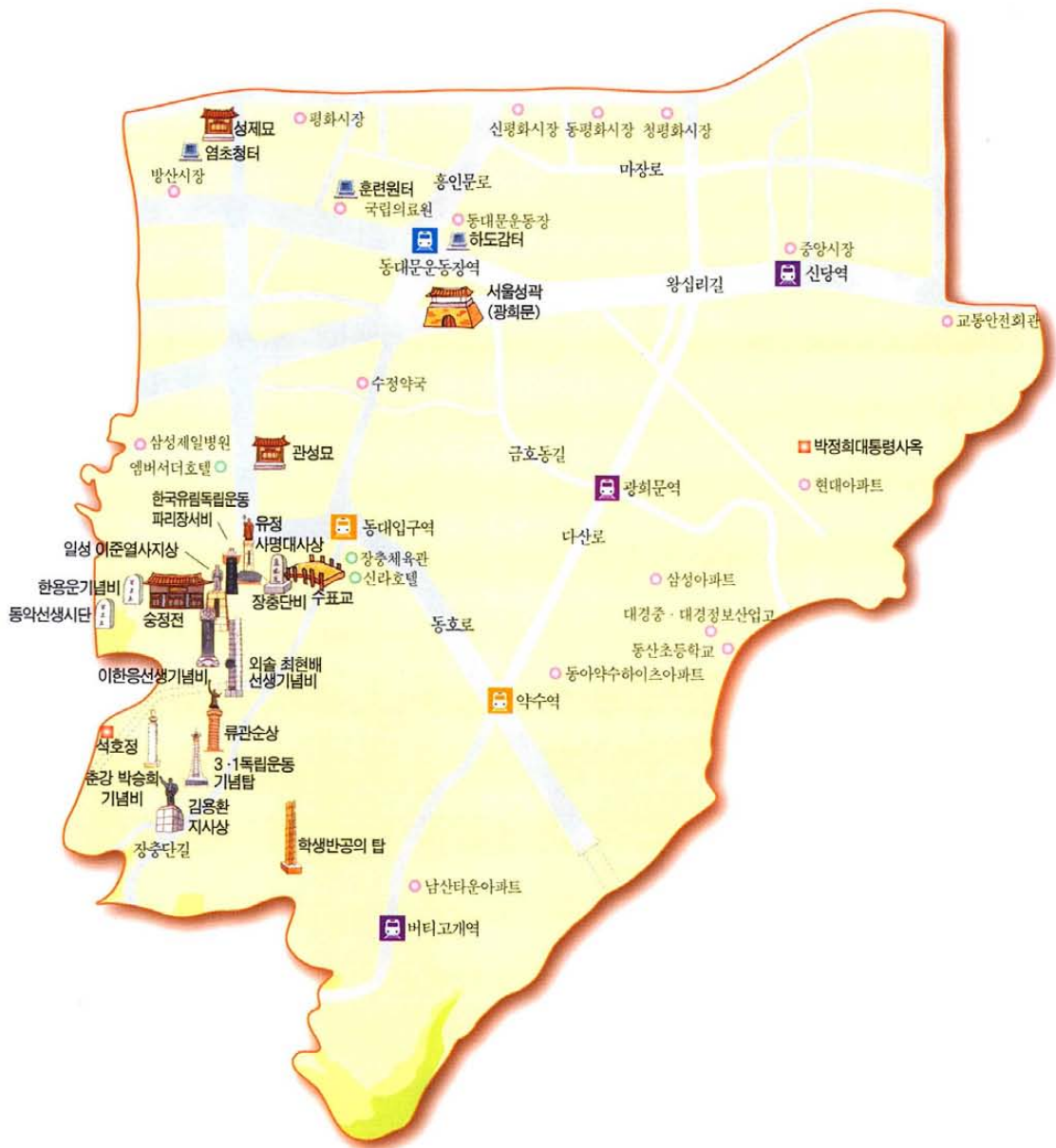
장충단에 얹힌 민족의 애환

장충단공원에서 만난 인물들

역사 향기 가득한 장충단의 명소



장충단지역



제4장

충절의 고향

장충단지역



이번 장에서는 「충절의 고향 장충단지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장충단에 얹힌 민족의 애환», 「장충단공원에서 만난 인물들», 「역사 향기 가득한 장충단의 명소」 등 3개의 테마로 구분하여 왕을 비롯해서 독립운동가, 군인, 지식인,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삶과 역사의 궤적을 살펴보았다.

「장충단에 얹힌 민족의 애환」 항목에서는 장충단공원을 조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고, 공원이 순수하게 백성을 위한 휴식처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민족정기를 끊거나 말살하려는 수단으로 주로 이용된 점을 밝혔다.

장충단이 세워진 직접적인 동기는 일본 제국주의가 일으킨 을미사변 때문이다. 한 나라의 국모를 서슴없이 칼로 난자하고 불에 태워 물어버리는 만행도 정말 어이없는 것이었지만 만행을 숨기기 위한 일본인들의 주도면밀함도 사실 어이없는 일이었다.

어쨌든 을미사변 때 임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항거한 홍계훈, 염도희, 이경호를 비롯한 당시 군인들과 이경직을 포함한 궁내부 대신, 그리고 전란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 순국한 충신들을 제향하기 위해 세운 것이 장충단이다. 일제는 장충단을 공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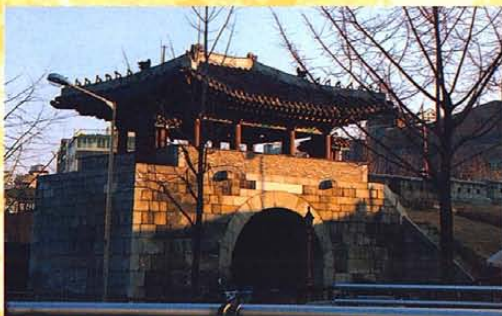
조성하고 벚꽃을 뻗뻗하게 심음으로써 본래의 의도를 왜곡시켜버렸지만 오늘날에는 장충단공원이 유독 일제의 만행을 상기시키고 민족의 웅비를 꿈꾸는 장소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것은 그들도 결코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장충단공원에서 만난 인물들」에서는 사명대사, 동악 이안눌선생, 한용운, 이준, 류관순, 이한웅, 최현배 등의 동상과 기념비들을 해당 인물의 행적과 항일 업적을 위주로 소개하였다. 장충단공원과 인근에 설립된 동상이나 기념비들은 공교롭게도 항일 우국지사들이 대부분이다.

조선 중기의 고승인 사명대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승려의 몸으로 왜군과 맞서 싸운 것은 물론이고 산성수축, 군기제조, 군량미를 비축하는 등 국방에 힘썼다. 만해 한용운 역시 승려이면서도 독립운동에 투신하였고, 자신이 발표한 시와 소설을 통해 민족운동을 전개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소개된 이준 열사와 이한웅 열사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로 인한 치욕과 울분을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일제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고 순국한 사람들이다.

이준 열사는 고종황제로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라는 밀명을 받고 이상설, 이위종과 함께 헤이그에 도착하였으나 일본측의 방해로 회의에 참석할 자격을 얻지 못하자 울분에 못이겨 순국하였다. 이한웅 열사는 1905년 을사조약이 강



제로 체결되면서 외교권이 강탈되자 치욕과 울분을 못이겨 귀국하기를 단념하고 영국에서 유서를 남기고 음독자결하였다. 이러한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자 전국 각처에서도 분사자가 잇따르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화학당의 평범한 여학생이 민족의 영원한 누나로 남게 되었음을 후세들은 류관순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장충단공원 인근에는 이외에도 일제 때에 태어났거나 교육을 받으면서도 국어운동과 신극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조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솔 최현배와 춘강 박승희 등의 기념비가 찾는 이들을 반기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3·1독립운동 80주년을 맞으면서 이를 기념하여 세운 3·1독립운동기념탑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들어내고 있다.

이외에도 장충단공원 인근에는 기념물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장충단공원 안에 있는 한국유림독립운동파리장서비, 자유센터 안에 있는 학생반공의 탑, 김용환 지사 동상 등은 각기 조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순국한 애국지사들의 민족정신을 기리고 있다.

「역사 향기 가득한 장충단의 명소」 항목은 한민족의 생활과 애환의 궤적들로 읽혀도 좋을 것이다. 장충단공원 인근에 분포해 있는 승정전, 광희문, 수표교, 남소문터, 남소영터, 관성묘, 성제묘, 석호정, 3·1 독립운동기념탑 등을 소개하였다. 이곳 정황을 살펴보면 왕



이 머물던 곳, 일반 백성들이 이용하던 대소문(大小門)이나 다리, 군인이 머물던 곳, 제향을 드리는 곳, 활을 쏘는 곳 등이어서 일상 생활과 밀접한 장소들을 역사적 상황과 함께 살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장충단에 얹힌 민족의 애환

순국한 충신들의 제사를 받드는 곳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서나 민족적 기상과 관련된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어김없이 훼손의 손길을 뻗었다. 그 예로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조선시대의 별궁인 창덕궁 후원을 비원으로, 목멱신사가 있는 남산에는 왜성대공원과 한양공원을 조성하거나 격하시킨 예가 그렇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민족적으로 유서 깊은 곳에 공원을 만들되 일본의 국화인 벚꽃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었다는 점이다.

남산 동쪽 밑자락 장충동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장충단공원도 일본 제국주의의 문화 및 민족말살정책에서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장충단(獎忠壇)을 세우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을미사변(乙未事變) 때문이다.

1895년 8월 20일, 일본인 군인들과 자객들은 칼과 총으로 무장한 채 새벽을 틈타 경복궁에 난입했다. 궁성 수비대장 홍계훈(洪啓薰)은 충성을 듣고 군부대신 안경수와 함께 1개 중대의 병력을 이끌고 광화문에 도착하였다. 잠시 멈췄하던 일본 자객들은 문을 막아 선 홍계훈에게 집중사격을 가했고, 결국 홍계훈은 6발의 총탄을 맞은 후 칼로 난자당하고 말았다. 궁중에서 숙직하던 궁내대신 이경직(李耕植)도 난입한 폭도들을 막다가 절명하였다.

일본인 자객들은 밀실을 샅샅이 뒤져 옥호루에서 민비를 찾아내어 칼로 등 뒤에서 난도질하여 살해하였고, 우물에 던졌다가 다시 끌어내어 비단이불에 싣다

음 송판으로 옮겨 경복궁 후원 소정각 인근 소나무 숲 속에서 석유를 뿌리고 불로 태운 후 산 속에 묻어버렸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사실은 미우라(三浦梧樓) 일본공사의 공작이었고 자칫 은폐될 뻔하였다. 사건 발생 때 궁궐에 머물러 있던 미국인 다이와 러시아인 사바틴이 사태의 현장을 생생히 목격하였던 것이다. 이들에 의해 러시아공사 베베르와 미국대리공사 알렌 등 각국 외교관들에게 사태의 진상이 즉각 폭로되어 미우라의 은폐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로부터 5년 후인 1900년, 고종황제는 을미사변 때 일본인 자객들과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홍계훈, 이경직 외에 희생된 장병들의 영혼을 배향하도록 조칙을 내렸으며 단을 설치하되 1년에 봄, 가을로 두 번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그리고 친히 단의 이름을 '獎忠壇(장충단)'이라고 짓고 글씨는 황태자(순종)가 비석에 썼으며, 비문은 충정공 민영환(忠正公 閔泳煥)이 찬술하였다.

일제는 을사조약 체결 이후 1908년(융희 2년)에 장충단의 제사를 폐하고 비석을 남산 숲 속에 버렸으며, 3·1운동 직후에는 이곳에 장충단공원을 만들었다. 공원에는 벚꽃 수천 그루를 심은 것은 물론이다.

장충단은 한국유림독립운동파리장서비가 서 있는 부근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화강암으로 만든 1.5m 높이의 장충단비는 지금의 신라호텔 서쪽 큰 길가 동쪽에 버려져 있었다. 장충단은 폐사된 뒤에도 건물만은 남아있었으나 6·25전쟁 때 없어졌고, 비는 신라호텔 전신인 영빈관이 들어서면서 1969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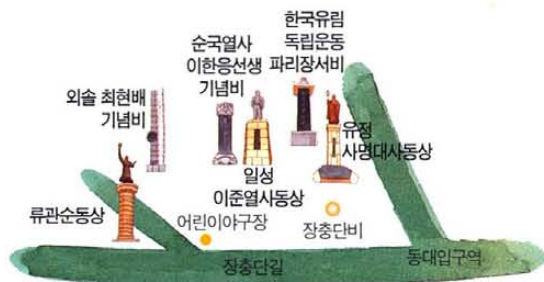
현재 매년 10월 8일 순국 충신들에게 제사드리는 장충단제가 거행되고 있다.



장충단비(위) 장충단제(아래)

장충단공원에서 만난 인물들

일본에 대항한 사람들의 동상과 시단



유정 사명대사동상



사명대사동상

장충단비와 동국대학교 중문의 중간 지점에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사명대사(惟政 泗溟大師, 1544~1610)동상이 우뚝 서 있다. 장충동 2가 산197번지 소재의 이 동상은 1968년 5월 11일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건립한 것이다.

조선 중기의 고승인 사명대사는 법명이 유정, 호는 사명당 또는 송운(松雲)이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김천 직지사(直指寺)로 출가하여 신묵의 제자가 되었다. 승과에 합격한 뒤에 많은 사람들과 교유하였는데 20세 연상인 박순과 5세 연하인 임제와 가까이 지냈다. 직지사의 주지를 지냈으며, 봉은사의 주지로 천거되었으나 사양하고 묘향산 보현사의 휴정, 즉 서산대사를 찾아가서 선리를 참구하였다.

여러 명승을 찾아다니며 도를 닦다가 금강산에서 수도하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당시 유점사에 있으면서 인근 아홉 고을의 백성들을 구출하였다. 특히, 조정의 근왕문과 스승 서산대사의 격문을 받고 승병을 모아 순안으로 가서 서산대사와 합류하였다. 이곳에서 의승도대장이 되어 승병 2,000명을 이끌고 평양성과 중화 사이의 길을 차단하여 평양성 탈환에 나섰다. 평양성 탈환과 서울 근교 삼각산 노원평 및 우관동 전투에서 전공을 세우자 선조는 선교양종판

사를 제수하여 그 공을 기렸다.

산성수축, 군기제조, 군량미를 비축하는 등 국방에 힘썼으며, 1604년 2월 오대산에서 스승 서산대사의 부음을 받고 묘향산으로 가던 중 선조의 부름을 받고 일본과의 강화를 위한 사신으로 임명받았다. 1604년 8월 일본으로 가서 8개월간 노력하여 성공적인 외교성과를 올렸으며, 전란 때 잡혀간 3,000여 명의 양민을 이끌고 귀국하였다.

그 뒤 병을 얻어 해인사에서 요양하다가 1610년 8월 26일 입적하였다. 저서로는 문집인 『사명당대사집(泗溟堂大師集)』 7권과 『분충서난록(奮忠紆難錄)』 1권 등이 있다.

동악선생시단

동국대학교 안에 세워져 있는 동악선생시단(東岳先生詩壇)은 조선 중기의 문인 이안눌(李安訥, 1571~1637)이 이곳에 살면서 당시의 명사들과 시모임(詩會)을 가지던 장소이다. 이안눌의 후손인 이석이 지은 『동강유고(桐江遺稿)』에 실려있는 「동원기(東園記)」에 의하면 이곳에서 당시의 대표적인 시인들과 시를 짓고 풍악을 즐기면서 놀던 다락을 '시루(詩樓)'라 하였고, 그 단을 '시단(詩壇)'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동원 마루터기 바위에다 시단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현손인 이주진이 영조 초에 '동악선생시단'이라고 새겨놓았다고 한다.

29세 때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연관직을 거쳐 단천군수, 홍주목사, 동래부사, 담양부사, 좌부승지, 형조판서 겸 홍문관제학을 지냈다. 1636년 겨울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병중의 몸을 이끌고 왕을 호종하여 남한 산성으로 갔다가 환도한 뒤에 병세가 악화되어 죽었다.

그는 시작에 힘을 기울여 4,379수라는 방대한 양의 시를 남겼으며, 당시(唐詩)에 특히 능해 이태백에 비유될 정도였다. 그의 시는 고답적인 표현을 버리고 절실한 주제를 기발한 시상으로 표현한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동악시단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당대의 문인층 지식인들의 모임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동악선생시단

만해 한용운시비



한용운시비

한용운은 본명이 한정옥(韓貞玉), 아명은 유천(裕天), 법명은 용운, 법호는 만해(卍海)이다. 그의 유년시대에 관해서는 그저 6세 때부터 향리 서당에서 10년 동안 한학을 익혔다는 것 외에는 잘 알려진 게 없다고 한다.

특히, 한용운이 14세 때 고향에서 성혼의 예식을 올렸다는 것도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얘기다. 세상에 관한 관심과 생활의 방편으로 집을 떠나 설악산 오세암에 입산하여 처음에는 머슴으로 일하다가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고 한다.

한용운은 여러 번의 해외여행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았다. 20대에는 블라디보스톡 등 시베리아와 만주 등을 순례하였고, 30세가 되던 해(1909)에는 안중근 의사의 장거가 있었는데 이해 5월부터 6개월간 일본을 방문하여 새로운 문물을 익히고 일본의 풍물을 체험하였다. 또한 1910년 한일합방을 계기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중국 동북3성으로 가서 만주지방 여러 곳에 있던 독립군의 훈련장을 순방하면서 독립군들에게 독립정신과 민족혼을 심어주는 일에 전념한 바 있다.

3·1독립운동 당시에는 백용성 등과 함께 불교계를 대표하여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독립선언문의 내용이 좀더 과감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마지막의 행동강령인 공약 3장만을 삽입시키는 데 그쳤다.

1926년 그의 나이 47세 때는 근대 한국시의 기념비적 시집인 『님의 침묵』을 발간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88편의 시는 민족의 독립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사랑의 노래로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해 한용운은 소설가로도 활약하였는데 『조선일보』에 「흑풍」, 『조선중앙일보』에는 「후회」를 연재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데 힘썼다. 이후에도 한용운은 만당 등 여러 독립운동 비밀단체에 관여하다가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44년 5월 9일 순국하였다.

일성 이준열사동상

장충단공원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준(李儼, 1858~1907)열사 동상은 높이가 3m로 1964년 7월 14일에 건립되었다. 장충단공원에 가면 선현들을 기린 동상이나 기념비 등이 많은데 일본의 침략에 저항한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애국열사이자 애국계몽운동가인 이준도 항일운동의 선두에 섰던 인물이다.

함경도 북청출신인 이준열사는 1887년 초시에 합격하고 1895년에는 법관양성소를 졸업하였으며, 한성재판소 검사보가 되었다. 서재필, 이승만, 이상재(李商在) 등과 독립협회를 조직한 다음 초대 평의장에 취임했으며 서재필 등과 함께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다. 1904년 일본이 국내의 황무지 개간권을 얻으려고 하자 보안회를 조직하여 이를 저지시키려는 민중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일진회에 대항하여 공진회를 조직하고,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친일관료들을 규탄하다가 유배된 적도 있었다.

1907년에는 고종황제로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라는 밀명을 받고 4월 22일에 서울을 출발하여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상설과 페테르부르크에서 이위종과 합류한 뒤 6월 25일 헤이그에 도착하였다. 세계평화회의의장을 방문하여 고종의 친서와 신임장을 공식적으로 전하였으나 한국대표로 일본측과 영국대표의 방해로 회의에 참석할 자격을 얻지 못하여 울분에 못이겨 순국하였다. 일제통감부는 궐석재판에서 그에게 종신징역을 선고하였다.



이준열사동상



류관순동상

류관순동상

장충단길과 남산 제2호 터널이 만나기 전 중간에 세워져 있는 류관순(柳寬順, 1904~1920) 상은 1970년 10월 2일에 건립되었다. 1916년 기독교 감리교 공주교구의 미국인 여자선교사의 도움으로 이화학당의 교비생으로 입학하고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이 학교 고등과 1년생으로 만세시위에 참가했다. 학교가 폐쇄되자 고향으로 돌아와 서울에서의 독립운동 상황을 설명하고 이곳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권유하였다.

음력 3월 1일 아우내 장날을 기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추진하는 한편 수천 명의 군중을 모아 격렬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시위에서 부모가 피

살당하고, 자신은 아우내 만세시위 주동자로 잡혀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받았다. 항소하여 경성복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일제의 한국침략을 지속적으로 규탄하자 법정모독죄까지 가산되어 징역 7년형을 언도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중에도 틈만 나면 독립만세를 외쳐 형무관에게 끌려가 모진 악형을 받았다. 계속 옥중 항쟁을 전개하다가 1920년 17세의 나이로 순국하였다.

류관순이 참살된 지 이틀 뒤에 이 소식을 들은 이화학당의 교장 푸라이와 월터 선생은 형무소로 찾아가 국제여론에 호소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시체 인도를 요구하자, 일제는 할 수 없이 시체를 넘겨주었다. 석유상자 안에 들어있던 류관순의 시체는 토막난 채 참살되어 있었다.

순국열사 이한응선생기념비



이한응선생기념비

한말의 외교관이자 항일우국지사인 이한응(李漢應)선생기념비는 장충단공원 이준 열사의 동상 옆에 있으며 1960년에 건립되었다. 그는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1892년 관립 영어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진사시에 합격하고 한성부주사가 되었으며, 1899년에는 관립영어학교 교관이 되었다. 1901년에는 영국·벨기에 주차공사관 3등참사관에 임명되어 영국의 런던에 부임하였다.

1904년 주영공사 민영돈이 귀국하자 서리공사에 임명되어 대영외교에 모든 책임을 지고 활약하였다.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으로 주권이 흔들리자 각국에 주재하는 우리 공사들에게 전신으로 연락하여 영국 및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쳤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면서 외교권이 강탈되자 치욕과 울분을 못이겨 귀국하기를 단념하고 영국에서 유서를 남기고 음독자결하였다. 이러한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자 뒤이어 민영환, 조병세 등도 뒤따라 순국하고 전국 각처에서도 분사자가 잇따랐다.

고종의 특명과 주영한국공사관 명예총영사 마틴틴의 주선으로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와 경기도 용인에 안장되었다. 그는 가선대부 내부협판에 추증되었으며 장충단에 배향되었다.

그밖의 여러 동상 및 기념비들

장충단공원 인근에는 교육과 문화 방면에 크게 기여한 인물들의 기념비가 있다.

장충동 산 7-24번지에 위치한 외솔 최현배(崔鉉培, 1894~1970) 선생 기념비는 1971년 5월에 건립되었다. 최현배는 일찍부터 신식교육을 받고 1926년부터 1938년 흥업구락부사건으로 파면당할 때까지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하였고,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광복 후 문교부 편수국장과 연희대학교 교수, 학술원 회원, 한글학회 이사장 등 국어운동의 중심적인 인물로 활동하였다.

장충동 산 14-67번지 종합예술학교 앞에 위치한 춘강 박승희(朴勝喜, 1901~1964) 기념비는 1997년 12월 문화체육부의 주도로 건립되었다. 극작가이자 신극운동가인 박승희는 일본 메이지대학 영문과에 입학하였고, 재학 중에 김기진, 김복진, 이서구 등과 문학예술의 동호회인 토월회(土月會)를 조직하였다. 민중계몽을 위한 연극을 주창하여 우리 나라 연극계에 신파극을 토착화시킨 첫번째 공로자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장충단공원 인근에는 기념물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장충단공원 안에 있는 한국유림독립운동파리장서비(韓國儒林獨立運動巴里長書碑)는 1973년 10월 13일에 세웠으며, 김용환지사동상은 1970년 10월에 건립되었고, 자유센터 안에 있는 학생반공의 탑은 1968년 11월 23일에 사단법인 신의주학생의거기념회에서 건립하였는데 각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순국한 애국지사들의 민족정신을 기리고 있다.

장충단비 바로 뒤에는 “第一江山天平無思”라고 새겨진 비문이 있다. 1963년에 배성관(裴聖寬)이란 사람이 이곳에 설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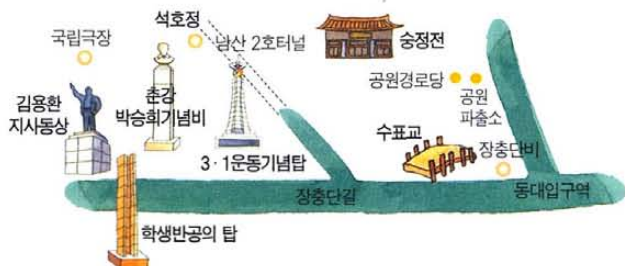


최현배선생기념비



역사향기가 가득한 장충단의 명소

한민족의 생활과 애환의 궤적들



수표교

현재 장충단공원 입구에 설치된 수표교(水標橋)는 조선 세종 때에 만들어진 청계천 다리 중의 하나이다.

조선시대 서울 중심부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내를 건너기 위해서는 수표교, 간수교, 광교 등을 이용했다고 한다. 수표교는 다리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서울 도성내 개천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겸비한 다리로서 당시의 과학성을 알려준다.

이 다리는 원래 수표동 43번지와 관수동 152번지에 위치했었으나 청계천 복개 공사 때 1958년에 철거되어 홍제동으로 옮겨졌다가 1965년에 장충단공원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보물로 지정된 수표석은 1973년에 청량리 홍릉에 있는 세종대왕 기념관에 이설되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수표교는 길이 27m, 넓이 7.5m, 높이 4m 규모의 다리로 돌기둥을 마름모 형태로 놓아 물의 저장을 덜 받게 하고 난간석을 아름답게 조각하는 등 뛰어난 수법의 가구식 석교이다. 돌기둥에는 경(庚), 진(辰), 지(地), 평(平)이라는 수준(水準)을 새겼으며, 영조 때에는 물이 늘어나는 양을 한성판윤에게 알려 홍수에 대비했다고 한다.



청계천의 수량을 재는데 쓰인 수표교



수표(보물 제838호, 홍릉 소재)

승정전

동국대학교 정문으로 들어서면 “정각원(正覺院)”이라고 쓴 현판이 걸린 정면 5칸, 측면 4칸의 다포계(多包系) 팔작지붕 건물이 나타나는데 이곳이 바로 승정전(崇政殿)이다. 이 건물은 1616년(광해군 8)에 경희궁을 건축할 때 지은 정전(正殿)으로 1926년 일제 때 이곳으로 이전해 놓은 것이다.

경희궁(慶熙宮)은 경복궁·덕수궁·창경궁·창덕궁과 함께 서울의 5대 궁궐의 하나로서 조선 후기의 왕들이 머물면서 정사를 돌보던 곳이다. 아울러 경희궁의 승정전은 경복궁의 근정전, 덕수궁의 중화전, 창경궁의 명정전, 창덕궁의 인정전과 함께 왕이 문무백관의 진하(進賀)를 받거나 조회를 할 때 중심이 되는 건물이다. 따라서 승정전이 경희궁에 있을 때는 건물 앞에 정1품부터 종9품까지의 문무백관이 서열대로 늘어서는 표지인 품계석이 세워져 있었다.

1710년(숙종 36)에는 국왕의 60세를 축하하는 헌수하례가 승정전에서 있었고, 4년 뒤 정월 오일(午日)에는 이 곳에서 조회를 마친 후에 왕이 지은 시가 『궁궐지(宮闕志)』에 수록되어 있다. 그후 경종·정조·헌종 등 세 임금은 승정문에서 즉위식을 올린 후 이 전각에서 하례를 받았다.

경희궁과 더불어 승정전은 일제에 의해 수모의 역사를 걷게 된다. 정전으로서



경희궁의 정전이었던 송정전



송정전 뒷편의 팔각구층석탑

의 체모를 순식간에 잃으면서 1926년 일반인에게 매각되었는데 현재 동국대학교 자리의 일본 사찰인 조계사(曹溪寺)로 옮겨와 본당으로 쓰이면서 궁궐 건물의 형태에서 사찰 건물의 형태로 변모되었다. 원래 송정전이 경희궁의 정전으로 있을 때는 정전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둘레에 무랑과 담이 있었고 남쪽에는 송정문, 남동쪽에는 건명문, 동쪽에는 여춘문, 서쪽에는 의추문이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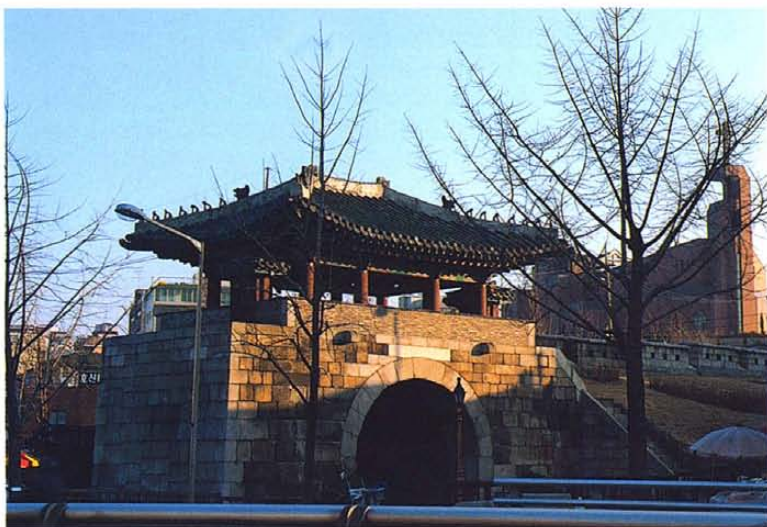
주춧돌과 기둥이 둥근 것이 특징이며 기단석의 대부분은 사라져 기단의 원형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송정전은 대학 내에서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광희문

서울의 성곽에는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 등 도성 8문이 나 있었다. 광희문(光熙門)은 동소문(홍화문, 혜화문), 서소문(소덕문, 소의문), 창의문과 함께 서울 성곽의 4소문 중의 하나였다. 이 중 서소문과 동소문은 일제 때 없어졌으나 1994년에 동소문은 서울시에서 복원하여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지하철 2호선 동대문운동장 남동쪽 출구에서 신당동으로 가는 낮은 고개에 이르러 퇴계로 쪽으로 길을 건너면 광희문이 있다. 광희문은 원래 남소문의 역할을 하였으나 시기적으로나 위치로 보나 오늘날의 남소문터와는 별개의 것으로 구분해야 옳다.

광희문은 흔히 시구문(屍口門), 혹은 수구문(水口門)으로도 불렀는데 이것은 서소문과 더불어 서울 시민들이 죽으면 상여에 싣고 도성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저승문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을 왕래하는 사신들도 어느 문이나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조선의 정문인 남대문을 사용할 수 있는 사신은 중국 뿐이고, 여진 사신은 동소문만을 이용해야 했고, 왜국사신은 어김없이 두무개(옥수동) 나무로 한강을 건너고 나서 시구문, 즉 광희문을 통해서만 도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광희문

광희문은 조선 초 1396(태조 5년)에 서울 성곽을 쌓을 때 축조되었다.

1899년 전차가 개통되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서울의 성문과 성곽이 사라져 갔는데 근래 들어 서울시에서 1975년에 광희문의 문루를 올려 옛 모습을 되찾았다.

남소문터

장충동에서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버티고개’에 있었던 남소문(南小門)은 서울 성곽 4소문 중의 하나로 조선 초 1457년(세조 3년)에 세워졌다. 조선 초에 도성에서 한강나루(한남동)를 통하여 남쪽으로 가려면 광희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거리가 멀어 불편하여 한강나루터를 도성에서 곧바로 통과할 수 있는 문을 새로 설치하자는 건의가 있어 남소문을 건립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은 설치된 지 12년 만인 1469년(예종 1)에 임원준 등이 주장하기를 남소문은 수레조차 다닐 수 없으므로 실용성이 없고, 음양가들이 서울의 남동쪽을 개방하면 화가 미친다고 주장하자 예종이 그 건의를 받아들여 폐쇄하게 되었다. 실제로 남소문을 건축한 직후에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가 세상을 떠났고, 남소문을 열어 놓으면 도성 안의 여자의 음행이 많아진다는 속설이 있어서 꺼렸던 것이다.

그 후 이 문을 개통하자는 의견이 명종과 숙종 때에 여러 차례 제기되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풍수사상에 의한 반대에 부딪혀 개통되지 못하고 말았다.

예종 때 폐쇄된 남소문은 조선 말까지 존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훼손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일제 때에는 주초마저 없어졌다.

남소문이 폐쇄되기 전에는 폐강도가 출몰하여 수비하는 군사를 살해하고 수문장을 협박한 외에 물품을 약탈해 간 '남소문 적도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놀란 예종이 형조에게 명하여 범인들을 체포하게 한 뒤 승정원으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게 한 끝에 혐의자 20여 명 중 4명이 장살되었다. 명종 때에 남소문을 개통하자는 주장이 있었던 것은 남소문이 막힌 관계로 도둑들이 낮에 이 부근에 숨었다가 밤이 되면 성벽을 넘어 도둑질을 하는 것이니 이 문을 열어 피해를 줄이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남소영터

남소영(南小營)은 조선 후기 어영청의 분영(分營) 가운데 하나로 서울 남부 명철방의 남소문 옆에 있었다. 영사의 규모가 모두 194칸에 이르렀고 부근에는 군영과 관계가 있는 건물이 집결되어 있었다고 한다.

남소영에는 초관 1인과 지방군 12인이 입직하였다는데 후에 9인으로 줄었다고 한다.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에 의하면 남소영 북쪽에 137칸의 남창, 남소영 안에는 52칸의 화약고 등이 있었다고 한다.

관성묘

중국 도교계통의 신령인 관운장을 모시는 사묘인 관성묘(關聖廟)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명장 진인(陳寅)에 의해 건립되었다는 설도 있고, 조선조 말 고종 때 엄비에 의해 세워졌다는 설도 있는데 정확한 설립연도는 확실하지 않다. 묘당 정면에 18세기 화풍으로 그려진 관우상과 그 부인상을 좌우로 걸어 모시고 있고 그 왼쪽에는 산신령의 무인상이 걸려 있다.

소피텔 앰버서더 건너편 골목 안쪽에 있는 이 건물은 정면 1칸에 맞배지붕이며 정동향이다. 앞쪽의 문은 6짝이며 세창살인데 격자로 열리도록 돼 있다. 이 묘가

있는 부근은 원래 남영이 있었는데 남영관하의 관성묘였을 가능성도 있다. 1960년까지도 이 묘를 부군당이라고 불렀으나 지금은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아 관성묘라고 부른다.

성제묘

관우를 모시는 조선시대의 사당건물인 성제묘(聖帝廟)는 20㎡ 남짓한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낮은 월대 위에 세워져 있다. 앞면에는 네짝 부합문을 달았고 그 안쪽 맞은편 뒷벽에 자그마한 보개가 설치된 감실 속에 관우의 부부상이 있다.

임진왜란 이후로 서울에는 남묘·동묘가 나라에서 제를 올리던 제도였던 것에 반해 민간에서 모시던 중묘·북묘·서묘 등이 있어 관왕묘라 일컬었다. 그 뒤 임오군란·갑신정변·청일전쟁 등 어수선한 정국이 반복되면서 1902년 이후 관왕묘의 격을 올려서 현성묘, 또는 성제묘라고 하였다.

조선 초기부터 방산동 18번지 일대에는 훈련원이 있었고 4번지 일대에는 임진왜란 이후로 염초청이 있어서 이곳 현성묘가 그들 군인들이 받들던 관왕묘(關王廟)였으나 일제 이후로 민간의 묘당으로 명백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석호정

현재 남산 중앙극장 뒷편에 자리잡고 있는 석호정(石虎亭)은 주로 남산골 선비들이 심신단련을 위해 활을 쏘는 곳으로 장충단공원 뒷편 동국대학교 후문 쪽에 있었다. 동국대학교 중문 바로 옆길을 따라 산을 올라가면 남산 산책로가 나타나고 다시 길을 따라 걷다보면 왼쪽에 석호정이 나타난다.

1950년 6·25 전쟁 때 사라졌다가 1956년 현재의 위치에 있던 노인정을 중수하여 석호정으로 고쳤으며 1970년대부터 비영리단체로서 심신 체력단련과 사우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회원은 약 60여 명이며 활을 쏘는 자



관성묘(맨위)
성제묘(가운데)
석호정(아래)

리(사석)는 7석, 중국궁 표준거리 145m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3·1독립운동기념탑

장충동 국립극장 입구에 세워져 있는 3·1 독립운동기념탑은 3·1 독립운동 8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애국심의 고취를 위해 1999년에 건립되어 시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3·1독립운동기념탑

기념탑의 높이는 19.19m로 1919년 3월 1일을 상징한다. 탑의 맨 아래 쪽 3단의 원형계단은 우주를 상징하고 있으며, 탑신의 기단부 정면에는 3·1 독립선언서의 원문이 새겨져 있고, 좌우측에는 각각 한글과 영문으로 오판석 위에 적혀 있다.

탑의 중추를 이루는 세 기둥은 각기 천·지·인과 독립운동의 주도세력이었던 민족지도자·민간인·학생을 상징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는 기와집과 저고리선을 살린 곡선 모양으로 만들어져 예술적 미와 운치를 더하고 있다. 특히 기둥 위에는 3태극의 원구를 놓아 우주의 중심을 상징하며 원구 위에 새긴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4괘의 조형물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민족의 기상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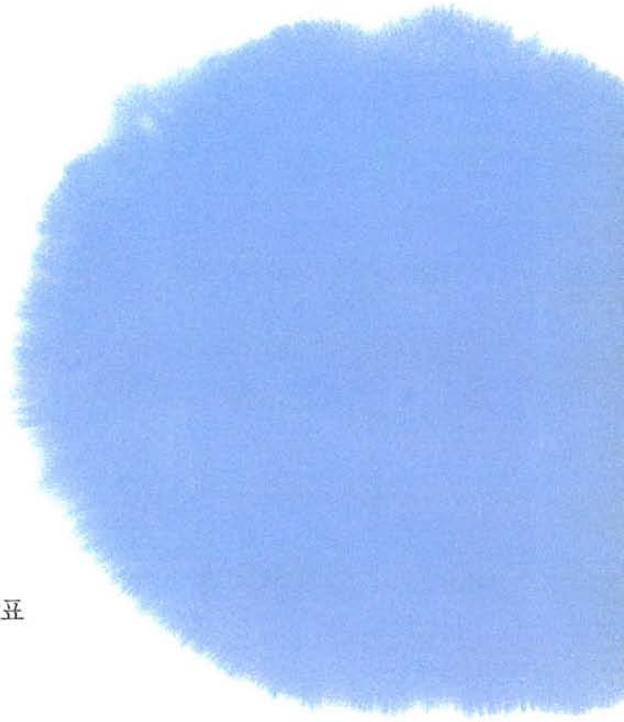
탑의 뒷면에는 3·1 독립운동 당시의 모습을 화강암 부조로 설치하였는데 이는 3·1 독립운동정신이 무장봉기가 아니라 비폭력 투쟁으로 일제의 침략과 수탈에 대항하여 민족의 결집된 힘을 나타낸 의거였다는 점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 뒷면 우측으로는 민족의 수난과 비폭력 투쟁의 상을 세우고, 좌측에는 평화와 민족영광의 상을 세웠는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광된 미래로 비상하는 한국인의 의지를 형상화했다.

기념탑과 조형물의 재료는 재질이 좋은 백색의 황등석 화강암을 사용하여 백의 민족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부 록

중구의 문화공간

중구 문화재 일람표





중구의 문화공간

서울시민대학

시민대학 홈페이지



서울시민대학은 1997년 7월 1일 서울시립대학교 분교로 세워졌으며 강서분교, 강북분교, 을지로분교가 있다. 모집대상은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직장인들이며, 강좌는 서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서울학 분야와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을 위한 자치시민 분야, 그리고 고고학·문예창작·재테크·인테리어·의학상식 등 일반시민들이 관심 갖는 분야를 문화교양 분야로 구분하여 교육하고 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 시간 강의가 있다. 지하철 1호선 시청역 5번 출구나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로 나오면 쉽게 찾을 수 있다.

- 위치 : 본교 :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서울시립대학교
분교 : 을지로분교 - 중구 을지로 1가 63번지 서울특별시의회
을지로별관 4층
강서분교 - 강서구 등촌동 678-7번지 동광그린타워 4층
강북분교 - 강북구 번동 428번지 교보생명빌딩 6층
- 안내전화 : 서울본교 (02)2210-2791~2, 을지분교 (02)776-2632~4
- 인터넷 주소 : <http://www.uos.ac.kr/uosedu>

정동극장



정동극장은 지하철 1호선이나 2호선 시청역에서 내려 덕수궁 출구로 나와 덕수궁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정동교회 맞은편의 붉은색 건물이다. 정동극장은 주로 한국적 정서나 소재를 대표하는 전통예술무대나 뮤지컬, 연극을 공연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공연정보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통예술 상설무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반드시 찾을 정도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 위치 : 중구 정동 8-11번지
- 안내전화 : (02)773-8960~1
- 인터넷주소 : <http://www.chongdong.com>
- E-mail : chongdong@chongdong.com



호암아트홀

1985년 개관한 호암아트홀은 음악·무용·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객석 866석의 다목적 문화예술 공연장이다. 매년 70만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대중공연예술의 필수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호암아트홀과 함께 있는 호암갤러리에서는 기획전시를 통해 대중문화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하차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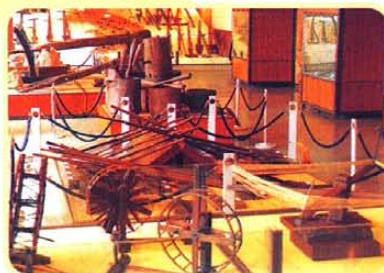
- 위치 : 중구 순화동 7번지 중앙일보사
- 안내전화 : 호암아트홀 (02)751-9997~9, 호암갤러리 (02)771-2381
- 인터넷 주소 : 호암아트홀 <http://www.hoam.joongang.co.kr/>
호암갤러리 <http://www.hoammuseum.org/space/index/>
- 유니텔 : go.scf



농업박물관

농업박물관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귀중한 농업문화 유산이 사라져 가는 현실 상황을 개선하고자 농업협동중앙회에서 1987년 11월 설립하였다. 3천여 점의 농업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농업박물관은 선사시대실, 삼국시대실, 고려·조선시대실, 농가월령실, 농기구분포실, 농업생활관, 농협사료실로 구분하여 시대별·지역별·계절별 유물 및 그림을 전시하고 있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로 나오면 찾을 수 있다.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입장료는 없다.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관하는데 이곳 농업박물관 자리는 원래 김중서 집터였다.

- 위치 :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 안내전화 : (02)397-5673
- 인터넷 주소 : <http://www.nacf.co.kr>





덕수궁미술관

덕수궁미술관은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으로 덕수궁 내의 석조전 별관을 사용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기획전시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덕수궁미술관은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며 덕수궁 폐관 1시간 전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 위치 : 중구 정동 5-1번지 덕수궁 내
- 안내전화 : (02)779-5310~2
- 인터넷 주소 : <http://www.moca.go.kr>



궁중유물전시관

궁중유물전시관은 덕수궁 내의 석조전에 있는데 이곳에서는 창덕궁, 종묘 등 조선 왕실에서 사용하던 궁중유물을 보관·전시하고 있다. 특히 조선 후기 마지막 황태자부부인 영왕과 영왕비가 착용하던 복식을 전시하고 있어 복식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왕실의 물품이 주로 전시되어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왕비의 대례복이나 영왕의 곤룡포, 옥새 등과 왕이 사용하던 생활용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다. 석조전은 현재 덕수궁의 가장 안쪽에 있는 흰색 건물이다.

- 위치 : 중구 정동 5-1번지 덕수궁 석조전
- 안내전화 : (02)771-9954
- 인터넷 주소 : <http://www.ocp.go.kr>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서울애니메이션 센터는 남산 끝자락인 리라초등학교 아래쪽에 있다. 우리나라의 만화·애니메이션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1999년 5월 설립하였다. 이곳에서는 정보실을 통해 국내외 만화·애니메이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작품을 주기적으로 상영하는 영상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전시실 운영, 공용기기의 임대 및 관리, 전문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교육실과 창작지원실 운영, 각종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사랑방 운영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 위치 : 중구 예장동 8-145번지
- 안내전화 : (02)3455-8484
- 견학문의 : (02)3455-8354
- 인터넷 주소 : <http://www.ani.seoul.kr>



우정박물관

우정박물관은 1884년에 근대우편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우체국의 변천과정을 시대에 따라 실물 위주로 전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우정(郵政)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1984년에 '우정 100년'을 기념하고자 서울우체국 신관 4·5층에 임시 우정박물관 건립 공사를 시작하여 1985년에 정식 개관하였다. 개관시간은 3월에서 10월까지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11월에서 2월까지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이며,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개관한다. 공휴일은 휴관한다.

- 위치 : 중구 충무로 1가 21번지 서울중앙우체국 신관4·5층
- 안내전화 : (02)756-2858
- 인터넷 주소 : http://www.tourguide.co.kr/seoul/su_39.htm
<http://www.metro.seoul.kr/kor/tour/space/mu-12.html>





철도박물관

철도박물관은 1899년 철도 개통 이래 지금까지의 100여 년의 철도발전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곳으로 서울역사 안에 있다. 1997년에 개관한 이곳 철도박물관에 가면 역사(驛舍)의 변천상과 총 622점의 다양한 열차 차량의 변화를 볼 수 있으며 안전운행을 위한 600여 점의 다양한 기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기차표나 철도회원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매주 월요일, 공휴일 다음날, 1월 1일, 추석 등에는 휴관한다.

- 위치 :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서울역사 내
- 안내전화 : (02)392-3102, 3149-3083~4, 3087
- 인터넷 주소 : <http://www.korail.go.kr/museum/index2.html>



화폐전시실

화폐전시실은 한국은행 2층에 있는데 우리나라 화폐를 시기별로 전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외국화폐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두 개의 전시실이 있는데, 제1전시실에서는 화폐의 변천과정을 고려시대 · 조선시대 · 개항직후 등 시기별로 보여주고 있다. 제2전시실에서는 외국의 다양한 화폐와 기념화폐를 보여주고 있다. 전시관 견학은 약 9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단체일 경우 10명 이상 60명 이하로 한정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볼 수 있다.

- 위치 : 중구 남대문로 3가 110번지 한국은행 2층
- 안내전화 : 견학신청 및 문의 (02)759-4230
- 인터넷 주소 : <http://www.bok.or.kr>
- PC통신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GO BOK



고당기념관

고당기념관은 1984년 8월에 고당조만식선생기념사업회에서 건립하였다. 이곳은 일반 기념관이나 전시관과는 달리 학술강연을 주로 하는데 매달 두째주 토요일에는 유명인사를 초청하는 '한나라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3층에 사무실이 있고, 6층과 7층에는 강당과 통일기원기도실이 있으며 조만식선생 관련 장서를 전시하고 있다. 지하철 2·3호선 을지로 3가역에서 내리면 된다.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관하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개관한다.

- 위치 : 중구 저동 2가 4번지
- 안내전화 : (02)2265-7280



류관순기념관

류관순기념관은 이화여자고등학교 안에 있으며 1974년에 개관하였다. 이곳은 이화학당 출신으로 3·1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류관순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곳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큰 홀이 있으며, 2층에는 류관순 상설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다.

- 위치 : 중구 서소문동 1-1번지 이화외국어고등학교 내
- 안내전화 : (02)771-1693~5





문화일보홀

옛 동양극장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문화일보홀은 1995년에 문을 열었으며 300석 규모의 음악, 연극 전문공연장이다. 충청로의 문화일보 사옥에 있으며 다양한 예술이벤트 행사와 전시회를 할 수 있는 100평 규모의 문화일보갤러리가 함께 갖추어져 있다.

- 위치 : 중구 충정로 1가 68번지
- 안내전화 : (02)3701-5757
- 문화갤러리 : (02)3701-5760~1



국립중앙극장

남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국립중앙극장은 우리 전통문화의 보전과 새로운 창작공연물의 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1950년에 설립되었다. 국립중앙극장은 국립극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합창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무용단, 국립창극단 등 7개의 전속단체가 있는 우리나라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공연기관이다.

- 위치 : 중구 장충동 2가 산 14-67번지
- 안내전화 : (02)274-1151~8
- 인터넷 주소 : <http://www.nitea.or.kr/com/koreakekjang/index.htm>



한옥마을

한옥마을은 1990년부터 남산 제모습찾기의 하나로 조성이 추진되어 24,000여 평의 대지를 전통 정원으로 꾸미고 서울시지정 민속자료인 한옥 5개동을 이전·복원하여 1998년에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또한 이곳에는 1994년 조성된 서울정도 600년 기념 타임캡슐이 있는데 여기에는 서울시청의 각종 공문서와 현대 문물 600여 점이 보관되어 있다. 이 캡슐은 매설 400년 후인 2394년 개봉될 예정이다.

이곳 한옥마을은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수시로 감상할 수 있는 음악공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의 연극, 놀이, 춤 등이 공연되어 우리의 옛 문화와 만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 위치 : 중구 필동 84-1번지
- 안내전화 : (02)2266-6937~9
- 인터넷 주소 : <http://www.fpcp.or.kr/hanok.html>



한국의 집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생활문화를 한 자리에서 보고 익힐 수 있는 곳으로 1981년에 건립되었다. 건평 744평에 한국의 전통적 건축양식을 살려 지은 3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 위치 : 서울시 중구 필동 2가 81-13번지
- 안내전화 : (02)2267-2375
- 인터넷 주소 : <http://www.koreahouse.or.kr/index.html>





조흥금융박물관

조흥금융박물관은 창립 100주년을 맞은 조흥은행이 우리나라 금융발전사를 한눈에 살펴보고 금융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97년에 설립하였다. 태평로에 있는 조흥은행 광화문지점 3·4층에 위치하며 총 359평 규모에 2,500여 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조흥금융박물관은 3층의 한국금융 사실과 조흥은행사실, 4층의 갤러리로 구성되어 있다.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관하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다.

- 위치 : 중구 태평로 1가 62-12번지
- 안내전화 : (02)738-6806
- 인터넷 주소 : <http://www.metro.seoul.kr/kor/tour/sight/walk1-1.html>



서소문 순교자 기념관

신유박해(1801년)와 기해박해(1839년), 병인박해(1866년) 때 서소문 일대에서 순교한 천주교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하여 약현성당 설립 100주년이 되던 1997년에 건립한 기념관으로 기록화와 순교자들이 사용한 각종 유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 위치 : 중림동 149-2번지 약현성당 내
- 안내전화 : (02)392-5018



중앙문화센터

중앙문화센터는 중앙일보 본사 사옥에 있으며 시민을 위한 교양문화강좌를 연중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위치 : 중구 서소문동 2-6번지
- 안내전화 : (02)776-4414, (02)2000-6011~5
- 인터넷 주소 : <http://education.joongang.co.kr/home.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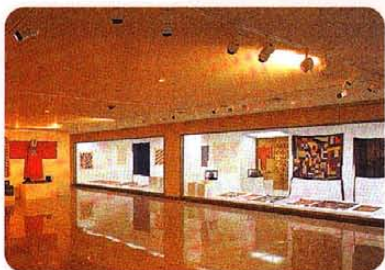


안중근의사 기념관

안중근의사 기념관은 남산광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총 건평 59,428㎡인 이 기념관에는 안중근의사의 영정을 비롯하여 각종 유품, 문헌, 사진자료 등을 상설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이같은 전시 외에도 기념관에서는 안중근의사의 생애와 사상 연구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안중근의사 추모를 위한 애국순례여행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기념관 입구 오른쪽으로는 안중근의사여록비가 새겨져 있다. 매주 토요일은 휴관한다.

- 위치 : 중구 남대문로 5가 471번지
- 안내전화 : (02)771-4195
- 인터넷 주소 : <http://www.patriot.or.kr/>





조선섬유 · 퀼트박물관

남산 기슭에 위치한 조선섬유 · 퀼트박물관은 지난 1998년 10월에 개관한 박물관으로서 다양한 국내의 섬유예술작품들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섬유예술박물관이다. 이곳은 국내외 섬유예술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한국의 우수한 전통 섬유예술을 전수 보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폐관 30분 전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관하고 있으며 관람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 위치 : 중구 남산동 1-20번지 제일문화원 1층
- 안내전화 : (02) 753-4075
- 인터넷 주소 : <http://www.jculture.co.kr/museum/>



조선일보 미술관

조선일보 미술관은 조선일보사 별관에 있다. 1988년 개관하였는데 자체기획전, 초대전, 대관전시회 등을 해마다 개최해 오고 있다. 이종섭미술상 수상자들을 위한 기념전시회 개최, 백남전 비디오 아트전 등을 개최하여 전시문화의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지하철 1·2호선 시청역과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리면 쉽게 찾을 수 있다.

- 위치 : 중구 정동 1-16번지
- 안내전화 : (02) 724-6328
- 인터넷 주소 : <http://event.chosun.com/gallery>



동국대학교 박물관

동국대학교 박물관은 동국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불교 관련 문화재를 비롯하여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 위치 : 동국대학교 내
- 안내전화 : (02) 771-4195
- 인터넷 주소 : <http://www.dongguk.ac.kr/junggak/bud/dmuseum/dmuseum.html>



민애대왕석탑사리호(보물 제741호)



청화백자송죽문호(국보 제176호)



납석삼존불비상(보물 제742호)



보협인석탑(국보 제209호)

중구 문화재 일람표

1. 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명 칭	유 형	소재지	비 고
남대문(송례문)	국보 제1호	남대문로 4가 29	1396년 창건
서울성곽	사적 제10호	장충동 2가 4-5 광희동 2가 105, 정동 28	1396년 축성, 1975년 개축
덕수궁	사적 제124호	정동 1-23	1904년 중건
원구단(황궁우)	사적 제157호	소공동 87-1 조선호텔 옆	1898년 창건
약현성당	사적 제252호	중림동 149-2	1892년 창건
구러시아공사관	사적 제253호	정동 15-3	1890년 창건
정동교회	사적 제256호	정동 32-1	1898년 창건
명동성당	사적 제258호	명동 2가 1-8	1898년 창건
한국은행본관	사적 제280호	남대문로 3가 110	1912년 창건
서울역사	사적 제284호	봉래동 2가 112	1925년 창건
서도소리(이은관)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황학동 1527	1984년 10월 15일 지정
경기민요(안비취)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남산동 2가 41-1	1975년 7월 12일 지정

서울시지정 문화재

명 칭	유 형	소재지	비 고
장충단비	유형문화재 제1호	장충동 2가 197	1900년 건립
성제묘	유형문화재 제7호	방산동 4-96	
수표교	유형문화재 제18호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1421년 건립
송정전	유형문화재 제20호	필동 3가 26-1 동국대학교 내	1926년 복원

명 칭	유 형	소 재 지	비 고
서울성공회성당	유형문화재 제35호	정동 3	1926년 창건
중명전	유형문화재 제53호	정동 1-11	1900년 창건
구제일은행본점	유형문화재 제71호	충무로 1가 53	1935년 창건
오위장 김춘영 가옥	민속자료 제8호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원래는 삼청동에 있었으나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	민속자료 제18호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원래는 관훈동에 있었으나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도편수 이승업 가옥 (조흥은행관리가)	민속자료 제20호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1800년 창건, 원래는 삼각동에 있었으나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순정효황후 윤씨친가	민속자료 제23호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원래는 옥인동에 있었으나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	민속자료 제24호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원래는 제기동에 있었으나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2. 보호수

수 종	소 재 지	수령(년)	높이(m)	둘레(m)	수관(m)	지정 내용
느티나무1	예장동 2-1	500	20	6.4	18	중구지정 1-2-33
느티나무2	남대문로 5가 219	220	20	2.1	20	동지정 1-2-4-8
모감주나무	남대문로 5가 459	56	7	0.65	8	동지정 1-2-4-7
소나무1	장충동 2가 산 14-21	80	16	0.75	6	마을지정 1-2-8-12-28
소나무2	장충동 2가 산 14-21	60	16	1.0	7	마을지정 1-2-8-12-29
은행나무1	회현동 1가 36-3	450	25	5.5	20	서울시지정 1-6
은행나무2	회현동 1가 14-3	450	24	5.4	15	중구지정 1-2-7
은행나무3	예장동 2-1	500	21	5.8	20	중구지정 1-2-36
향나무1	정동 34-16 배재고등학교 교정	500	15	2.1	7	서울시지정 1-8
향나무2	예관동 120-1	300	10	1.5	5	마을지정 1-2-6-4-13
회화나무1	정동 34-16 배재고등학교 교정	800	22	8.5	10	서울시지정 1-7
회화나무2	정동 16-1	500	15	4.9	12	서울시지정 1-9
회화나무3	황학동 1074-1	150	13	2.9	8	마을지정 1-2-17-31-3

3.문화재 일람(가나다순)

명 칭	소재지	비 고
강우규의사 항일의거 자리	봉래동 2가 122번지	
고산자 김정호 기념비	중림동 약현성당 로터리	
관성묘	장충동 2가 186-140	서울시 민속자료 제6호
광문화관터	중구 삼각동 7-1 서울지방법무사회관 옆	
광통관(구상업은행)	남대문로 1가 19	1909년 건립
광희문	광희동 2가 105번지	사적 제10호, 1396년 축성
교적비(서대문국민학교)	정동 28 창덕여자중학교 내	
구러시아공사관터	정동 15-3	사적 제253호, 1890년 건립
구제일은행본점	충무로 1가 53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1호, 1935년 건립
구프랑스공사관터	정동 28 창덕여자중학교 내	
국사당터	예장동 산 5-6 남산팔각정 앞	
군기시터	태평로 1가 61 서울시의회 자리	
군역청터	충무로 3가 60-1 극동빌딩 자리	
김용환지사상	장충동 2가 산 14-79 국립극장 입구	1970년 건립
김유신장군동상	남창동 205-4	1969년 건립
김익상의사 의거터	예장동 8-145	
김종서 집터	충정로 1가 75-1 농업박물관 내	
나석주의사 의거기념터	을지로 2가 181 외환은행 옆	
남대문	남대문로 4가 29	국보 제1호, 1396년 창건
남별궁터	소공동 87-10 현 조선호텔 자리	
남별영터	필동 2가 84 일대	
남산봉수대지	예장동 8-2	서울시 기념물 제14호, 1993년 복원
남산사터	필동 3가 79	
남소문터	장충동 산 5-15	
남소영터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남지터	봉래동 1가 104 일대	
남학당터	필동 1가 36-2 충무로역 4번 출구 앞	
노인정터	필동 2가 134-2	
대광교터	남대문로 1가 19	
대한민국임시정부서울연통부터	순화동 5 동화약품(주) 담 옆	
덕수궁	정동 1-23	사적 제124호, 1904년 중건

명 칭	소재지	비 고
덕안궁터	태평로 1가 61	
도로원표	태평로 1가 68번지	
도편수 이승업 가옥 (조흥은행 관리가)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서울시 민속자료 제20호, 1800년 창건, 원래는 삼각동에 있었으나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도화서터	수하동 64 동국제강 일대	
독립신문발행터	정동 34-5 옛 배재학교터 K관 아래	
독립운동기념터	남대문로 5가 84-11 연세재단빌딩 앞	
동악선생시단	필동 3가 26-1 동국대학교 내	
동평관터	인현동 2가 192	
류관순상	장충동 2가 산7 장충단공원 내	1970년 건립
명동성당	명동 2가 1-8	사적 제258호, 1898년 건립
무교터	무교동 32 체육회관 동해수산 앞	
박정희대통령사옥	신당 6동 62-43	
박준혁가	장교동 63-1	1977년 지정
반공청년운동기념비	중구 예장동 산 5-6	1968년 건립
배재학당	정동 34-5	1885년 건립
백범 김구동상	회현동 1가 100-115	1969년 건립
범바위약수터	예장동 산 5-6	
보루각터	의주로 2가 16-4 서소문공원 내	
부마도위 박영호 가옥	필동 2가 84-1	서울시 민속자료 제18호, 원래는 관훈동에 있었으나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부민관폭파의거터	태평로 1가 60-1 서울시의회 앞	
부영바위약수터	예장동 산 5	
분호조터	소공동 87 조선호텔 내	
3·1독립운동기념탑	장충동 2가 산 14-79 장충단 공원 내	
3·1독립운동기념터	남대문로 3가 110 한국은행 앞	
사촉서터	북창동 23	
서울성공회성당	정동 3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5호, 1926년 창건
서울성곽	정동 27-3, 장충동 2가 4-5	사적 제10호, 1396년 축성
서울시청	태평로 1가 31	1926년 완공
서울역사	봉래동 2가 112	사적 제284호, 1925년 완공
서학당터	태평로 1가 76-3 오양수산 앞	
석호정	장충동 산 14-21	1956년 중수

명 칭	소재지	비 고
선혜청터	남창동 51-1 대한해상화재 보험(주) 자리	
성제묘	방산동 4-96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호
세종대왕상	정동 1-23 덕수궁 안	
소덕문터(서소문터)	서소문동 58-17 명지빌딩 부근	
손기정월계관수	만리동 2가 6-1 손기정공원 내	서울시지정 기념물 제5호, 1936년 식재
손기정홍상	만리동 2가 6-1 손기정공원 내	
손탁호텔터	정동 16 이화여자고등학교 내	
수표교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8호, 1421년 건립
순교자현양비	의주로 2가 16-4 서소문공원 내	1999년 건립
순정효황후 윤씨친가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서울시 민속자료 제23호, 원래는 옥인동에 있었으나,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송정전	필동 3가 26-1 동국대학교 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0호, 1926년 복원
신태약가	무교동 89	
안중근의사동상	남대문로 5가 471 안중근의사 기념관 옆	1974년 건립
약현성당	종림동 149-2	사적 제252호, 1892년 창건
양성지 살던 곳	인현동 1가 40	
염초청터	방산동 4번지 일대	
영희전터	저동 2가 62 저동파출소 자리	
오위장 김춘영 가옥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서울시 민속자료 제8호, 원래는 삼청동에 있었으나,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와룡묘	예장동 산 5-6	서울시 민속자료 제5호, 1935년 재건
외술 최현배선생 기념비	장충동 2가 7-24 장충단공원 내	1971년 건립
원구단(황궁우)	소공동 87-1 조선포텔 옆	사적 제157호, 1898년 창건
유성룡 집터	필동 2가 52-1	
유정 사명대사상	장충동 2가 산 197 장충단공원 내	1968년 건립
윤관장군상	의주로 2가 16-4 서소문공원 내	
윤선도선생 집터	명동 1가 1-3	
이덕형 집터	남대문로 5가 526 대우재단빌딩 자리	
이시영선생동상	회현동 1가 100-115	1986년 건립
이충무공 나신 곳	인현동 1가 2 명보극장 앞	
이한응선생기념비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1960년 건립
이화학당	정동 32-1	1896년 건립
이항 집터	서소문동 57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일감정터	을지로 5가 252번지	
일석 이회승기념비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일성 이준열사지상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장악원터	을지로 2가 181 외환은행 본점 앞	
장충단비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호, 1900년 건립
장충단터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전한국터	태평로 2가 120 신한은행 본점	
정동교회	정동 31-1	사적 제256호, 1898년 창건
정미의병 발원터	서소문동 58-17 명지빌딩 부근	
제중원터	을지로 2가 181 외환은행본점 앞	
조지훈사비	중구 예장동 산 5-6	
주자소터	충무로 3가 60-1 극동빌딩 자리	
중명전	정동 1-11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3호, 1900년 창건
창덕여자중학교	정동 28	1896년 설립
첫방송터	정동 1-76 덕수초등학교 내	
춘강 박승희기념비	장충동 2가 산 14-67 종합예술학교 앞	
철패시장터	봉래동 1가 48 봉래빌딩 부근	
태평관터	서소문동 120-23 명지빌딩 옆	
하도감터	을지로 7가 2번지 동대문운동장 일대	
하미비(저경궁터)	남대문로 3가 110 한국은행 자리	
학생반공의 탑	장충동 2가 산 197 자유센터 내	1968년 건립
한국유립독립운동파리장서비	장충동 2가 산 197 장충단공원 내	
한국은행본관	남대문로 3가 110	사적 제280호, 1912년 창건
한성부 남부 관아터	을지로 1가 140 을지로 입구 8번 출구	
한성부 서부 관아터	무교동 70 현대종합금융빌딩 자리	
한양공원비	회현동 1가 산1-2	
한옥마을	필동 2가 84-1	1998년 완공
한용운기념비	필동 3가 26-1 동국대학교 내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서울시 민속자료 제24호, 원래는 제기동에 있었으나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혜민서터	을지로 2가 192	
호위청터	남산동 2가 2	
훈련원터	을지로 6가 18-79 현 국립의료원 자리	

4. 행정구역별 문화재

광희동

명 칭	소재지	비 고
광희문	광희동 2가 105번지	사적 제10호, 1396년 축성
동평관터	인현동 2가 192	
하도감터	을지로 7가 2번지 동대문운동장 일대	
훈련원터	을지로 6가 18-79 현 국립의료원 자리	

명 동

명 칭	소재지	비 고
광문회관터	삼각동 7-1 서울지방법무사회관 옆	
광통관(구상업은행)	남대문로 1가 19	1909년 건립
구제일은행본점	충무로 1가 53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1호
국사당터	예장동 산 5-6 남산팔각정 앞	
군기시터	태평로 1가 61 서울시의회 자리	
나석주 의사 의거기념터	을지로 2가 181 외환은행 옆	
대광교터	남대문로 1가 19	
덕안궁터	태평로 1가 61	
도로원표	태평로 1가 68번지	
도화서터	수하동 64 동국제강 일대	
명동성당	명동 2가 1-8	사적 제258호, 1898년 건립
무교터	무교동 32 체육회관 동해수산 앞	
박준혁가	장교동 63-1	1977년 지정
부민관폭파의거터	태평로 1가 60-1 서울시의회 앞	
서울시청	태평로 1가 31	1926년 완공
서학당터	태평로 1가 76-3 오양수산 앞	
신태약가	무교동 89	
윤선도선생 집터	명동 1가 1-3	
장악원터	을지로 2가 181 외환은행본점 옆	
제중원터	을지로 2가 181 외환은행본점 앞	
한성부 남부 관아터	을지로 1가 140 을지로 입구 8번 출구	

명 칭	소재 지	비 고
한성부 서부 관아터	무교동 70 현대종합금융빌딩 자리	
혜민서터	을지로 2가 192	
호위청터	남산동 2가 2	

소공동

명 칭	소재 지	비 고
교적비(서대문국민학교)	정동 28 창덕여자중학교 내	
구러시아공사관터	정동 15-3	사적 제253호, 1890년 건립
구프랑스공사관터	정동 28 창덕여자중학교 내	
김종서 집터	충정로 1가 75-1 농업박물관 내	
남대문(송례문)	남대문로 4가 29	국보 제1호, 1396년 창건
남별궁터	소공동 87-10 현 조선호텔 자리	
대한민국임시정부서울연통부터	순화동 5 동화약품(주) 담 옆	
덕수궁	정동 1-23	사적 제124호, 1904년 중건
독립신문발행터	정동 34-5 옛 배재학교터 K관 아래	
분호조터	소공동 87 조선호텔 내	
배재학당	정동 34-5	1885년 건립
사축서터	북창동 23	
3·1독립운동기념터	남대문로 3가 110 한국은행 앞	
서울성공회성당	정동 3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5호, 1926년 창건
서울성곽(서대문 성벽)	정동 27-3 창덕여자중학교	사적 제10호, 1396년 축성
세종대왕상	정동 1-23 덕수궁 안	
소덕문터(서소문터)	서소문동 58-17 명지빌딩 부근	
손탁호텔터	정동 16 이화여자고등학교 정문 안	
원구단(황궁우)	소공동 87-1 조선호텔 옆	사적 제157호, 1898년 창건
이화학당	정동 32-1	1896년 건립
이황집터	서소문동 57	
전환국터	태평로 2가 120 신한은행본점 옆	
정동교회	정동 31-1	사적 제256호, 1898년 창건
정미의병 발원터	서소문동 58-17 명지빌딩 부근	
중명전	정동 1-11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3호, 1900년 창건
창덕여자중학교	정동 28	1896년 설립

명 칭	소재지	비 고
첫방송터	정동 1-76 덕수초등학교 내	
태평관터	서소문동 120-23 명지빌딩 옆	
하미비(저경궁터)	남대문로 3가 110 한국은행 자리	
한국은행 본관	남대문로 3가 110	사적 제280호, 1912년 창건

신당동

명 칭	소재지	비 고
박정희대통령사옥	신당 6동 62-43	

을지로 3·4·5가동

명 칭	소재지	비 고
성제묘	방산동 4-96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호
양성지 살던 곳	인현동 1가 40	
영희전터	저동 2가 62 저동파출소 자리	
염초청터	방산동 4번지 일대	
이충무공 나신 곳	인현동1가 2 명보극장 앞	
일감정터	을지로 5가 252번지	

장충동

명 칭	소재지	비 고
관성묘	장충동 2가 186-140	서울시 민속자료 제6호
김용환지사상	장충동 2가 산 14-79 국립극장 입구	1970년 건립
남소문터	장충동 산 5-15	
남소영터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류관순상	장충동 2가 산 7 장충단공원 내	1970년 건립
3·1독립운동기념탑	장충동 2가 산 14-79	1999년 3월 1일 건립
서울성곽	장충동 2가 4-5	사적 제10호, 1396년 축성
석호정	장충동 산 14-21	1956년 중수
수표교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8호, 1421년 건립
외솔 최현배선생 기념비	장충동 2가 7-24 장충단공원 내	1971년 건립

명 칭	소재지	비 고
유정 사명대사상	장충동 2가 산 197 장충단공원 내	1968년 건립
이한응선생기념비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1960년 건립
일성 이준열사지상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장충단비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호
장충단터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춘강 박승희기념비	장충동 2가 산 14-67 종합예술학교 앞	1997년 건립
학생반공의 탑	장충동 2가 산 197 자유센터 내	1968년 건립
한국유립독립운동파리장서비	장충동 2가 산 197 장충단공원 내	1973년 건립

중림동

명 칭	소재지	비 고
고산자 김정호기념비	중림동 약현성당 로터리	
보루각터	의주로 2가 16-4 서소문공원 내	
손기정월계관수	만리동 2가 6-1 손기정공원 내	서울시지정 기념물 제5호, 1936년 식재
손기정홍상	만리동 2가 6-1 손기정공원 내	
순교자현양비	의주로 2가 16-4 서소문공원 내	1999년 건립
약현성당	중림동 149-2	사적 제252호, 1892년 창건
윤관장군상	의주로 2가 16-4 서소문공원 내	

필 동

명 칭	소재지	비 고
균역청터	충무로 3가 60-1 극동빌딩 자리	
김익상의사 의거터	예장동 8-145	
남벌영터	필동 2가 84 일대	
남산봉수대지	예장동 8-2	서울시 기념물 제14호, 1993년 복원
남산사터	필동 3가 79	
남학당터	필동 1가 36-2 충무로역 4번 출구 앞	
노인정터	필동 2가 134-2	
도편수 이승업 가옥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서울시 민속자료 제20호, 1800년 창건, 원래는 삼각동에 있었으나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동악선생시단	필동 3가 26-1 동국대학교 내	

명 칭	소재지	비 고
반공청년운동기념비	예정동 산 5-6	1968년 건립
범바위약수터	예정동 산 5-6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서울시 민속자료 제18호, 원래는 관훈동에 있었으나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부영바위약수터	예정동 산 5	
순정효황후 윤씨친가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서울시 민속자료 제18호, 원래는 옥인동에 있었으나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송정전	필동 3가 26-1 동국대학교 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0호, 1926년 복원
오위장 김춘영 가옥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서울시 민속자료 제18호, 원래는 삼청동에 있었으나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와룡묘	예정동 산 5-6	서울시 민속자료 제5호, 1935년 재건
유성룡 집터	필동 2가 52-1	
일석 이회승기념비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조지훈사비	예정동 산 5-6	
주자소터	충무로 3가 60-1 극동빌딩 자리	
한옥마을	필동 2가 84-1	
한용운기념비	필동 3가 26-1 동국대학교 내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서울시 민속자료 18호, 원래는 제기동에 있었으나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회현동

명 칭	소재지	비 고
강우규의사 향일의거 자리	봉래동 2가 122번지	
김유신장군동상	남창동 205-4	1969년 건립
남지터	봉래동 1가 104 일대	
독립운동기념터	남대문로 5가 84-11 연세재단빌딩 앞	
백범 김구동상	회현동 1가 100-115	1969년 건립
서울역사	봉래동 2가 112	사적 제284호, 1925년 완공
선혜청터	남창동 51-1 대한해상화재 보험(주) 자리	
안중근의사동상	남대문로 5가 471 안중근의사기념관 옆	1974년 건립
이덕형 집터	남대문로 5가 526 대우재단빌딩 자리	
이시영선생동상	회현동 1가 100-115	1986년 건립

명 칭	소재지	비 고
철패시장터	봉래동 1가 48 봉래빌딩 부근	
한양공원비	회현동 1가 산1-2	

찾아보기

ㄱ

갑오개혁 143
 강우규의사 106
 경복궁 130
 경성방송국 160
 경성부청 117
 경성우체국 116
 경운궁 130
 경희궁 179
 고당기념관 191
 관성묘 182
 광문회관터 109
 광통관(구상업은행) 118
 광희문 180
 구러시아공사관 143
 구제일은행본점 116
 국립중앙극장 192
 국사당터 20
 군기시터 102
 궁중유물전시관 135
 균역청터 90
 기해박해 142
 김대건 140
 김소월 46
 김용환 177
 김유신장군 38
 김익상의사 45
 김종서 156
 김홍도 93
 김홍집내각 143

ㄴ

나석주의사 108
 남대문 70
 남대문시장 76
 남별궁터 99
 남별영터 54
 남산공원 38
 남산공원 안내도 39
 남산봉수대 33
 남산사터 54
 남산팔영 50
 남소문터 180
 남소영터 182
 남학당터 96
 노인정터 52
 녹옹 조현명 29
 녹천정터 55
 농업박물관 187

ㄷ

다산 정약옹 41
 대법원 152
 대한문 131
 대한민국임시정부 서울연통부터 151
 덕수궁 130
 덕수궁 배치도 136
 덕수궁미술관 188

덕안궁터 160
 덕흥전 132
 도산서원 156
 도편수 이승업 가옥 26
 도화서(원) 93
 독립신문발행터 150
 돈의문 161
 동국대학교 박물관 197
 동악선생시단 173
 동양척식회사 89
 동평관터 100
 동학당터 96

ㄹ

롯데백화점 77
 류관순 175
 류관순기념관 191

ㄴ

만해 한용운 174
 명동성당 81
 목역산 20
 목역신사 20
 무교터 102
 무교동 신태약가 160
 문화일보홀 192
 미도파백화점 77

ㄷ

박승환 102
 박승희 177
 반공청년운동기념탑 47
 배재학당 147

백범 김구 42
 백범광장 42
 백운동서원 41
 버티고개 181
 범바위약수 59
 베델예배당 154
 병인박해 83 · 142
 보루각 자객루 138
 부마도위 박영호 가옥 26
 부민관폭파의거터 151
 부암바위약수터 59
 북평관터 96
 분호조터 102
 브랭땅백화점 77

ㄷ

사부학당터 92
 사촉서터 97
 3·1 독립운동기념탑 184
 3·1 독립운동기념터 108
 석어당 132
 서소문 161
 서소문 순교자 기념관 142 · 194
 서소문공원 140
 서울성공회성당 155
 서울성곽 161
 서울시민대학 186
 서울시청 117
 서울애니메이션센터 189
 서울역 78
 서울역사 78
 서학당 93, 159
 석조전 135
 석호정 58 · 183
 선원전 138
 선혜청 89
 성재 이시영선생 44
 성제묘 183
 세브란스 병원 113

세종대왕상 139
 소수서원 41
 소월사비 46
 손기정 월계관수 152
 손기정 흉상 153
 순탁호텔터 85, 145
 수구문 181
 수표교 178
 수표석 178
 순교자현양비 140
 순정효황후 윤씨 친가 26
 송례문 70
 송의전 179
 송정전 179
 시구문 181
 신세계백화점 76
 신유박해 142
 신윤복 93



아관파천 143
 안중근의사동상 43
 안중근의사 기념관 195
 약현성당 140
 양성지 121
 염초청터 103
 영희전터 87
 오간수문 162
 오위장 김춘영 가옥 26
 와룡묘 55
 우정박물관 189
 원구단 104
 유성룡 23, 122
 유정 사명대사 172
 육의전 73
 윤관 157
 윤덕영 26
 윤선도 120
 을마사변 170

을사조약 114
 이경직 170
 이기이원론 156
 이상 85
 이서우 23
 이승훈 41
 이안눌 173
 이한응 176
 이화학당 149
 이항 집터 156
 이희승 29
 일성 이준열사 175



자연보호현장비 44
 잠두약수터 62
 장악원터 89
 장충단공원 170
 장충단비 170
 장충단약수터 61
 장충단터 170
 저경궁터 87
 전구서 97
 전국직봉경로 37
 전환국터 110
 정각원 179
 정관현 132
 정도전 96
 정동교회 154
 정동구락부 144
 정동극장 186
 정미 7조약 107
 정미의병 발원터 107
 정선 93
 제비다방 85
 제중원터 112
 조선고등법원 152
 조선시대 봉수망 36
 조선은행 115

조선일보 미술관 196
 조선저축은행 116
 조선총독부 114
 조씨노기 29 · 52 · 54
 조지훈시비 47
 조흥금융박물관 194
 주자소터 91
 준명당 134
 중명전 138
 중앙문화센터 195
 중학당터 96
 중화전 134
 즉조당 134
 진위도원점 21

ㄷ

창경궁 130
 창덕궁 130
 철도박물관 190
 첫방송터 160
 초전섬유 · 켈트박물관 196
 최현배 177
 충무공 이순신 119
 칠패시장 73

ㄹ

타임캡슐광장 30
 태평관터 99
 토월회 177
 퇴계 이황선생 40

표

팔각구층석탑 180
 팔각정 21
 평성문 138
 품석 135
 프라이홀 85 · 145
 프랑스공사관터 144

ㅎ

하도감터 103
 하마비 87
 학생반공의 탑 177
 한국유림독립운동파리장서비 171
 한국은행본관 115
 한국의 집 193
 한성목역산 37
 한성부 남부 관아터 97
 한성부 서부 관아터 97
 한양공원비 48
 한양십영 50
 한옥마을 22, 198
 한일신탁약 101
 한일의정서 114
 함녕전 132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 26
 해민서터 111
 호암아트홀 187
 호위청터 103
 홍계훈 170
 화폐전시실 190
 황궁우 104
 훈련원터 101
 휴암약수 59

참고자료

- 『고구려 고분벽화』, 한국방송공사, 1994.
- 『古地圖와 古書로 본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 『끝나지 않은 전쟁』, 조지 풀러 사진, 신광수 엮음, 눈빛, 1996.
- 『남산 아래 끝 동네』, 박경룡, 秀文出版社, 1997.
- 『남산의 역사와 문화』, 서울특별시 중구 향토사 관계자료 제3집, 중구문화원, 1998.
- 『農業博物館圖錄』, 農業協同組合中央會, 1988.
- 『檀園 金弘道』, 삼성문화재단, 1995.
- 『덕수궁』, 글 김순일 · 사진 김종섭, 대원사, 1991.
- 『洞名沿革攷(Ⅱ)』,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68.
-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의 역사』, 역사문제연구소 지음, 웅진출판, 1993.
- 『사진으로 본 백년전의 한국 - 근대 한국(1871~1910)』, 김원모 · 정성길 엮음, 가톨릭출판사, 1986.
- 『사진으로 본 중구의 어제와 오늘』, 중구문화원, 상원사, 1998.
- 『서양인이 본 꼬레아』, 박영숙 편저, 삼성언론재단, 1997.
- 『서울문화재』, 서울특별시, 1996.
- 『서울, 서울, 서울』, 朴性泰 · 延成柱 · 文周鏞 著, 한국일보, 1993.
- 『서울 역사문화산책』, 서울특별시, 1997.
- 『서울의 문화유산 탐방기』, 서울학연구소, 숲과 나무, 1997.
- 『서울의 옛모습』, 서울특별시립박물관, 1998.
- 『서울의 옛 地圖』, 李燦 · 楊普景 著, 서울학연구소, 1995.
- 『시장의 사회사』, 정승모 지음, 웅진출판, 1992.
- 『약현 - 1891~1991』, 천주교중앙교회의 100년사편찬위원회, 1990.
- 『역사 문화 유적의 현장을 찾아』, 서울특별시, 1995.
- 『600년 서울 땅이름 이야기』, 김기빈 지음, 살림터, 1993.
- 『조선후기 서울의 사회와 생활』(서울학연구총서), 서울학연구소, 1998.
- 『中區文化』(제2호), 중구문화원, 1998.
- 『中區文化』(제3호), 중구문화원, 1999.
- 『'99 중구사진대전』, 중구문화원, 1999.
- 『중구사화』, 서울특별시 중구 향토사 관계자료 제2집, 중구문화원, 1997.
- 『중구생활안내』, 서울특별시 중구, 2000.
- 『중구의 문화재』, 서울특별시 중구, 1996.
- 『中區誌』, 서울특별시 중구, 1994.
- 『중구 향토사 관계자료집 제1집』, 중구문화원, 1996.
- 『한국독립운동사적도록』, 국가보훈처, 1999.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한국의 발견 - 서울』, 뿌리깊은나무, 1983.

책을 편집하며

향토사는 우리 고장 사람들이 애향심을 바탕으로 서술한 우리 향토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올해 향토사 연구위원회에서 우리 중구의 향토역사 자료를 개론서로서 엮기로 하였습니다.

자료의 조사, 수집, 발굴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외세의 침략과 한국전쟁,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 등을 겪으면서 우리 고장의 많은 문화재가 멸실되고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고문헌에 실린 남산주위(필동, 예장동, 남산동, 회현동)의 금석문을 찾지 못한 것은 아쉬움과 함께 또 하나의 연구과제로 남았습니다. 또한, 신당동과 황학동지역은 지표조사를 통하여 잊혀져가는 향토사료를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 고장의 모든 향토 역사자료를 다루었지만 빠진 부분, 미진한 부분은 계속 연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중구청 직원 여러분, 자문과 감수를 하여 주신 동국대 김창수 교수님, 시사편찬위원회 박경룡 박사님, 그리고 도서출판 큰기획 이기만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 12월
중구문화원 총무과장 김 동 주

서울 중구 도심속으로의 역사기행

중구 향토사 관계자료 제4집

발행일 : 1999년 12월

발행처 : 중구문화원

발행인 : 김영남

감 수 : 김창수 · 박경룡

기 획 : 김동주 · 이기만

원 고 : 신승철 · 류현희

디자인 : 김은영 · 이현주

사 진 : 김은영 · 이성복

교 정 : 김동주 · 이기만 · 주혁 · 이성복

제 작 : 도서출판 큰기획(02-2268-6832)

© 중구문화원 1999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전화 (02)775-3001

비매품

이 책자는 중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중구문화원 향토사 자료집

1. 『중구 향토사 관계자료집』(제1집), 1996.
2. 『중구사화 - 중구 문화유적에 얹힌 이야기』, 1997.
3. 『남산의 역사와 문화』, 1998.

서울 중구

도심속으로의 역사기행

중구 향토사 관계자료 제4집

